

2014-01

arts change the world

2014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2014. 12

2014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지역문화부장 강병주  
지역문화부 박다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2014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 2014 . 12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주관기관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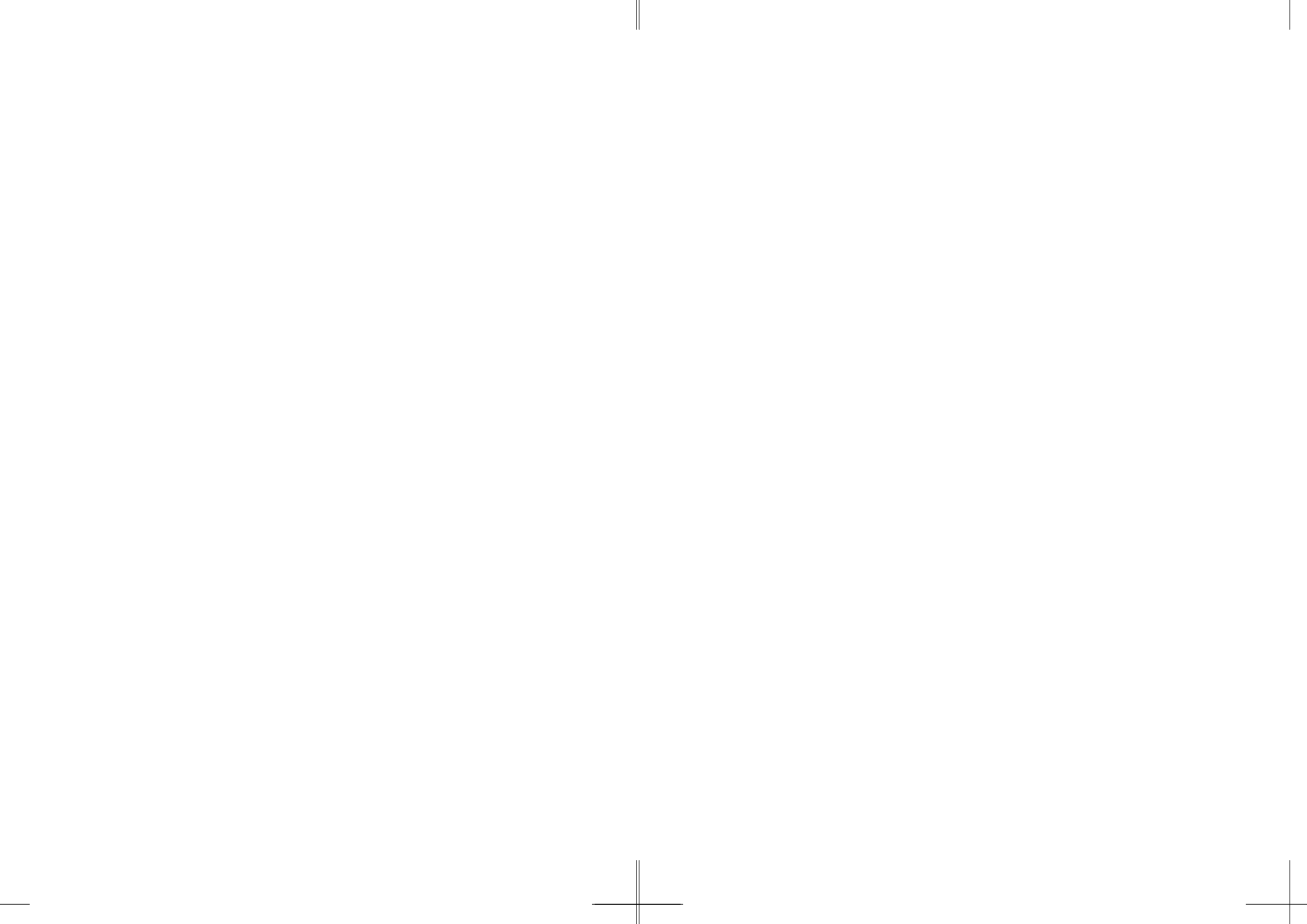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 장 현 선 대표

공동연구원 : 전 승 녕 연구원

공동연구원 : 윤 혜 란 이사

보조연구원 : 황 은 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 김 보 람 과장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18
2. 연구 목적 및 의의	20
3. 연구의 고려사항	21
4. 연구의 주요 내용	22
제2절 : 문헌 · 선행연구	
1. 문화다양성의 개념	24
2.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 · 제도 현황 분석	31
3. 국내 방송 · 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35
4. 해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공영방송에서 문화다양성 방송 관련 정책분석	57
제3절 : 모니터링 운영 체계 및 분석 방법	
1. 모니터링 대상 및 규모	64
2. 모니터링 선발 · 관리 체계	66
3. 모니터링단 특성	69
4. 모니터링 주제 및 분석방법, 대상 선정	72
5. 모니터링 활동	77
6. 모니터링 일지	85

### 제2장 본론

제1절 :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1. 전체 [방송] 속성별 결과	98
2. 전체 [방송] 키워드별 결과	101
3. 전체 [언론] 속성별 결과	103
4. 전체 [언론] 키워드별 결과	107
5. [방송]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109
6. [언론]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122

제2절 : 문화다양성에 대한 방송 · 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사례	
1. [방송] 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38
2. [방송]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53
3. [방송] 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64
4. [방송] 타문화-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74
5. [방송]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86
6. [방송] 성별/계층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194
7. [언론]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사 긍정 사례	207
8. [언론] 외국인/인종/타 문화 관련 기사 긍정 사례	215
9. [언론] 장애인 관련 기사 긍정 사례	228
10. [언론] 기타 계층 관련 기사 긍정 사례	234
11. [언론]영역별 기사 비교 모니터링	244
제3절 : 모니터링단 소감문	
1.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 전후 인식변화	248

### 제3장 결론

제1절 : 문화다양성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1. 문화다양성 관련 환경	254
2. 문화다양성 개념	255
3. 문화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관련 현황	256
제2절 : 방송 · 언론 모니터링 내용 결과	
1.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	258
2.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언론 기사의 특징	264
제3절 : 이후 방송 ·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제언	
1. 2014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266
2. 이후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 운영의 방향	267
3. 대상 방송 프로그램 · 언론 기사 선정	268
4. 방송 · 언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269
참고문헌	271

## 표 목 차

〈표 1-1〉 연구 내용 및 차별적 접근 방법	22
〈표 1-2〉 문화다양성 범주	29
〈표 2-1〉 국내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현황	35
〈표 2-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38
〈표 2-3〉 다문화 차별관련 법률 및 인권관련 국제 조약	39
〈표 3-1〉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 긍정적 유형	43
〈표 3-2〉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 부정적 유형	44
〈표 4-1〉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방송광고)	46
〈표 4-2〉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뉴스)	48
〈표 4-3〉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오락프로그램)	50
〈표 5-1〉 방송위원회 성 평등 관련 심의 규정	52
〈표 5-2〉 여성가족부 방송심의용 가이드북	52
〈표 5-3〉 오락 프로그램을 위한 심의 가이드북	53
〈표 5-4〉 보도 프로그램을 위한 심의 가이드북	54
〈표 5-5〉 여성민우회 방송 심의 가이드북	55
〈표 6-1〉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일본)	60
〈표 6-2〉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독일)	61
〈표 6-3〉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프랑스)	62
〈표 7-1〉 모니터링단 선발 계획	66
〈표 8-1〉 모니터링단 특성(성별 쿼터)	69
〈표 8-2〉 모니터링단 특성(선주민/이주민 쿼터)	69
〈표 8-3〉 모니터링단 특성(직업군 쿼터)	70
〈표 8-4〉 모니터링단 특성(세대 쿼터)	70
〈표 8-5〉 모니터링단 특성(지역 쿼터)	71
〈표 9-1〉 자문진 이력	74
〈표 10-1〉 문화다양성 키워드	75
〈표 11-1〉 사전 워크숍 진행 스케줄	78

〈표 11-2〉 사전 워크숍 현장 사진	79
〈표 12-1〉 결과 워크숍 진행 스케줄	82
〈표 12-2〉 결과 워크숍 현장 사진	83
〈표 13-1〉 문화다양성 방송 모니터링 일지 양식	85
〈표 13-2〉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단일기사)	88
〈표 13-3〉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비교기사)	90
〈표 14-1〉 방송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98
〈표 14-2〉 방송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99
〈표 14-3〉 방송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100
〈표 14-4〉 방송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100
〈표 14-5〉 방송 - 프로그램 키워드	101
〈표 14-6〉 방송 - 키워드별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발현지수	102
〈표 15-1〉 언론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103
〈표 15-2〉 언론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104
〈표 15-3〉 언론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105
〈표 15-4〉 언론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106
〈표 15-5〉 언론 - 기사 키워드	107
〈표 15-6〉 언론 - 키워드별 기사 문화다양성 발현지수	108
〈표 16-1〉 방송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109
〈표 16-2〉 방송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112
〈표 16-3〉 방송 - (1)세대(실버, 청소년)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114
〈표 16-4〉 방송 - (2)장애인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15
〈표 16-5〉 방송 - (3)타문화(여행, 지역)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117
〈표 16-6〉 방송 - (4)타문화(이주민)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18
〈표 16-7〉 방송 - (5)새터민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19
〈표 16-8〉 방송 - (6)성별/계층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21
〈표 17-1〉 언론 - 주제 영역별 키워드	122

〈표 17-2〉 언론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123
〈표 17-3〉 언론 - (1)세대(실버, 청소년)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26
〈표 17-4〉 언론 - (2)장애인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27
〈표 17-5〉 언론 - (3)타문화(문화, 종교)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29
〈표 17-6〉 언론 - (4)타문화(이주민)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30
〈표 17-7〉 언론 - (5)새터민/이산가족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31
〈표 17-8〉 언론 - (6)성별/계층/학력 기타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33
〈표 17-9〉 언론 - (7)가족형태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34
〈표 17-10〉 언론 - (8)범죄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135
〈표 18-1〉 분야별 모니터링 대상	137
〈표 19-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1)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138
〈표 19-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1)세대(실버, 청소년)	139
〈표 19-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1)세대(실버, 청소년)	148
〈표 20-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2)장애인 관련	153
〈표 20-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2)장애인 관련	154
〈표 20-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2)장애인 관련	161
〈표 21-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3)타문화(여행, 지역)관련	164
〈표 21-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3)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165
〈표 21-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3)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170
〈표 22-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4)타문화(이주민) 관련	174
〈표 22-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4)타문화(이주민)관련	174
〈표 22-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4)타문화(이주민) 관련	183

〈표 23-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5)새터민 관련	186
〈표 23-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5)새터민 관련	186
〈표 23-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5)새터민	192
〈표 24-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6) 성별/계층/기타 관련	194
〈표 24-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6) 성별/계층/기타 관련	194
〈표 24-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6)성별/계층 기타	204
〈표 25-1〉 언론 - 기사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244
〈표 26-1〉 방송 - 모니터링 소감문	248
〈표 26-2〉 언론 - 모니터링 소감문	251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전체 추진 체계 도식도	23
〈그림 2-1〉 다문화 미디어 재현분야별 모니터링 개요	41
〈그림 3-1〉 미디어 모니터링 분석양식 예시	42
〈그림 4-1〉 다양한 주체발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가치	64
〈그림 5-1〉 모니터링단 선발 체계	66
〈그림 5-2〉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	68
〈그림 6-1〉 영역별 X 미디어별 모니터링단 배치 및 모니터링 방법	76

## 제1장 서론

## 제1장

## 서론

## 제1절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고려 사항
4. 연구의 주요 내용

## 제2절 : 문헌 · 선행연구

1. 문화다양성의 개념
2.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도 현황 분석
3.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4. 해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공영방송에서 문화다양성 방송 관련 정책분석

## 제3절 : 모니터링 운영 체계 및 분석 방법

1. 모니터링 대상 및 규모
2. 모니터링 선발·관리 체계
3. 모니터링단 특성
4. 모니터링 주제 및 대상 선정
5. 모니터링 활동
6. 모니터링 일지

## 제1장 서론

## 제 1절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 2014년 11월 29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sup>1)</sup>

-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과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그 목적으로 함 (제 1조 목적 참고)
- － 본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조사, 연구, 활동의 지원, 국제협력을 진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 제4조 참조)
-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문화다양성 시대 대중매체의 역할 중요성

- － 최근 문화다양성이 미디어 속에 왜곡된 모습으로 재현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인됨 (예. 예능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퀴즈’의 흑인 희화 내용에 대한 해외 시청자의 불만 사례 접수)
- －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진 방송·언론 미디어는 문화다양성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됨
- － 이에 2012년 ‘미디어 속 다문화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문화다양성 시대 대중매체 역할을 설명함
  - 첫째,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콘텐츠 제작이 증가함에 매체가 일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큼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시자료 참고



## 제1장 서론

- 둘째, 대중매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 제작의 증가는 문화다양성 관련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셋째, 대중매체가 인터넷, 모바일, SNS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려와 주의가 더욱 필요함
- 방송 및 언론을 통한 타문화 존중 및 이해 증진의 인식 확산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언론 및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긍정·부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 요구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와 실질적 이해 도모하고자 2012년에 ‘방송 영상 제작자를 위한 미디어 속 다문화 모니터링’ 연구로 미디어 가이드를 제작함
  -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과 연수교육과 미디어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 모니터링 연구인 2014년에는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시민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향후 문화다양성 인식개선과 확산에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인종차별위원회 최종 견해에서 미디어 모니터링의 필요성 언급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간 개최된 제2187차 회의를 통해 심사 진행
  - 최종 견해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을 확인할 필요성이 언급됨

## 제1장 서론

## 2. 연구 목적 및 의의

-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 항목과 세부 항목으로 정의함
- 첫째,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여
    - 방송·언론사의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 방송·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시 반영되도록 홍보하여,
    - 최종적으로 사회전반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둘째,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활동을 부각하여
    - 문화다양성의 왜곡된 시선을 개선하고자 함
  - 셋째, 발굴 사례의 실질적인 언론 및 방송 적용 사례 도출하여
    - 축적된 모니터링 사례를 실제 방송에 적용하도록 권고
    - 언론 기획기사 및 방송 기획보도 권장 제안
    - 실제 언론·방송에 적용된 사례 수집 및 홍보

## 제1장 서론

## 3. 연구의 고려 사항

- 모니터링단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기본 가치를 강조
  - 모니터링단의 구성 자체에 다양한 시각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문화다양성 모니터링단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가치를 대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은 방송·언론의 전공자(대학, 대학원생), 문화다양성 유관 시민단체 종사자, 교사 등을 포괄하도록 구성
  - 시민 모니터링단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을 고려)을 포괄하고 이주민, 장애인 등의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는 계층을 포괄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모니터링단 내부적으로 문화다양성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모니터링단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 및 모니터링단 자체의 학습과 성장을 지향
  - 멘토(전문 모니터링단)-멘티(시민 모니터링단)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를 구성, 모니터링단 간의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함
  - 전문 모니터링단과 시민 모니터링단을 1조로 구성하여 소 모임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소 모임 내의 원활한 소통과 활동 과정, 모니터링단의 시각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사례 등이 표출되도록 함

## 제1장 서론

## 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내용 및 차별적 접근 방법

〈표 1-1〉 연구 내용 및 차별적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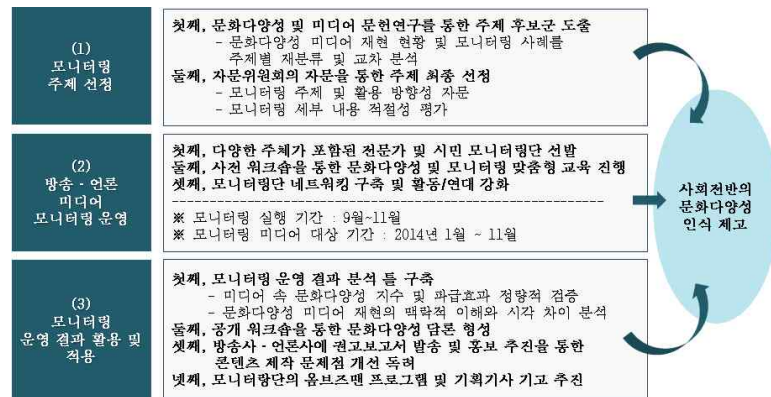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차별적 접근 방법
문헌·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li> <li>○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필요 시)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도 현황 분석</li> <li>○ 해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공영 방송에서 문화다양성 방송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li> </ul>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 방향성</li> <li>○ 모니터링 주제 및 내용 적절성</li> <li>○ 문화다양성 문헌연구 및 모니터링 분석 틀</li> <li>○ 사업진행 공유 및 정례적 의견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연구</b>와 연계를 통해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li> </ul>
사전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li> <li>○ 모니터링단 역할 교육</li> <li>○ 모니터링 활동 방식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 운영 <b>지속성확보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그룹(조)으로 연계하기</li> </ul> </li> </ul>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네트워크 공간 마련</li> <li>○ 영역별 모니터링 진행</li> <li>○ 분기별 모니터링 일지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단 <b>네트워킹 활성화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자유 주제 토론</li> </ul> </li> </ul>
결과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속 문화다양성 모니터링 활동 보고</li> <li>○ 의견 공유 및 개선과제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모니터링 결과의 <b>일상성(활용성)</b>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자유 토론 주제(성과) 발표</li> </ul> </li> </ul>
운영 결과 활용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워크숍 개최</li> <li>○ 권고보고서 발송 및 보도자료 홍보추진</li> <li>○ 옴부즈맨 프로그램 및 기획기사 기고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 <b>증진 및 확산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구전활동</li> <li>- 조별 운영을 통한 활동 및 연대 강화 (시민의식 고취)</li> </ul> </li> </ul>

## 제1장 서론

## □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1)모니터링 주제 선정, (2)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3) 모니터링 운영 결과 활용 및 적용의 3단계로 주요 연구 추진체계를 수립함.
- (1) 모니터링 주제 선정단계에서는 방송·언론의 보도 내용 중 본 연구용역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모니터링단의 활동 내용의 주제연관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
- (2)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운영은 모니터링단의 선발 및 교육, 활동에서의 연대강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
- (3) 모니터링 운영 결과 활용 및 적용 단계에서는 운영 결과의 분석 틀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성적 사례 도출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검증을 도모하고 사전·결과 워크숍을 통해 모니터링단 자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각 변화를 도모

〈그림 1-1〉 연구의 전체 추진 체계 도식도



## 제1장 서론

## 제2절 문헌·선행연구

## 1. 문화다양성의 개념

## 가.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연 외, 2013). 또한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이 아닌 공존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문화다양성이 한 시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함을 뜻한다.
- 문화다양성의 어원은 라틴어의 '디베르수스'(diversus)에서 유래했다. 디베르수스는 여러 가지 갈래를 의미하며 일치하지 않고 대립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동연 외, 2013). 즉 문화다양성의 개념 역시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조화와 화합의 의미 외에도 차이와 불일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 문화다양성은 글로벌 문화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경, 인종, 종교,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사회변동에 따른 문화의 경쟁, 독점, 갈등 양상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difference)와 '공존'(coexistence)의 상호 이해 속에서 정의해볼 수 있다.

## 나.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정의

- 문화다양성이 국제적인 의제로 부각된 것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제논리로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화주권, 문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문화가 자유무역의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문화다양성이 한국에서는 2010년에 국회에서 비

## 제1장 서론

준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세계 문화 발전 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이 채택된 것을 기점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을 발표했다.

## 〈문화다양성 선언〉

- 문화는 “사회나 어떤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들의 집합” 이다.
- 문화는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생활양식들, 함께 사는 방식들, 가치 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괄” 한다.
-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각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하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 ‘문화다양성’ 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네스코의 논의에서 문화다양성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보고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검토 및 전략, 1946~2000』은 문화다양성 개념이 네 가지 국면을 거쳐 발전해 왔다고 분석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 네 가지

## 제1장 서론

국면은 단계별로 확연히 구분된다기보다는 문화다양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가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국가가 단일한 문화적 실체로 간주되던 국면이다. 문화의 개념은 전통문화와 창작예술의 범주에 한정되었고, 국가 사이의 경계인 국경이 문화를 구분 짓는 경계로 받아들여졌다.
- 두 번째 국면은 탈 식민이 본격화되면서 강대국의 지배와 이념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문화는 ‘정체성’ 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신국제정보질서(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NIIO)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 세 번째 국면은 문화의 개념이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95년 유네스코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제출한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서 이러한 관점이 제출되었다.
- 마지막 네 번째 국면은 문화의 개념이 민주주의와 연계된 시기로,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의 증진과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 유네스코의 주요 문서들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정의에서 이와 같은 개념의 발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제1조 문화다양성: 인류 공동의 유산

-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써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2) 니나 오불젠(Nina Obuljen),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111

## 제1장 서론

한다.

—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다원주의로

- 점점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 및 집단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 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sup>3)</sup>.

- 이 선언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은 문화의 개념이 발전과 연계되는 세 번째 국면의 인식을 적극 반영한 정의로, 집단뿐 아니라 개인과 시민사회를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회적 결속과 조화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sup>4)</sup>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sup>5)</sup>.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목적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긍정적이고 글로벌 문화의 대안으로 본다(이동연, 2013). 문화다양성은 흔히 각기 이질적이고 고유한 문화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또

3)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2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p.284~285.

4) 이 협약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장의 구성은 1장, 문화다양성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2장, 문화다양성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3장 문화다양성 정의(Definition), 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5장 문화다양성이 다른 수단들과 맺는 관계(Relationship to other instruments), 6장, 문화다양성의 협약 기관들(Organs of the Convention), 7장 결어(Final clauses)와 부칙-조정절차(Annex- Conciliation Procedures)로 되어 있다.

5)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 1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296.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문은 이 책에 수록된 협약문을 인용함.

## 제1장 서론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집단이 가진 문화 내에 존재하는 ‘문화 내적 다양성’이다. 다시 말해 문화다양성은 ‘문화 내’ 다양성이기도 하다(조옥라 외, 2013).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국가 간 문화적 보호주의와 문화적 격차의 해소를 주된 정책과제를 삼는다는 점에서 한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문화다양성의 구성과 추구의 관점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실천은 유네스코 협약을 기본 가치로 간주하되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 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범주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정책 대상은 주로 다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의 본래 정신과 그 개념이 원래 추구하려는 것은 다문화로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다문화는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영역 중의 하나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은 차이와 모순을 모두 포괄하며, 문화의 영역에서 중심과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주로 국가 간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족이나 언어, 관습의 차이를 중시하고 또 국가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문화다양성은 국적과 종족의 다양성 뿐 아니라 개인들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성 요소들과 문화와 예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이동연 외(2013)의 연구보고서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에서도 문화다양성은 국가, 종족, 인종, 이주와 관련된 사회문화형성의 영역, 성차, 연령, 성적체성 등과 같은 문화정체성 영역, 하위문화, 독립문화, 비주류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영역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문화다양성 개념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다양한 차이들의 갈등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수준보다 더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조옥라 외(2013)의 연구보고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수립 방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로 한정되지 않는 문화다양성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는 다양한 비주류와 소수자가

## 제1장 서론

존재하고, 주류문화에서도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주된 존재양식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범주의 존재양식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발생하는 범주로 젠더, 세대, 지역, 이주자(이민자), 계층, 다양한 소수자 등을 제안하였다.

〈표 1-2〉 문화다양성 범주<sup>6)</sup>

구분	내용
젠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의 가치관에 의하여 여성과 남성들에게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의 가치와 위치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여러 영역에서 다른 행동, 사고,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적 차별화가 진행되어 나타났음</li> <li>○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가치, 사고, 행동이 낮게 평가되고 지위에서도 차별을 받아 고위직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li> </ul>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는 대체로 10년을 단위로 세대를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2012년 그리고 이전의 각종 선거가 보여주듯이 세대에 따라 정당의 지지 경향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대에 따라 경험과 환경이 크게 다르며, 다른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가치, 사고, 취향, 행동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li> </ul>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지역색이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직장생활이나 업무네트워크에서도 지역색이 작동하여 출신에 따라 네트워크가 상당히 자기 출신 지역으로 편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li> <li>○ 한국에서 지역적으로 방언의 차이와 약간의 관습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이지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색은 문화보다는 출신과 네트워크를 통한 차별화에 더 의존하고 있어 지역색을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움</li> <li>○ 지역색보다는 도시와 농촌 또는 농촌에 유지되는 전통과 서구화된 도시의 차이가 더 큰 지역적 문화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역과 관련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도시와 농촌, 현대문화와 전통문화의 차이와 이들의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li> </ul>
이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으로의 이주자들은 국제결혼이주자, 화이트칼라 외국인, 블루칼라 외국인(노동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특수한 조건을 지닌 조선족 이민자,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외국인관광객(일시적 이주자)으로 분류할 수 있음</li> <li>○ 이들 집단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며 또한 한국에서 처한 상황도 다르고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다름</li> </ul>
취약계층과 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에서의 주요한 소수자들은 장애인, 동성애자, 비주류 예술가 등을 들 수 있음</li> </ul>

6) 출처: 조옥라 외(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수립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제1장 서론

- 본 연구에서도 앞서 서술한 연구들과 같은 문제제기 하에 한국에서 기존에 협의된 문화다양성 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당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조사와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19가지 차별금지조항을 참고로 하여, 문화다양성 연구를 진행할 주제 영역을 선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법<sup>7)</sup> 제2조 3항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0호, 2014.3.1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89&efYd=20140318#0000>)

## 제1장 서론

## 2.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도 현황 분석

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sup>8)</sup>

## □ 제정 이유

-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이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주요 내용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 제1장 서론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제2조).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둔다(제7조).
-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한다(제10조).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

8)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322&efYd=20141129#0000>)

## 제1장 서론

## 나.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14년 4월 8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환경변화와 최근 이슈를 고려하여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향후 3년 동안 중점 추진한다. 7대 과제 내에 문화다양성 또는 그에 준하는 방송·언론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
  - 7대 과제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방송 서비스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
-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다문화(문화다양성) 정책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펴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고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관점에 기반을 둔 문화기반 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방송, 미디어, 국민소통(홍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활용한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 및 홍보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 제1장 서론

-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여 창의성을 고양하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여 이문화(異文化)간 공존과 상생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한국예술종합학교, 2012)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언론 및 방송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긍정과 부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 요구하여 대국민 인식제고와 실효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방송 영상 제작자를 위한 미디어 속 다문화 모니터링’ 연구로 미디어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관련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과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장 서론

## 3. 국내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 가. 국내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현황

- 국내에서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에 대한 연구들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미디어의 등장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지만, 미디어 재현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이종열, 2013).
- 2000년대 초반 국내 방송에서 불법이주노동자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피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 볼 수 있으나 이 시기의 소재는 주로 앞서 말한 사회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인종, 보다 다양한 문화 소재가 여러 장르의 정규프로그램에 등장하였으나, 이 시기의 문화다양성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정형화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자국방송 서비스는 물론 이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생산되고, 아시아 국가에서 제작된 방송을 그대로 들여와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방송 및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 및 해외수출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콘텐츠의 긍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게 되었다(이종열, 2013).

〈표 2-1〉 국내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현황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분석내용
김세은, 김수아 (2008) 한건수 (2003)	외국인 노동자	미디어 보도내용 분석	미디어의 재현방식에 의해 외국노동자들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모습으로 강조되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스테레오 타입화(낙인집단화)
이남미, 이근모 (2007)	혼혈인	미디어 보도내용 분석	하인즈 워드가 한국 내 혼혈인의 문제제기를 통해 인식재고와 재평가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시사

## 제1장 서론

정의철 이창호 (2007)	혼혈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분석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집단적 인식과 해석의 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
백선거, 황우섭 (2009)	외국인	〈미녀들의 수다〉 내용 분석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을 파악
김경희 (2009)	이주민	2000년-2008년까지 MBCSBS-YTN의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 분석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자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노동자가 훨씬 많이 거주하는 등 미디어 재현과 현실과의 차이 확인
백선거, 황우섭 (2009)	일정 기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5편	프로그램의 포맷, 내용, 주요 요소들에 대한 미구조 분석	다문화성을 표출하는 외부의 이면에서는 국가, 문화 및 인종 간의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
김예란, 유단바, 김지윤 (2008)	2000년대 이래 외국인이 출연한 다문화적 TV드라마 7편	텍스트 분석(재현되는 방식과 사회문화적 함의 해석)	초국적 사랑 내러티브, 초국적 자본주의의 담론이라는 중첩성과 동시에 한국적남성주의적 성격 도출
이경숙 (2008)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드라마(SBS의 '황금신부', KBS의 '미우나 고우나') 속에서 등장하는 다문화 가족관계 분석	이주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미흡함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묘사
홍지아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분석	젠더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치의 실천자, 한국인이 베푸는 시혜정책의 수혜자라는 제한된 이미지로 미디어 재현
이종열 (2013)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방송프로그램(뉴스나 시사 프로그램)과 언론(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다문화예산	방송에서는 외국인의 모습은 여전히 정형화되어있고, 언론은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였지만 다문화의 현실을 균형 잡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국	뉴스보도 분석	

## 제1장 서론

	제결혼 이주여성)		
임양준 (2012)	외국인 노동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 향신문, 한겨레신문, 경 인일보, 부산일보 기사 분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경향과 인식 분석
이재승, 박경숙 (2013)	다문화	지역 텔레비전인 지상 파방송(KBS제주, 제주 MBC, JIBS)과 케이블 방송(KCTV JEJU)의 다 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 의 형식과 내용적 특성, 보도방향, 취재원 분석	지역 텔레비전에서 보도하는 다문화관련 뉴 스에서 프레임과 보도방향, 취재원 등에서 방송시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따라서 시 청자들이 어떠한 방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은 서로 다르게 형 성될 수 있음을 확인
장민정 (2014)	다문화가정	휴먼 <다문화 고부열전> EBS 다큐멘터리 분석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다문화 주체들을 표상하는 방식과 미 디어가 제시하는 다문화 가치파악

□ 한편, 그나마 문화다양성에 대한 방송 가이드로는 최근에 한국종합예술학교(2012)에서 수행한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는 구체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KBS는 방송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북한보도, 자살보도, 장애인 권리보장, 음식홍보 등 세부 영역에 걸쳐 안내서를 만들었다. 1998년에 마련된 첫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과다한 연출이나 인위적인 조작 지양", "불가피한 인위적 연출일 경우 자막 표시" 등 23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 중에서는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했는데, "균형 잡힌 관점, 북한주민 이익고려, 언론사간 과다경쟁 회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성 표현에서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성관계 표현에 대한 프로그램 예고 금지" 등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2010년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주되게 설명되고 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고 골이 깊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 노인, 장애인

## 제1장 서론

등 수적인 다소(多少)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소수계층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이단시하는 편견을 갖기 쉽다...(중략)...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불법체류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이나 편견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재미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적응과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3~25쪽)고 명시되어 있다.

## - (1) 방송심의규정

- 방송심의규정에도 인종적 차별 금지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신중한 접근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존재한다.
-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방송심의규정 제9조 5항)"
-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방송심의규정 제21조 2항)

## - (2)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은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를 발견했다.

- 혼혈인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키자는 순혈주의
- 중동 등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 특정 국가 출신 및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비하·차별적인 편견 조장

〈표 2-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sup>9)</sup>

유형	내용
인종적 우월성 (순혈주의)	○ 순혈주의 관점에서 혼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비난성 주장 ○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인식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로 구체화될 우려

9) 한국종합예술학교(2012)에서 수행한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p. 179.

## 제1장 서론

위험적 존재로서 외국인에 대한 중요감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테러리즘과 관련된 위험대상으로 묘사하며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는 표현</li> <li>○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며, 범죄자나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li> <li>○ 외국인을 '우리' 와 다른 위험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불법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li> </ul>
인종을 근거로 외국인 비하 또는 희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빈곤 현상을 이미지화하여 비하하거나 희화화</li> <li>○ 아직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li> <li>○ 특정 국가 출신 또는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비하하고,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는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하여 외국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고착화시킬 우려</li> </ul>
인종차별의 정당화 또는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체류 외국인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조장</li> <li>○ 특정 이슬람 국가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과 국내 체류 화교에 대한 테러를 가해야 한다는 선동적 문구</li> </ul>

## - (3) 다문화 차별 판단근거

방송·영화 등 미디어의 문화다양성 저해 표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방송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법률과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표 2-3〉 다문화 차별관련 법률 및 인권관련 국제 조약<sup>10)</sup>

유형	내용
「헌법」 제6조 및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li> <li>○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li> </ul>
「재한외국인처우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10) 한국종합예술학교(2012)에서 수행한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p. 180-181.

## 제1장 서론

기본법	<p>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li> <li>○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li>○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li> </ul>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제5조 제1호 및 제8조 제3호 바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국제평화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 집단학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li> <li>○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li> </ul>

## 나. 한국종합예술학교(2012)의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안내서 제작을 목적으로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 모니터링을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광고로 6개 영역으로 한정해서 진행하였다. 다문화 미디어의 재현분야별로 모니터링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제1장 서론

〈그림 2-1〉 다문화 미디어 재현분야별 모니터링 개요

분야	프로그램 예시	주 모니터링 내용
대중음악	연영석, 스타크래크다운, 유지철 〈빨레〉, 〈아리랑 판타지〉	다문화를 다룬 기사에서 다문화에 대한 표현의 상태, 다문화 소속 멤버들의 활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영화	〈파이란〉, 〈방가방가〉, 〈완득이〉, 〈파파〉, 〈무산일기〉 등	영화의 주제, 영화 속 대사, 영화 속 의상 및 문화적 재현 분석
TV	드라마 〈하노이신부〉, 〈깜군이 엄마〉, 〈황금물고기〉, 〈미우나고우나〉, 〈오작교 형제들〉, 〈산남여 남촌에는〉 등	드라마의 주제, 드라마 다문화 인물의 재현 유형, 드라마 다문화 관련 대사 및 재현 내용 분석
	교양 〈러브 인 아시아〉 등	프로그램 취지와 방송 내용의 상관성, 다문화 국가를 다루는 취재방식과 표현 방식 분석
	오락 〈미수다〉, 〈세 바퀴〉 등	프로그램 출연진, 다문화출연자의 역할, 대화의 맥락에 대한 분석
광고	〈하나금융 당산차림〉, 〈LG 사랑해요 LG〉, 〈NH농협〉 등	제품광고와 다문화와 상관관계, 다문화 인물과 문화를 다루는 방식 분석

- 이 연구의 모니터링의 분석 방향은 1) 드라마와 TV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회 수가 많아 전수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부분 모니터링을 하되, 대중음악, 영화, 광고는 다문화를 다룬 모든 작품을 전수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2) 연구원별로 특정한 장르를 선정해서 분석하되, 분석의 표준 모델 안을 작성하여 공통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도록 단순하게 구성하며, 2) 정량적 통계보다는 분석 대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방송 재현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하고, 3)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의미 분석과 해석을 병행하여 긍정적인 사례 강화를 포함해 객관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5) 모니터링의 분석방향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표현을 결론으로 삼지 말고, 특정한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어떤 시각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맥락주의적<sup>11)</sup>, 구성주의적 접근<sup>12)</sup>을

11)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의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는 맥락주의(contextualism) 관점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된 특정한 장면에 대한 가치판단에 앞서 그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맥락주의는 미디어에 재현된 표층적인 내용만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미디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2차화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놓인 환경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재현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12) 미디어의 재현은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감조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재현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디어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의 재현에 대해 느끼는 관점이

## 제1장 서론

시도하였다.

- 이 연구에서 미디어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모델로 제시한 양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미디어 모니터링 분석양식 예시

개요	제목	
	제작사	
	출연진	
	발표일자	
작품 요약		
장면 제시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해석	장면 1	
	장면 2	
	장면 3	
종합 의견		

- 이 연구에서 다뤄진 것처럼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점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제시되면 제작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이드에서는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이 어떤 유형으로

다양하다. 이른바 미디어 '구성주의'(constructualism)는 미디어에 재현의 장면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해석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복합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재현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미디어 구성주의의 중요한 관점이다.

## 제1장 서론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 각 분류 항목별로 어떤 세부 재현 내용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를 표로 설명하고 있다.

- 먼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시 유형은 크게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유형에는 다시 '공감', '소통', '평등', '갈등해소', '공존'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각각의 범주들은 역사, 문화, 종교, 인종, 관습 등의 토픽으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유형은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몰이해'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범주도 '계급', '성', '인종' 등의 토픽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1〉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 긍정적 유형

유형	세부영역	사례예시
공감	역사적 이해	다문화 내 다양한 국가별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다문화 국가들의 역사적 특성(인종, 종족, 지리), 다문화 국가들의 역사적 갈등(전쟁, 영토, 종족 분쟁)
	문화적 관습 이해	다문화 내 국가별 문화적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다문화 국가의 고유한 음식 습관 ○ 다문화 국가의 고유한 대화 습관 등
	종교적 행동 이해	다문화 내 국가들 별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동남아시아 국가 내 종교적 차이의 공감 ○ 종교로 인해 금하는 음식과 일상의 습관에 대한 공감
소통	인격적 소통	다문화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 인권의 보편적 주체로서의 다문화 구성원과의 소통
	언어적 소통	다문화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를 잘 고려하고 있는가? ○ 일상에서 다문화구성원과의 언어적 소통 ○ 관계와 소통으로써의 언어에 대한 고려
평등	인종적 평등	다문화 구성원의 인종(종족)에 대해서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차별이 아닌 다름과 차이로서의 인종의 재현
	젠더적 평등	젠더의 관점에서 다문화 구성원을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결혼 이주여성의 여성적 위치에 대한 평등한 인식
	계급적 평등	다문화 주체의 계급에 대해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계급적 차별에 대한 고려 ○ 제1세계와 제3세대 외국인에 대한 계급적 편견의 고려

## 제1장 서론

갈등해소	가족 갈등 해소	다문화 구성원과의 가족적 갈등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소하려하는가? ○ 다문화 가정 내 식구들의 갈등해소 ○ 친척과 이웃 가족들 간의 갈등해소
	문화적 갈등 해소	○ 다문화 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갈등해소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 언어, 관습,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해소
	인종적 갈등 해소	다문화 내 구성원들의 인종적인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피부색,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해소 의지
공존	사회구성원 공존	다문화 구성원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진실 된가? ○ 타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공존에 대한 충분한 인식
	문화적 차이 공존	다문화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인식하는가? ○ 모순이 아니라 차이로서의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공존 의식

〈표 3-2〉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 부정적 유형

유형	세부영역	사례예시
차별	인종적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인종, 국적 때문에 차별 ○ 다른 피부색으로 특정 개인을 혐오, ○ 특정한 지역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차별
	성별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성별로 인해 차별 ○ 베트남, 조선족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성 차별 발언
	계급적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노동과 계급 때문에 차별 ○ 3D 업종에 종사하는 수준 낮은 노동자로 차별 ○ 가난하고 못하는 열등한 인간으로 묘사
왜곡	역사적 왜곡	다문화 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실을 왜곡 ○ 그 나라는 원래 못살았다, 문화도 역사도 없다는 왜곡 ○ 베트남은 처음부터 중국이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왜곡
	정치적 왜곡	다문화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왜곡 ○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왜곡 ○ 베트남은 독재 국가이다
	문화적 왜곡	다문화 국가들의 원 문화에 대한 왜곡 ○ 조선족 문화는 없다 ○ 캄보디아 문화는 후진적이다
편견	문화적 편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국가들의 문화는 열등하다</li> <li>○ 몽골은 모두 게르에서만 산다</li> </ul>
	종교적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편견</li> <li>○ 라마교는 미신이다</li> <li>○ 이슬람교는 야만적이다</li> </ul>
	국가적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다문화 국가들에 대한 편견</li> <li>○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은 모두 학력이 없다</li> <li>○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다</li> </ul>
비하	신체적 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들의 특정한 신체를 비하</li> <li>○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작고 말랐다</li> </ul>
	성적 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신체를 이용해서 비하</li> <li>○ 결혼이주여성들은 매력이 없다</li> </ul>
	경제적 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비하</li> <li>○ 이주노동자들을 돈만 벌러 오는 사람들로 취급</li> </ul>
몰이해	역사적 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과 국가들에 대한 몰이해</li> <li>○ 태국과 미얀마는 같은 역사에 나왔다</li> </ul>
	문화적 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몰이해</li> <li>○ 파키스탄들은 야만인이어서 손으로 밥을 먹는다</li> </ul>
	종교적 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구성원들의 종교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li> <li>○ 이슬람 국가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여성을 모두 차별한다</li> </ul>

-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안내서 제작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범위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국한하여 문화다양성 개념 중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 또한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뉴스와 인터넷 기사 등의 언론 기사를 다룰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이 미디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뉴스와 언론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 기사 모두를 미디어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한다.

## 제1장 서론

## 다. 국가인권위원회(2010)의 『(2010 방송모니터링 보고서)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

- 이 연구는 방송광고, 뉴스, 연예오락프로그램 등의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특히 미디어 제작자들이 재구성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고정관념, 성차별, 성폭력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다양한 여성과 남성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 이 연구에서 TV광고 모니터링 한 방법으로 광고 속의 젠더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성별 고정관념지수**다. 개발자인 김광옥(2005)<sup>13)</sup>은 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의 특성과 배경 요인을 고정관념 지수로 구성하였다. 이는 모델의 나이, 메시지 제시형식<sup>14)</sup>, 광고의 배경, 등장인물의 역할(혹은 직업), 설득방식, 모델의 신뢰도, 상품종류, 성적 매력 표현 등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모니터링에서는 인상비평은 최소화한 채, 8가지 요소에 대한 고정관념 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 성별 고정관념 지수는 전통적 가부장주의나 성차별주의에 기초한 내용은 +1, 고정관념에 반하는 내용은 -1로 측정해 이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양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높게 반영된 것이며, 음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낮게 반영된 바람직한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는 TV광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된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표 4-1〉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방송광고)

1. 고유번호 : 분류를 위한 단순 넘버링, 가능하면 방영 순으로 정리,  
동일광고의 주인공이 여럿일 경우 광고번호를 동일하게 기입  
동일광고가 2회 이상 나오면 동일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K열(동성에 호감도)  
까지만 기입
2. 채널명 : 1,KBS2 2,MBC 3,SBS

13) Kim, K(2005). Developing a Stereotype Index of gender role stereotypes in television advertising(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UMI No.3204658).

14) 보이소버(VOICE-OVER)는 연기자나 해설자 등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사나 해설 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VO라고 줄여 표시하기도 한다.

## 제1장 서론

3. 회사명 : <TV CF 흥피> 기준으로 통일, 모두 한글로 명기(예: 'KT' 아니고 '케이티' )
4. 30대그룹 : 1.포함 2.비포함 (최종 코딩지 30대기업 계열사에서 찾기 기능으로 체크)
5. 제품명 : <TV CF 흥피> 기준으로 통일, 모두 한글로 명기
6. 품목 : 번호로 기입  
 1. 기업 이미지(품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통합적 기업이미지 광고인 경우)  
 2. 자동차/연료/오일/기계  
 3. 금융/보험  
 4. 가전제품/가구  
 5. 아파트/부동산  
 6. 세제/식품  
 7. 화장품/신체위생품  
 8. 육아 및 교육용품(완구, 학습지)  
 9. 주류  
 10. 통신(초고속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11. 의류/약품  
 12. 유통/백화점(할인매장)  
 13. 스포츠용품(레저용품)/놀이공원/문화상품(영화, 공연물, 출판)  
 14. 기타
7. 개요 : 주관식 기입, 동일광고 일관성 중요  
 인물, 색, 카피 혹은 키워드, 간단 스토리(8자~20자 이내) 등 추후 판별에 초점
8. 가족유형 : 1.한부모, 조손, 동성, 1인 가족 등 2.핵가족 혹은 대가족 3.알 수 없음
9. 동성애 코드 : 1.있다 0.없다
10. 동성애 호감도 : 9번의 답이 '없다' 인 경우에는 체크 안함  
 '있다' 인 경우 1.긍정 2.부정 3.기타
11. 추천 : 1.성평등(베스트) 2.성차별(위스트) 0. 기타
12. 비교 : 기타 판단이 어렵거나 갈등스러운 지점, 기타 함께 생각해볼 거리 정리
13. 성별 : 1.여성 2.남성
- \*\*\* 고정관념지수는 주인공 여성이나 남성을 중심으로 코딩함  
 (주인공 비중이 유사한 경우 1편의 광고에서 2명까지 코딩 가능)

## 제1장 서론

〈표 4-2〉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뉴스)

1. 방송사 : ① MBC ② KBS1 ③ SBS
2. 프로그램 명 :
3. 방송날짜 :
4. 남녀 앵커의 외모 분석  
 4-1 남성 앵커의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4-2 여성 앵커의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4-3 남성 앵커의 외모 : ① 소박하다 ② 보통이다 ③ 화려하다  
 4-4 여성 앵커의 외모 : ① 소박하다 ② 보통이다 ③ 화려하다
5. 남녀 앵커의 역할 분석  
 5-1 오프닝 멘트 : ① 여성앵커 ② 남성앵커 ③ 둘 모두 함 ④ 하지 않음  
 5-2 클로징 멘트 : ① 여성앵커 ② 남성앵커 ③ 둘 모두 함 ④ 하지 않음
6. 뉴스 아이템 분석  
 6-1 아이템 제목 :  
 6-2 아이템 내용 (자세히 기술해 줄 것) :  
 6-3 아이템 주제 : ① 정치 ② 경제 ③ 과학 ④ 사회 ⑤ 문화 ⑥ 생활정보 ⑦ 기타  
 6-4 아이템 소재 : ① 여성관련 뉴스 ② 남성관련 뉴스 ③ 기타  
 6-5 아이템 시의성 : ① 중심 뉴스 ② 주변 뉴스  
 6-6 아이템 관점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③ 기타  
 6-7 소개 : ① 여성앵커 ② 남성앵커 ③ 둘 모두 함  
 6-8 취재 기자 성별 : ① 여성기자 ② 남성기자 ③ 없음(단신보도의 경우)  
 6-9 인터뷰 대상자 1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6-10 인터뷰 대상자 1 직업 : ① 전문직 ②회사원 ③자영업 ④ 주부 ⑤학생 ⑥무직  
 ⑦ 알 수 없음  
 6-11 인터뷰 대상자 발언 내용 :  
 ① 주제나 사건에 대해 분석,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제시  
 ② 피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③ 피의자(가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④ 주제/사건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  
 ⑤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니면서 시민이나 구경꾼보다 주제/사건에 근접해있는 제3의 관계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⑥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⑦ 기타 \_\_\_\_\_
- 6-12 초점 보도 대상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6-13 초점 보도 대상 1 직업 : ① 전문직 ②회사원 ③자영업 ④ 주부 ⑤학생  
 ⑥무직 ⑦ 알 수 없음 ⑧ 기타  
 6-14 초점 보도 대상 1 주제 (발언 내용 or 초점 보도 대상자가 있는 장소 등)

## 제1장 서론

① 정치 ② 경제 ③ 과학 ④ 사회 ⑤ 문화 ⑥ 생활정보 ⑦ 기타

7. 뉴스 내용의 성 차별성 : 뉴스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화면이 있을 경우 복수 체크

- ①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 ②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여성의 행동/옷차림 탓으로 돌림, 선정적으로 보도
- ③ 여성에 대한 적대감 표출
- ④ 모성 이데올로기/현모양처 이데올로기 강조  
[육아문제, 아이의 학교성적/행동문제를 부모 공동책임으로 보지 않음, 가족을 위한 여자의 희생 을 당연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
- ⑤ 가사노동 평가절하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주부책임으로 돌림, 가정주부는 놀고먹는다는 식으로 묘사, 가 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인식]
- ⑥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왜곡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절하, 취업주부의 이중노동을 당연시함으로써 수퍼우먼 상 조장, 여성취업의 구조적 장애에 소홀하며 여성의 직업의식능력부족만 탓함, 근로여성의 산 업재해, 모성보호 등에 대한 관심 부족]
- ⑦ 전통적인 여성성/남성성 조장, 성차를 후천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해석
- ⑧ 현대적, 진보적 여성을 부정적으로 해석
- ⑨ 여성운동,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 ⑩ 설문조사결과, 통계자료해석 및 보도에서 성평등시각 부족
- ⑪ 성차별적 언어 사용
- ⑫ 여성신체의 과다하며 불필요한 노출
- ⑬ 다리/가슴 등 신체일부를 클로즈업, 빠른 팬(카메라의 수직적 움직임)이나 줌(연속적으로 렌즈의 초점거리를 바꿈, 카메라가 한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줌), 불필요한 앙각 (카메라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봄)이나 부각(카메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봄) 을 사용하여 여성의 몸을 비추는 카메라 움직임
- ⑭ 영상자료의 내용이 보도 내용과 관련 없이 선정성을 겨냥
- ⑮ 기타 \_\_\_\_\_

8. 뉴스 내용의 성적 소수자의 폄하

- ① 동성애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
- ② 이들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언어 사용

9. 위의 7번 또는 8번에 체크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 한편, 이 연구에서 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모니터 요원 6명이 두 명씩 짝을 이뤄 같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고 각 항목에 대해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이 모니터링은 성별 고정관념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자 및 출연자의

## 제1장 서론

성비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성인지적관점의 방송 심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성차별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그 외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기준에 포함시켜 문제내용의 방영 여부를 살펴보았다.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성인지적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라인’ 은 200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방송프로그램내 의 성희롱/성폭력 등을 포함한 성차별과 관련된 11개 항목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스위트 참조).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외모지상주의 조장과 외모비하 항목, 언어차별 항목,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관계 등 비슷한 항목을 묶어 8개의 항목으로 하였다.

〈표 4-3〉 성별 고정관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오락프로그램)

\* 번호 : 몇 개의 프로그램을 했는지 보기 위해 프로그램 하나당 고유 번호로 기입  
예) 세바퀴 1번, 일요일 일요일 밤에 2번 등등

1. 방송사 : ① MBC ② KBS2 ③ SBS
2. 방송날짜 :
3. 프로그램 명 :
4. 꼭지명 :
5. 방송내용 : 방송내용에는 진행자 이름과 출연자 이름도 함께 기입
6. 총 진행자 \_\_\_\_\_명  
6-1 여성진행자 \_\_\_\_\_명  
6-2 남성진행자 \_\_\_\_\_명
7. 진행자를 제외한 총 출연자 \_\_\_\_\_명  
7-1. 여성 출연자 \_\_\_\_\_명  
7-2. 남성 출연자 \_\_\_\_\_명
8. 성차별적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화면이 있을 경우 복수 체크)  
①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② 방송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는가  
③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제1장 서론

- ④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⑤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이를 묘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가  
 ⑥ 방송은 프로그램내에서 출연자 및 시청자를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⑦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⑧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가  
 ⑨ 방송진행자나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특정 계층, 인종, 성별,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⑩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⑪ 방송은 동성애 등 성적소수자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이들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⑫ 기타

## 9. 성차별적 내용의 이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사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

프로그램 내에 남녀 진행자가 있는 경우 인상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중 누가 더 비중 있는지를 기술

라. 국내 양성평등 심의 규정<sup>5)</sup>

□ 우리나라 여성 제도에서 미디어 부문에 대한 관심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의 여성 부문 미디어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 제도를 확대하는 등 성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던 계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개발원과 여성민우회 등은 좀 더 세부적이고 활용 가능한 성 평등한 모니터링 도구와 기준들을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를 방송위원회의 성 평등과 관련한 심의 규정,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에서 제시하는 심의규정을 통해 검토하였다.

## □ 방송위원회의 성 평등 관련 심의 규정

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2013년 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분석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

## 제1장 서론

- 아래 표는 새로 마련된 양성평등 조항 외에 기존 심의규정 가운데 성 평등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한 내용이다.

〈표 5-1〉 방송위원회 성 평등 관련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29조(양성평등)	방송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 합리화,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제34조(성 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 된다.
제52조(방송 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북

- 방송위원회의 포괄적이고 다소 애매한 성차별 규정과는 별도로 여성가족부는 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북을 개발해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세부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성 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고정관념의 탈피, 다양성의 추구, 현실의 정확한 전달과 대안의 제시, 성차별적 언어 및 여성에 대한 폭력성의 탈피로 나누어진다.

〈표5-2〉 여성가족부 방송심의용 가이드북

고정관념의 탈피	미디어에서 여성과 남성의 묘사는 그들의 실제 사회적, 직업적 성취와 공헌, 관심과 활동에 필적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다양성의 추구	여성과 남성의 시각과 가치관 차이, 또한 동일한 성안에서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 그리고 모습을 제시해주는 것이 텔레비전의 책임이다.
현실의 정확한 전달과 대안의 제시	드라마에서는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남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그러한 대안적인 남녀관계가 가능하다고 설득시킬 수 있다. 또한,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도하고 여성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보내서 여성의 사회활동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인터뷰 및 초점 보도 대상에 더욱 많은 여성을 채택하고 많은

## 제1장 서론

	여성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차별적 언어 및 여성에 대한 폭력성의 탈피	“여자가...”, “여자 주제에...”, “여편네”, “암탉이 울면...” 등의 적나라한 성차별적 표현을 삼가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성을 밝힐 필요가 없는 데에 “여류 ○○○”, “여성 ○○○” 같이 성을 지시하는 말 대신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여성 개개인을 고유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표현이 필요하다.

-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오락과 보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심의 원칙과 조항 및 사례를 명시하였다. 여기서 오락 프로그램이란 뉴스나 뉴스쇼,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오락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주로 드라마, 시트콤, 토크쇼, 게임쇼, 버라이어티쇼, 코미디 등을 들 수 있다.

〈표5-3〉 오락 프로그램을 위한 심의 가이드북

가부장 중심성, 남존여비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존여비: 여성이 감히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는 태도</li> <li>○ 여성 비하적 행동: 여성에게 반말을 쓰거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겐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li> <li>○ 불평등한 남녀관계: 불평등한 부부관계 묘사, 남녀 진행자 사이에 불평등한 언어사용, 이혼한 여성이나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결혼 부적격자로 표현하는 경우</li> <li>○ 가사노동의 평가절하: 전업주부를 무위도식자로 표현하거나 가사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규정하는 경우</li> </ul>
전통적 여성성, 남성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을 청녀와 성녀로 이분화하거나, 이상적 여성상을 전통적 역할에 한정하거나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경우</li> <li>○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표현: 결혼이나 연애를 통한 여성의 신분상승 환상을 부추기는 표현</li> <li>○ 아름다움을 여성성의 절대조건으로 간주: 여성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결격사유 취급</li> <li>○ 여성의 미를 정형화: 여성의 미를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 젊고 날씬하고 고운 피부와 서구적 몸매 등을 여성미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li> </ul>
모성, 현모양처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성을 여성의 절대적 가치로 간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거나 자식을 포기한 여성의 경우 행보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li> </ul>
여성의 대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간주: 여성을 상대 남성의 권력이나 재력의 척도인 것처럼 표현</li> <li>○ 여성의 육체의 시각적 대상화: 여성에게 과도하게 노출된 옷을 입게</li> </ul>

## 제1장 서론

	<p>하거나 여성의 몸 일부를 클로즈업하거나 여성의 몸을 위아래로 훑는 카메라 움직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육체를 농담의 소재로 삼음</li> <li>○ 여성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비판: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여성의 신체적 결점을 강조</li> <li>○ 여성의 무기는 성적인 매력인 것으로 간주</li> <li>○ 여성의 점수화: 여성의 신체 사이즈로 여성의 가치를 매기거나 여성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는 경우</li> </ul>
성차별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언어: “여자가 볼륨이 있어야지” 처럼 여성의 기본적인 가치는 남성의 성적 욕구 충족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li> <li>○ 수동적인 것을 정상적인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언어: “무슨 여자들이 겁도 없어” 처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은 여성성에 맞지 않는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li> <li>○ 부정적인 의미로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언어: 전형적으로 열등하고 부정적 여성 이미지를 표출하는 언어</li> <li>○ 전통적인 성 역할 관을 전제로 하는 표현: “여자가 밥이나 해라”, “시집이나 가라” 등 성 역할 관에 근거하여 여성을 경시하는 표현</li> <li>○ 여성을 대상화하는 표현: 여성을 동물이나 물건에 비유하는 경우</li> <li>○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하는 표현: 여성의 신체가 아름답거나 날씬하지 못함을 빗대어 말하는 경우</li> </ul>

〈표5-4〉 보도 프로그램을 위한 심의 가이드북

가부장적 사고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가사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li> <li>○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인 시사점을 가진 사건을 보도할 때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도 여성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경우</li> </ul>
여성 몸의 대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몸의 불필요한 강조: 불필요하게 여성의 몸을 보여주거나 여성의 몸을 클로즈업하는 것, 여성의 몸에 시선을 끄는 카메라 움직임의 경우</li> </ul>
선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적인 장면: 선정적인 춤 같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장면의 경우</li> <li>○ 기사와 무관하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영상: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영상에 여성을 비추거나 특히 선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li> <li>○ 여성 관련 기사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선정적 시각: 범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필요 이상 강조하거나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 - 희생자로서의 여성을 지나치게 강조</li> </ul>

## 제1장 서론

여성의 과소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관련 주제의 기사 부족</li> <li>○ 여성 전문가의 과소 등장</li> </ul>
성차별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비하적 표현 : 여성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남성을 준거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함을 시사하거나 여성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하는 경우</li> <li>○ 여성의 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 공직을 맡은 여성이나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결혼상태 혹은 육체적, 감정적 상태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경우</li> <li>○ 전통적 성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 : 정조 관념이나 여성 희생같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미덕을 찬양하는 표현</li> </ul>

□ 이밖에 성차별 관련 미디어 환경 감시를 꾸준히 진행해온 여성민우회에서는 새 방송법의 심의규정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가이드북을 제시하였다.

□ 성 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북: 여성민우회

- 여성민우회에서 제시하는 성 평등 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북은 크게 6가지로 성 역할 왜곡(방송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는 것과 방송은 특정 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외모 차별, 성폭력·성희롱, 가족의 다양성 훼손, 성차별적 언어가 있다.

## 〈표5-5〉 여성민우회 방송심의 가이드북

성역할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li> <li>○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나 화면을 구성해서 방송해서는 안 된다.</li> <li>○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해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가사노동과 전업주부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발언이나 묘사를 해서는 안 된다.</li> <li>○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li> <li>○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갖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li> <li>○ 여성을 단순보조나 남성의 부속물처럼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프로그램 내에서 남녀 진행자 및 남녀 출연자의 역할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li> <li>○ 출연자 및 인터뷰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은 특정 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ul>

##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과 관련 없는 특정 성의 과다 노출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li> <li>○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성의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클로즈업하거나 훑어 내리는 카메라 워크를 해서는 안 된다.</li> </ul>
외모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출연자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외모를 기준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외모를 능력과 등치 시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한 프로그램 내에서 남녀 진행자를 선정할 때 연령, 외모, 역할을 평등하게 선정한다.</li> <li>○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평등한 가족관계를 묘사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ul>
성폭력,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이를 묘사할 때는 피해자의 인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li> <li>○ 출연자를 프로그램 내에서 성희롱해서는 안 된다.</li> </ul>
가족의 다양성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선택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해야 한다.</li> <li>○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li>○ 평등한 가족관계를 묘사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li> </ul>
성차별적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진행자나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는 방송에서 계층, 인종, 성별, 외모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 방송에서 출연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형사실에 대해 언급하여 이를 통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li> <li>○ 한 부모, 독신,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 성차별적 용어를 부각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li> <li>○ 특정 성을 무시하거나 비속어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li> </ul>

## 제1장 서론

## 4. 해외(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공영방송에서 문화다양성 방송 관련 정책 분석

### 가. 영국<sup>16)</sup>

#### □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 정책

- 영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총인구의 7.9%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영국은 2000년 인종 관계 개정법을 통해 예술위원회와 공공기관들이 인종 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 또한 노동인력 개발 전략(MLA Workforce Development Strategy)은 적극적인 평등조치로 훈련생제도(positive action traineeships)를 지원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방송과 영화 부문에서도 소수민족이 방송과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행하였다.

#### □ 언어 이슈와 정책들

- 영어는 영국의 공식어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웨일즈에서는 공식적으로 2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위원회의 2001년 지역이나 소수 언어에 대한 헌장(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in 2001)을 비준하였다.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맨섬에서 지정된 언어에 대한 특정 의무를 수락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비정부기관인 Bòrd na Gàidhlig를 통해 게일어를 보호하고자한다. 웨일즈 언어 위원회는 웨일즈 언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웨일즈 언어 제도를 규제한다. ‘더 나은 국가(A Better Country)(2003)’라는 전략 기획은 영어와 웨일즈어 모두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중언어 웨일즈’를 수립하였다. S4C(웨일즈 4번째 채널)은 웨일즈 언어 텔레비전 방송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얼스터-스코트어와 아일랜드어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16) 여기나오는 영국과 후추의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2008), 『다문화사회 문화적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연구』,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

## 제1장 서론

#### □ 미디어 다원주의와 콘텐츠 다양성

- 새로운 BBC 헌장 및 협정은 기업의 역할과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200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BBC의 새로운 6개 목적은 새 헌장(다음 갱신인 2016년 12월 31일이 만기)에서 수립되었다.
  - 시민과 시민 사회의 유지: 뉴스와 최신 사정을 통한 이해의 증가
  - 교육과 학습: 접근이 용이한 학습 자료를 찾아내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흥미를 자극
  - 창의력과 문화: 영국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관객간의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
  - 디지털 영국을 구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영국 시청자들을 지원
- 미디어 간의 소유권을 확장하여 미디어 다원성을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국의 방송통합 규제기구(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가 심사 권한을 갖는다. Ofcom의 결과에 따라 경쟁위원회는 입찰이 진행될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미디어 거대기업인 News International(이미 다수의 영국 신문을 소유하고 BSkyB 유료 TV의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이 BSkyB의 100% 지분을 획득하여 영국에서의 미디어 이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것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News International은 영국의 TV와 신문 수익의 절반을 장악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민주적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 후 Ofcom은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될 예정이어서 미디어 다원성을 해치지 않을지가 우려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 통신법은 Ofcom이 런던 이외의 생산 할당량을 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스코틀랜드도 스코틀랜드 문화의 보다 정확한 반영을 위해 스코틀랜드 내에서 방송과 영화의 생산과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스크린을 통해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자국의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아일랜드의 모든 상황과 문화가 영화와 텔레비전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 제1장 서론

## 나. 호주

## □ 방송 미디어의 역할

- 호주 다문화주의 실현에는 방송 미디어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파 텔레비전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가장 잘 반영한 방송사로서, 방송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려는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www.sbs.com.au 참조). SBS는 60개가 넘는 언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이는 언어 수적인 면에서 전 세계 어느 방송사보다 많다. SBS의 주요 방송에는 다국어로 제공되는 뉴스와 영어 자막이 표기된 외국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이 있다.

다. 캐나다<sup>17)</sup>

## □ 미디어 분야의 문화다양성 보도 기준과 규정마련

- 캐나다는 방송을 비롯해 미디어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의 표현을 중시하여 보도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다문화주의가 없는 '다문화사회'와 차이를 두기 위한 용어)인 캐나다는 정책과 사회 제반 시스템뿐 아니라 방송법에서도 토착 원주민과 이민자 등 소수자에 대한 표현과 공정성의 원칙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방송 분야 정책 기조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 통신 주무기관은 캐나다 방송 통신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맡고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방송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CAB)의 캐나다 방송 심의위원회(Canadian Broadcast Standard Council: CBSC)를 통해 '캐나다 민영 방송사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기준 규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윤리', '공정 묘사', '폭력', '뉴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특히 공정 묘사와 관련해 '공정 묘사 규

17) 이인희·황경아(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의 내용을 재구성

18) Codes Administered by the CBSC. <http://www.cbsc.ca/english/codes/index.php>

## 제1장 서론

정'(CAB Equitable Portrayal Code)은 기존의 성 역할 묘사 규정(Sex-Role Portrayal Code)을 확장시켜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 공정 묘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묘사가 사회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7년 11월부터 시행, 적용하고 있다. 공정 묘사 규정(CBSC)에서는 "상업적 메시지를 포함해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상태,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고착화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sup>19)</sup>.

- 만약 공정 묘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신고·접수될 경우, 캐나다 방송 심의위원회(CBSC)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신고·접수자에게 해당 방송사가 해명을 하도록 조치하고, 그 조치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는 CBSC의 심의에 회부된다. 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언론 보도와 함께 CBSC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해당 방송사는 이를 보도할 의무가 있다. 만약 방송사가 고지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도 문화다양성을 반영해 소수자와 토착 원주민 대표 등이 심판관의 30%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라. 해외의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sup>20)</sup>

## □ 일본

〈표 6-1〉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일본)

항목	내용
현황	일본에는 방송의 '다문화 표현' 관련 구체적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규정은 없음. 다만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기준, 방송가이드라인 등에서 인종, 인종 및 종교, 차별, 가정 및 결혼생활, 국제관계 등을 규정 이들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모니터링이나 심의에 한계가 있음.
구체사례	(NHK방송가이드라인2011) NHK는 방송의 기본적 자세로 인권존중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차별, 종교 등에 관해 규정 차별의 경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사회적 지위·직업이나 재산의 유무 등을 차별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규정.

19) <http://www.cbsc.ca/english/codes/sexrole.php>

20) 한국종합예술학교(2012).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재구성

##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언급하는 것도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인종이나 민족, 국가, 풍속과 습관, 언어 등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 금지</li> </ul>
	<p>(NHK국내방송기준) NHK는 인종적·민족적 편견을 갖게 하거나 국제 친선을 저해할 수 있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K국제방송기준' 에서도 각 지역의 정치체제, 민족, 종교, 풍속·습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제2장의1)고 규정</li> </ul>
	<p>(민간방송연합 방송기준) 인권과 관련해 인종차별 문제와 민족감정과 관련된 조항을 다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기준 해설서'에서는 인종과 관련해 우연한 표현이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모욕 혹은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어도 모욕 혹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li> <li>○ '해설서'에서는 외국인의 생활이나 풍습 등을 다룬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현이 외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언급</li> </ul>
평가	일본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규정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준을 준용한다고 할 수 있음

## □ 독일

〈표 6-2〉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독일)

항목	내용
현황	<p>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독일 사회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을 독일사회의 독특한 개체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지침</li> <li>○ 이주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도</li> </ul>
구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D에 가입된 지역공영방송인 WDR(서독독일방송)은 TV영화 '희망의 시간(2005년 제작)'에서는 이미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이주민의 눈으로 본 이주·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드라마로 제작</li> <li>○ '초보자를 위한 터키어'도 터키청소년과 독일청소년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각자의 눈으로 동시에 조망</li> <li>○ ARD의 일요수사드라마인 '현장(Tatort)'의 경우 NDR(북독공영방송)이 제작하는 에피소드에서 수사관역에 터키계 영화배우인 Mehmet Kurtulus가 캐스팅되어 유능한 수사관으로 등장, 터키계 수사관이 주연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상징성이 큼</li> </ul>

##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출신의 청년제작인력 양성을 위해 'Creating heroe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인력 교육 및 실전 배치</li> <li>○ 이 밖에 정기적으로 이주민들의 방송수용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용역을 맡기고 있으며 이를 방송제작과 편성에 반영</li> </ul>
평가	독일의 다문화 미디어 재현은 다문화 주체들을 재현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금지뿐 아니라 다문화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방송과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관련 미디어콘텐츠를 제작

## □ 프랑스

〈표 6-3〉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프랑스)

항목	내용
현황	<p>프랑스텔레비전의 '내부 규약(Charte de l'antenne)'은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에 관련 조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집단의 이해보다 전체 사회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핵심 원리 반영</li> </ul>
구체사례	<p>(텔레비전의 내부규약) 프랑스텔레비전의 '내부 규약(Charte de l'antenne)'은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에 관련 조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집단의 이해보다 전체 사회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핵심 원리 반영</li> <li>○ 공영방송은 모든 시민, 모든 집단이 포함되는 시청자들의 텔레비전이고, 따라서 공영방송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집단의 특수한 이해보다 공통의 이해를 우선시함을 천명.</li> <li>○ 헌법에 언급된 원칙으로서 사회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원주의</li> </ul> <p>(통합 및 다양성위원회)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텔레비전 이 사내에 '통합 및 다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이 계획에는 "프로그램", "인적자본", "윤리"의 3가지 요소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프랑스 텔레비전에 속한 채널들 각각에 설치된 "프로그램"팀이 7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편람에 의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색 등 화면에 비추어지는 외형적인 면과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의 개선, 픽션이나 논픽션에 통합 개념을 포함시키는 시도, 문화 교류의 증진도 이 플랜의 관심사항임</li> </ul> </li> <li>○ 인적자본: '인적 자본 팀'은 직원의 인종적 다양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TV 부문에 이민 후손들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li> <li>○ 윤리: 콜로키움,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원이나 외부 협력기관의 직원들을 현실에서의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홍보하고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li> </ul>

## 제1장 서론

평가	프랑스는 다문화 존중과 인종차별에 대한 헌법의 가치를 미디어 재현에서 중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표현 자유를 위한 다양한 후속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	---

## 제1장 서론

## 제3절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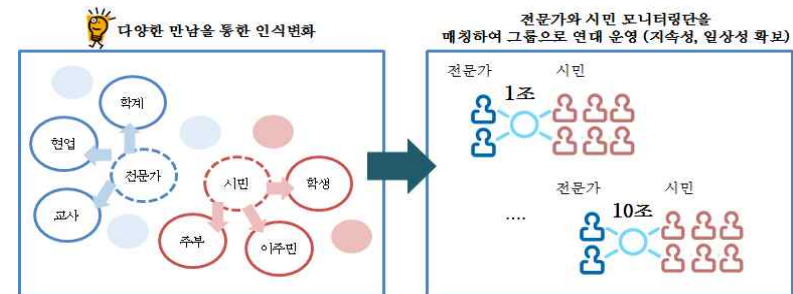
## 1. 모니터링 대상 및 규모

□ 모니터링 대상자는 총 80명으로 전문 모니터링 요원 20명과 시민 모니터링 요원 60명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을 선발하여 시각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학계 이외 현업과 학교로 확산 가능한 주체를 발굴하여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 제고
- 성, 연령, 지역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균등 안배를 통한 시각 편중 예방
-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 발굴을 통해 인식을 변화하고 전문가-시민의 연대운 영을 통한 지속성, 일상성 확보에 주안점을 둠

〈그림 4-1〉 다양한 주체발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가치



□ 본 연구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 대상자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 대상자

- 이주민, 인권관련 단체 혹은 기타 시민단체 실무진
- 다문화 · 문화다양성,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및 시민

## 제1장 서론

-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또는 다문화 · 문화다양성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대학원생
- 시민 모니터링 요원 대상자
  - 성별 제한 없음
  - 만 15세(고등학생) 이상의 일반인 누구나 지원 가능<sup>21)</sup>
  - 방송 · 언론 모니터링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자
  -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전공 대학생
  -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 혹은 시민단체 참여자(활동가) 또는 관심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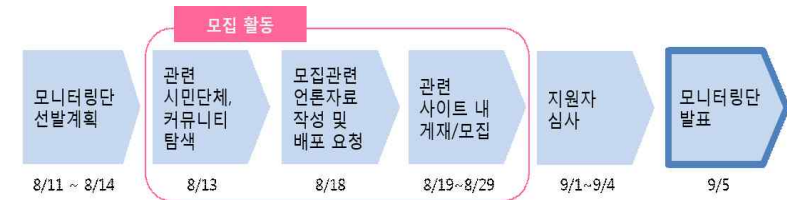
21) 방송 및 온라인 접근성, 활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적 범위에서는 청소년 이하, 60세 이상 연령층은 제외함.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은 유관단체를 통해 최소 10명을 확보함.

## 제1장 서론

## 2. 모니터링 선발 체계

□ 모니터링 요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됨

〈그림 5-1〉 모니터링단 선발 체계



□ 모니터링단 선발 계획

-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시 간이 에세이 기재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소양 검증
- 전문 모니터링단 모집 시 네트워크를 통한 추천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소양 검증

〈표 7-1〉 모니터링단 선발 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연구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li> <li>✓ 학교, 방송협회 및 단체 사이트 모집 공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시민단체 및 주부 모니터링단 사이트 모집 공고</li> <li>✓ 온라인 패널 대상 모집 공고</li> </ul>
선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및 미디어 관련 이력 및 전문성이 있는 경우</li> <li>✓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확산에 영향력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및 온라인 접근성이 있어야 함</li> <li>✓ 워크숍 참석이 가능해야 함</li> <li>✓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와 관심이 있는 자</li> </ul>



## 제1장 서론

## □ 모집 활동

-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게재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홈페이지)
- 언론기사 게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조)
- 주부 모니터링단을 통한 주부 모집
- 유관학과(신방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등) 대학교 게시판 모집안내문 게재.  
이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대학에 골고루 분배
- 이주단체를 통한 이주노동자/결혼 이주여성 추천, 이외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소수자등의 추천을 통한 모집 추진

## □ 지원자 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한 후 3점 만점으로 '다문화 경험', '문제인식', '태도', '논리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함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 3점 : 다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및 문제 인식이 뛰어난 경우
  - 2점 : 다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은 없으나 태도, 문제 인식이 좋은 경우
  - 다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은 있으나 논리력이 다소 낮은 경우
  - 1점 : 특징이 없고, 문제 인식이 낮은 경우

## □ 모니터링단 발표

- 개별 전화로 짧은 인터뷰를 하고 문화다양성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의사 및 적합성 여부를 재검증함
- 최종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 20명, 시민 모니터링 요원 60명 총 80명을 선정함

## 제1장 서론

## 〈그림 5-2〉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

## 2014년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요원 모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의견을 내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모집대상

[시민 모니터링 요원 60명]

- 1) 성별 제한 없음. 만 15세(고등학생) 이상의 일반인 누구나 지원가능
- 2) 방송·언론 모니터링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전공 대학생,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 혹은 시민단체 참여자(활동가)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우대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 20명]

- 1)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 혹은 기타 시민 단체 실무진(장, 간사 등)
- 2) 다문화·문화다양성,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및 시민
- 3)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혹은 다문화·문화다양성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대학원생

## ■ 활동기간 및 내용

1. 활동기간: 2014년 9월 27일 ~ 2014년 11월 20일

\* 해당 기간 내에 일지 작성 완료

## 2. 활동내용

- 1) 제시된 TV 프로그램(8개) 또는 언론기사(12개) 시청 및 모니터링 일지 작성
- 2) 사전 워크샵 및 발대식(9월 27일, 서울 예정) 참석
- 3) 공개 워크샵(11월 21일, 서울 예정) 참석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3. 활동혜택

- 1) 시민 모니터링: 일지당 2만원, 워크샵 참석비 3만원 지급  
전문가 모니터링: 일지당 4만원, 워크샵 참석비 3만원 지급
- 2) 워크샵 참여 시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 및 문화다양성 기본 교육 제공
- 3) 문화다양성 관련 관심 인력(전문가, 시민)과 네트워킹

## ■ 모집관련

1. 지원기간: 2014년 8월 19일 ~ 2014년 8월 29일

2. 지원방법: 담당자 이메일(e-mail)로 지원

3. 제출서류: 모니터링 지원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4. 선발과정: 1차 서류전형 / 2차 전화 인터뷰

5. 합격자 발표: 2014년 9월 5일 (금)

6. 합격자 발표 방법: 개별 핸드폰 연락

## ■ 지원서 접수 및 문의처: 모니터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시민모니터 담당자 [monitor@jnpgroup.net](mailto:monitor@jnpgroup.net)

2. 전문가모니터 담당자 [monitor\\_culture@jnpgroup.net](mailto:monitor_culture@jnpgroup.net)

## 제1장 서론

## 3. 모니터링단 특성

- 방송팀(6개), 언론팀(4개)으로 나뉘었으며 1개조에 구성인원을 다양하게 구축함으로써 모니터링 요원 자체의 시각 다양성을 확보
- 기본 구성
    - 전문가 2명 (연령대 및 경험 수준 안배)
    - 일반 6명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주부, 시니어, 특수쿼터)
  - 세부 구성
    - 일반 현황
      - 성별로는 남성 24명, 여성 5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주민 5명을 포함하여 구성됨.

〈표 8-1〉 모니터링단 특성(성별 쿼터)

직업군	방송 1	방송 2	방송 3	방송 4	방송 5	방송 6	언론 1	언론 2	언론 3	언론 4	총
남성	3	2	5	1	4	1	1	2	2	3	24
여성	5	6	3	7	4	7	7	6	6	5	56
총합계	8	8	8	8	8	8	8	8	8	8	80

〈표 8-2〉 모니터링단 특성(선주민/이주민 쿼터)

직업군	방송 1	방송 2	방송 3	방송 4	방송 5	방송 6	언론 1	언론 2	언론 3	언론 4	총
선주민	8	8	7	7	8	7	7	8	8	7	75
이주민			1	1		1	1			1	5
총합계	8	8	8	8	8	8	8	8	8	8	80

- 각 팀별로 학생, 주부, 사회인, 대학(원)생등 직업군을 고르게 구성
  - 이 외,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특수쿼터를 추가함

## 제1장 서론

〈표 8-3〉 모니터링단 특성(직업군 쿼터)

직업군	방송 1	방송 2	방송 3	방송 4	방송 5	방송 6	언론 1	언론 2	언론 3	언론 4	총
전문가	2	2	2	2	2	2	2	2	2	2	20
특수쿼터 <sup>22)</sup>	1	1	1	1	1	1	1	1		1	9
고등학생	1		1	1	1		1	1	1	1	8
주부	1	1	1	1	1	1	1	1	1	1	10
사회인	1	1	1	1	1	1	1	1	2	1	11
대학(원)생	2	3	2	2	2	3	2	2	2	2	22
총합계	8	8	8	8	8	8	8	8	8	8	80

- 세대 또한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시니어까지 세대 분포를 고르게 구성함

〈표 8-4〉 모니터링단 특성(세대 쿼터)

직업군	방송 1	방송 2	방송 3	방송 4	방송 5	방송 6	언론 1	언론 2	언론 3	언론 4	총
10대	1		1	1	1		1	1	1	1	8
20대	2	2	1	2	3	3	2	2	3	3	23
30대	3	3	3	2	2	4	3	4	3	2	29
40대	1	3	3	2	2		2		1	1	15
50대	1			1		1				1	4
60대								1			1
총합계	8	8	8	8	8	8	8	8	8	8	80

- 이 외,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sup>23)</sup>를 포함하여 지역적인 시각 편차를 최소화 하고자 함.

22) 특수쿼터 :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

23) 충청도 지역의 경우 기존에 모니터링 요원 1명을 배치하였으나, 활동을 시작할 때 불가의사를 밝혀 제외됨

## 제1장 서론

〈표 8-5〉 모니터링단 특성(지역 쿼터)

지역	방송 1	방송 2	방송 3	방송 4	방송 5	방송 6	언론 1	언론 2	언론 3	언론 4	총
서울특별시	5	7	7	3	7	5	3	5	4	5	51
경기도	2	1	1	5	1	3	2	3	2	3	23
전라도							2		1		3
경상도	1								1		2
제주도							1				1
총합계	8	8	8	8	8	8	8	8	8	8	80

## 제1장 서론

## 4. 모니터링 주제 및 분석방법, 대상 선정

- 본 모니터링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1)모니터링 주제 및 분석방법 선정 (2) 모니터링 운영 범위 선정 (3) 모니터링단 배치 및 방법을 계획함
- 모니터링 주제 및 분석방법 선정
  - 모니터링의 주제는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방향성, 활용지표, 분석방향을 고려하여 도출됨
  - 논의주제 1 : 문화다양성 범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7(혹은 21)개의 범주를 정해놓고 차별이라 정의 하고 있음. 이 부분을 참조하여 성, 장애, 연령, 지역 차별, 직업에 의한 차별의 범위와 범주를 문화다양성에 반영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 사업은 문화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가 실제로 초점을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사업은 문화관찰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함. 따라서 인권위의 범주가 중요하며 주류가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을 모니터링 할 것임
    - 단, 연구의 초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의 차별에 해당하는 범위 중 주요 부분에 초점을 두는 현재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진행될 것임
    - 2014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모니터링 세부 분야
      - (1) 세대
      - (2) 장애
      - (3) 타문화(여행, 지역)
      - (4) 타문화(이주민)
      - (5) 새터민
      - (6) 성별, 성소수자, 계층
  - 논의주제 2 : 프로그램 선정
    - 세대, 장애, 타문화(이주민) 등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배치함.
    - 단, 주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배정 시 현재 시청률이 낮은 주제 중심의

## 제1장 서론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중파 뉴스,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 등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의 포괄 여부에 대해 검토함  
- 코미디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을 소재화·희화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

- 언론의 경우,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해 언론 매체를 한정짓기보다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련 키워드를 주고 모니터링단이 주제를 직접 선정하도록 함

## - 논의주제 3 : 평가지표 및 분석 방법

- 평가지표
  - 고려사항 : 한국 사회 내에 소수자는 누락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음 예산 자체가 다문화에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음. 다문화는 문화다양성의 한 부분임 범위에 대해 더 명확해야 함을 주지하여 개념규정을 더욱 명확히 함.
  - 다양한 소수문화를 포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입장에서 5개 정도의 주제 영역을 구성함. 이에 따라 모니터링단 또한 팀 구조로 5개 영역으로 주제 영역을 나눠서 맡도록 구성하였으며, 1차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인권위원회 17개 사례를 참조해서 포함함.
- 분석 방법
  - 고려사항 : 700여개의 일지가 작성되어 해당 내용을 분석해야 하므로, 사전에 모니터링 일지에 지표를 영역으로 나누어 정량적 점수평가와 해당 지표별 긍정·부정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함. 이를 통해 분석의 용이성은 높이고 이후 결과 유형화가 가능하도록 구성.
  - 이에 따라 ‘공감/소통 → 동등/공존 → 융합/발전’의 단계별 프로세스로 문화다양성의 속성을 잡아 입체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알려주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 (참고) 자문진 구성

- 자문진은 크게 문화다양성 학계, 문화다양성 관련 실무, 방송·언론의 실무자로 구성
- 문화다양성 학계 및 실무자를 통해 연구 내용의 방향성 및 활용 지표, 분석 방향에 대한 자문을 진행
- 방송·언론의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 방송·언론의 역학 관계, 문화다양성

## 제1장 서론

미디어 재현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내용 분석에 활용

〈표 9-1〉 자문진 이력

영역	성함/직함	소속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학계	김성일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다문화지표 연구’ 참여 및 집필 (2014,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 이해’ 단행본 공동 집필 (2011) ‘문화다양성 협약과 한국영화’ 총괄 (2008, 영화진흥위원회)
	박경태 교수	성공회대학교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컨설턴트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정책’ 자문단 (2013, 문화체육관광부)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선정위원 (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서: 인종주의(2009, 책세상), 소수자의 한국사회(2008, 후마니타스)
실무	이완 대표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컨설턴트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심사’ 공동사무국 참여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수행 다수 경험 (강남시장 축제 등)
방송	조준형 PD	평화방송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어강사 (2014~현재)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2013~2015) 평화방송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담당 PD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 (논문: 다문화시대 이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2009)
언론	김은경 기자	영남일보	영남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대구대학교 언론대학원 재학 중 대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 실행위원,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실행위원 대구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심사 (2014) 문화다양성 관련 다수 기사 집필 (2003~2014)

## □ 모니터링 운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0월 30일자 방영분
- 내용적 범위
  - 방송(드라마, 시사·교양, 오락) 프로그램
    - 공중파 TV(KBS1, KBS2, SBS, MBC, EBS)외에 2011년 12월 출범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증가하며, 영향력이 증대되는 종편 채널 내 일부 프로그램

## 제1장 서론

램<sup>24)</sup>을 방송 모니터링에 포함.

- 미디어 분야는 드라마를 추가로 모니터링
- 언론 시사·교양, 오락 분야 보도 기사
  - 4대 일간지의 경우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 사실과 오피니언 기사를 제외한 전체 보도 · 기획기사를 모니터링
  - 검색어 모니터링 : 문화다양성 검색어를 연구진이 사전 선정하여, 해당되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모니터링

〈표 10-1〉 문화다양성 키워드

부정적 키워드	긍정적 키워드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재생산)	고정관념(편견) 타파
다름(차이) 몰이해	다름(차이) 이해/배려
소통단절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갈등의 결과만 강조	갈등의 원인파악/문제제기 갈등해소

#### □ 모니터링단 배치 및 방법

- 모니터링단은 방송 · 언론의 문화다양성 증진 사례를 확장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단의 구성 기준을 매체 중심과 주제중심 배분 2개 구조로 구성

- 방송 모니터링 조
  - 1조 : 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지정
  - 2조 : 장애인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지정
  - 3조 : 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지정
  - 4조 : 타문화(이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24) 종편4社は MBN, TV조선, 채널A, JTBC이며, 모니터링 범위는 채널 특성 및 주제 특성에 따라 추후 선정함.

## 제1장 서론

지정

- 5조 : 새터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지정
- 6조 : 성별/계층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지정 프로그램 + 방송매체 지정

#### • 언론 모니터링 조

- 문화다양성 관련 키워드 언론 검색 + 언론 매체 자유 배정
- 지정영역별, 미디어별 소속팀을 선정하고 전문가 2인과 시민 6인으로 배치하여 서로가 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1〉 영역별 X 미디어별 모니터링단 배치 및 모니터링 방법

방송	KBS 1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b>〈채널별 48명의 모니터링단 배치〉</b> •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양화  <b>〈개별 모니터링 일지 제출〉</b> • 2개 주제별 각 4회 이상 모니터링 일지 제출 (총 8회 이상)
	KBS 2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MBC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SBS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EBS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총편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언론	조선일보 + 온라인 기사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b>〈언론미디어별 32명의 모니터링단 배치〉</b> • 모니터링 기사 다양화  <b>〈개별 모니터링 일지 제출〉</b> • 2개 주제별 월 2건의 모니터링 일지 제출 (월동기간 3개월, 인당 총 12회)
	중앙일보 + 온라인 기사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동아일보 + 온라인 기사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한겨레일보 + 온라인 기사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한겨레일보 + 온라인 기사	1개조 : 8명 모니터링단 (전문가2인+시민6인)	

## 제1장 서론

## 5. 모니터링 활동

## 가. 사전 워크숍

## □ 사전 워크숍 일시

– 진행 일시 : 2014.9.27. 14:00~18:00

– 장소 : 성균관 대학교 퇴계 인문관

– 참석자 : 총 90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장애파트너스그룹(JnP)

• 문화다양성 교육진행 강사 : 이완 대표

• 전문가/시민 모니터링단 : 총 80명

## □ 사전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계획됨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제고

• ‘무지개숲’, ‘무지개 마을’ 등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활용

– (2) 모니터링단 역할 및 활동방식 교육

• 방송 언론 미디어에서의 문화다양성 재현 사례 공유, 모니터링 일지 작성 및 프로그램 분배

– (3) 모니터링단 간 네트워킹 및 팀워크 빌딩

• 조별 개인소개, 명칭공유, 밴드 개설 등의 활동

## □ 참여자 구성

– 방송 A : KBS1, KBS2, MBC 배당받은 총 3개조 24명

– 방송 B : SBS, EBS, 종편을 배당받은 총 3개조 24명

– 언론 : 언론사별 총 4개조 32명

## □ 워크숍의 세부진행 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방송반, 언론반의 활동분야가 다름에 따라 2개 조로 나뉘어 오리엔테이션·네트워킹과 교육을 스위칭 하여 진행

## 제1장 서론

〈표 11-1〉 사전 워크숍 진행 스케줄

구분	내용	진행자
14:00-14:10	개회사	장현선 수석
14:10-14:25	문화다양성 사업 설명	장현선 수석
	이동 및 휴식	
14:30-16:00	문화다양성 교육 – 교육목적: 모니터링단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제고 – 교육내용: ‘무지개숲’, ‘무지개 마을’ 등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활용 – 교육프로그램 진행 후 조별 결과 발표	이완 대표
	이동 및 휴식	
16:10-16:40	오리엔테이션 – 모니터링단 역할 및 활동방식 교육 – 모니터링 일지 작성 안내 및 프로그램 분배 – 방송·언론 미디어에서의 문화다양성 재현 사례 공유	전송녕 박사 황은정 박사
16:40-18:00	네트워킹 및 팀워크 빌딩 – 조별 자기소개, 명칭 공유, 밴드 개설 등 활동	전송녕 박사 김보람 과장

## □ 오리엔테이션 내용

– 모니터링 활동 내용 안내

• 활동 기간 : 2014년 9월 27일 ~ 2014년 11월 21일

• 활동내용

– 방송모니터: 배정받은 프로그램 8개 시청 후 모니터 일지 작성 및 제출

– 언론모니터: 배정받은 언론사/키워드 검색 후 12개 기사 모니터 일지 작성 및 제출

– 사전워크숍(9월27일), 결과보고 워크숍(11월21일) 참석

– 모니터링 일지 작성/제출 안내

• 모니터 일지: 모니터 일지 작성 요령 교육

• 방송·언론 미디어 사례 안내

• 일지 작성 기한

## 제1장 서론

1차: 2014년 10월 12일(일요일) 방송모니터(4개), 언론모니터(4개)제출

2차: 2014년 10월 26일(일요일) 방송모니터(4개), 언론모니터(4개)제출

- 모니터 일지 제출처 : 각자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된 설문 url에서 일지 작성 후 보내기(submit)를 누르면 제출 완료 (구글 Docs 설문 프로그램 활용) 커뮤니티 및 연락처
  - 모니터링 담당자 연락처: monitor@jnpgroup.net ☎070-8860-6347
  - 문화다양성 카페: <http://cafe.naver.com/jnp2014모니터> 일지 양식, 공지 사항
  - 팀별 밴드/카카오톡 : 모니터 활동 중 질의&응답, 긴급연락

〈표 11-2〉 사전 워크숍 현장 사진



## 제1장 서론



## 나. 모니터링 일지 제출

- 1차, 2차에 걸쳐 일지를 수거 하였으며 개인별 8개의 일지를 수거함
  - 1차 수거 : 10월 12일 (일지 4개 송부)
  - 2차 수거 : 10월 26일 (일지 4개 송부)
- 1차 모니터링 일지 제출 후 개별 피드백 전달하여, 모니터링시 주안점 및 방향성에 대해 가이드를 전달
  - 피드백 예시

## 제1장 서론

## 방송 4팀 주제 - 타문화(이주민)

방송 4팀의 주제는 [타문화(이주민)]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나 인종 간 특정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노동력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적인 단면만 강화하여 공포심을 소구하거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식이 관리와 통제 또는 배불기식 사고만을 보여주는 등 단편적이고 편향된 모습만 보여주는지는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 또는 특정 문화나 인종이 우월하고 옳은 것이라고 선도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기타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거 등 생활과 문화, 교육, 가족 등 전 영역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관찰하여 주세요.

## 총평

전체적으로 [공감/소통], [동등/공존], [융합/발전]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알맞은 장면들을 잘 찾아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이 부족하여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차별적인 행동, 어휘는 없는지 조금 더 비판적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혹은, 긍정적인 장면만 있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제시도 좋습니다.

나아가 다음 일지에서 긍정적인 면에 점수를 더 높게 주셨다면(4.5점) 왜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느꼈는지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총평에 적어주셔도 좋고, 긍정/부정 이유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해외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을 보충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라는 종합평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감/소통]

출연진들이 모두 외국어를 못해서 스텝진이 통역을 해줬는데 화면상에서 외국인인 답답하게 기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길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예의도 아니었고 구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 공감/소통은 언어의 소통도 포함하지만, 나아가 "문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여 소통"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언어적인 불통 외에 타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편견을 보여주거나, 한국적인 것만을 우월하다고 표현하지는 않는지,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 기재 하여 주세요.

## [융합/발전]

장면 : 15분경부터 시작된 행복메아리 합창단에서 몽땅 합창단과 같이 무대에서는 모습 긍정적인 이유 :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하다. 그러므로 호소력이 짙은 것이 매력인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할 것 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에 나온 행복 메아리 편은 이러한 선입견을 깰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래로 치유 받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융합/발전]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 발전할 수 있는 문화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복메아리 합창단과 몽땅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발

## 제1장 서론

전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주제에 걸맞은 내용을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국 노래라면 한국 문화와 이주민 여성의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으로 해석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 다. 결과 워크숍

## □ 결과 워크숍 일시

- 진행 일시 : 2014.11.21 14:00~17: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실
- 참석자 : 총 60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장애파트너스그룹(JnP)
- 전문가/시민 모니터링단 : 총 55명

## □ 결과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됨

- (1) 방송·언론 미디어 문화다양성 모니터링 결과의 성과 발표
  - 방송·언론 각 팀별로 우수 사례자 1명씩 선정
  - 발표는 방송팀의 경우 프로그램, 언론팀의 경우 기사 소개 후 긍정 사례 장면 및 이를 긍정 사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발표하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순으로 진행

〈표 12-1〉 결과 워크숍 진행 스케줄

구분	주제	내용
방송1	세대(실버/청소년)	긍정 사례 발표
방송2	장애인	긍정 사례 발표
방송3	타문화(여행, 지역소개)	긍정 사례 발표
방송4	타문화(이주민)	긍정 사례 발표
방송5	새터민	긍정 사례 발표
방송6	성별/계층/기타이슈	긍정 사례 발표
언론 (총4개팀)	키워드별 사례 유형화 (예. 성별, 종교, 장애, 세대, 계층, 출생지역, 혼인상태, 가족형태 별)	긍정 사례 발표

- (2) 팀별 방송·언론 프로그램 및 기사 기획



## 제1장 서론

- 팀별 미션으로 방송·언론 미디어의 기획자가 되어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기사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짐
- 이때, 방송팀의 경우 팀별 주제를 고려하였으며 언론팀의 경우 문화다양성 키워드 중 선별하여 기획 기사를 집필함
- (3) 팀별 기획 프로그램 및 기사 발표
  - 모니터링단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및 기사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여 발표
  - 최우수 2개팀에 시상

## □ 결과 워크숍 현장 사진

〈표 12-2〉 결과 워크숍 현장 사진

		
워크숍 안내 배너	개회사	우수사례자 시상식
		
우수사례자 발표	우수사례자 발표	조별 네트워킹

## 제1장 서론

		
조별 발표	조별 발표	조별 발표
		
조별 발표	조별 발표	조별 발표

## 제1장 서론

## 6. 모니터링 일지

## □ 일지 양식 구성

- 모니터링 일지는 방송팀 언론팀 양식이 각각 구성됨
- 언론 팀의 경우 단일 기사 양식과 비교기사 양식 2종으로 구성

## • (1) 방송 모니터링 일지 양식

〈표 13-1〉 문화다양성 방송 모니터링 일지 양식

2014 문화다양성 방송 모니터링 일지				
소속 팀			작성자 성명	
1.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요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송 날짜		회사		
출연진				
프로그램 내용 요약				
2.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				
1) 공감/소통: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인식수준)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 제1장 서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2) 동등/공존: 서로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혹은 행동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3) 융합/발전: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3. 종합 평가

종합의견	
키워드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에 해당되는 키워드 선택)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타파 다름(차이) 이해/배려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특정문화 배척/배제 소통단절 갈등의 결과만 강조 갈등해소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문화적 왜곡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재생산) 다름(차이) 극복 몰이해 평등 추구 특정문화 강요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사회통합 문화창조 문화적 수용/조화 비하/희화화
시청 소감 (개인소감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 (2)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단일기사용)

〈표 13-2〉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단일기사)

## 2014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1]

소속 팀		작성자 성명	
------	--	--------	--

## 1.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요

검색 키워드			
기사제목			
언론사		송고일	
지면		작성 기자이름	
기사 전문			
기사 링크			

## 2.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

## 1) 공감/소통: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인식수준)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2) 동등/공존: 서로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혹은 행동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3) 융합/발전: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3. 종합 평가

종합의견		
키워드 (해당 기사의 특성에 해당되는 키워드 선택)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재생산)	다름(차이) 이해/배려
	소통단절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특정문화 배척/배제	문화적 수용/조화
	특정문화 강요	새로운 문화 창조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갈등의 원인파악/ 문제제기
소감 (개인소감 중심으로)	갈등의 결과만 강조	갈등해소

- (2)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비교기사용)
  - 동일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시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

〈표 13-3〉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양식(비교기사)

## 2014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 일지 [2]

소속 팀	작성자 성명
------	--------

1.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요

## 제1장 서론

검색 키워드			
1) 비교기사A			
기사제목			
언론사		송고일	
지면		작성 기자이름	
기사 전문			
기사 링크			
2) 비교기사B			
기사제목			
언론사		송고일	
지면		작성 기자이름	
기사 전문			
기사 링크			
2-1. [비교기사A]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			
1) 공감/소통: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인식수준)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2) 동등/공존: 서로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혹은 행동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3) 융합/발전: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2-2. [비교기사B]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

## 1) 공감/소통: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인식수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2) 동등/공존: 서로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혹은 행동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

## 제1장 서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3) 융합/발전: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부정 장면(장면, 대사, 자막 등) 기술	해당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3. 종합 평가

종합의견		
키워드 (해당 기사의 특성에 해당되는 키워드 선택)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재생산)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몰이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단절	문화적 수용/조화
	특정문화 배척/배제	새로운 문화 창조
	특정문화 강요	새로운 문화 창조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갈등의 원인파악/ 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제1장 서론

		갈등해소
소감 (개인소감 중심으로)		

## 제2장 본론

## 제 2장

## 본 론

## 제1절 :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1. 전체 [방송] 속성별 결과
2. 전체 [방송] 키워드별 결과
3. 전체 [언론] 속성별 결과
4. 전체 [언론] 키워드별 결과
5. [방송]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6. [언론]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 제2절 : 문화다양성에 대한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사례

1. [방송] 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2. [방송]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3. [방송] 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4. [방송] 타문화-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5. [방송]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6. [방송] 성별/계층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7. [언론]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사 긍정 사례
8. [언론] 외국인/인종/타문화 관련 기사 긍정 사례
9. [언론] 장애인 관련 기사 긍정 사례
10. [언론] 기타 계층 관련 긍정 사례
11. [언론]영역별 기사 비교 모니터링

## 제3절 : 모니터링단 소감문

1.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 전후 인식 변화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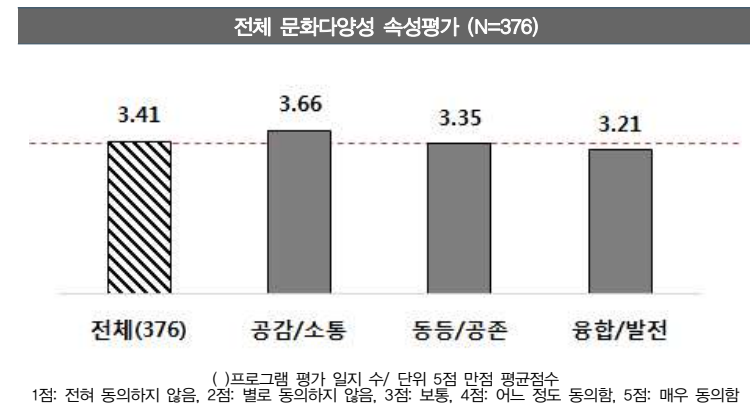
## 제 1절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전체 [방송] 속성별 결과

## □ 방송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

-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지는 문화다양성 속성 평균은 3.41점으로 보통 이상의 발현정도를 보임. 특히, '공감/소통' 측면은 평균 이상으로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 '융합/발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21)를 보임.
-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발현을 위한 속성의 상위단계로 갈수록 발현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문화다양성 개념의 이해 및 인식 정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융합해나가는 발전적 모습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1〉 방송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 □ 전체 평가 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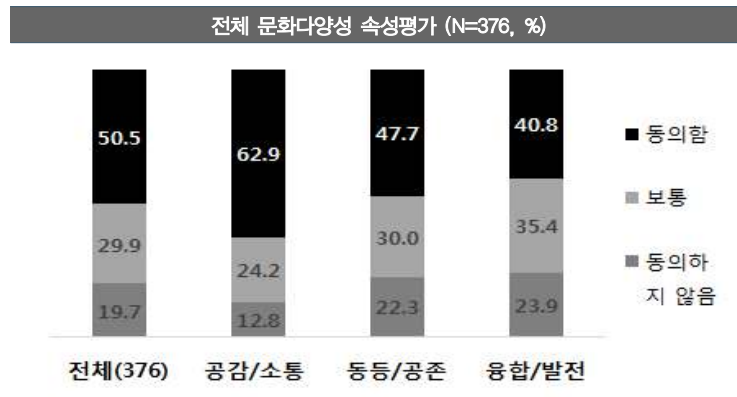
- 방송 모니터링단의 약 절반가량인 50.5%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속성 발현 정도에 동의한다고 평가함.



## 제2장 본론

공감/소통 면에서는 과반 수 이상인 62.9%가 '매우동의+동의'로 평가한 반면, '동등/공존' 및 '융합/발전' 측면에서는 보통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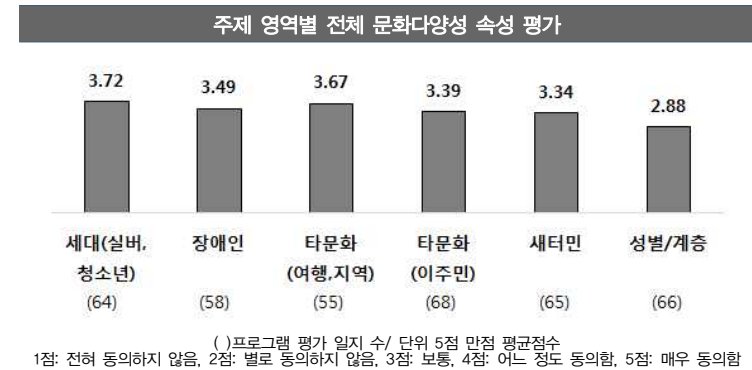
〈표 14-2〉 방송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을 주제 영역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세대(실버, 청소년)'와 '타문화(여행, 지역)'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문화다양성 속성 발현정도가 각 3.72점, 3.6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타문화(이주민)', '새터민'이 그 뒤를 이음.
  - 이에 반해 '성별/계층'의 경우 2.88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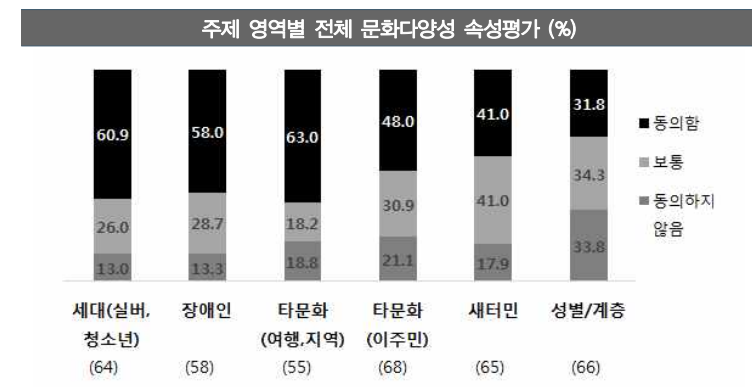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표 14-3〉 방송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 주제 영역별 세부 평가점수를 보면, 여전히 '세대(실버, 청소년)', '타문화(여행, 지역)'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임.
- 이 외에도, '장애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또한 문화다양성 속성의 발현 정도가 절반 이상(58.0%)으로 높은 편임.

〈표 14-4〉 방송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제2장 본론

## 2. 전체 [방송] 키워드별 결과

- 키워드는 총 6개로 대분류 되며, 방송 모니터링단은 프로그램 시청 후 아래 키워드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복수로 선택하여 평가함.
- 단, 긍정과 부정 키워드는 절대적인 비교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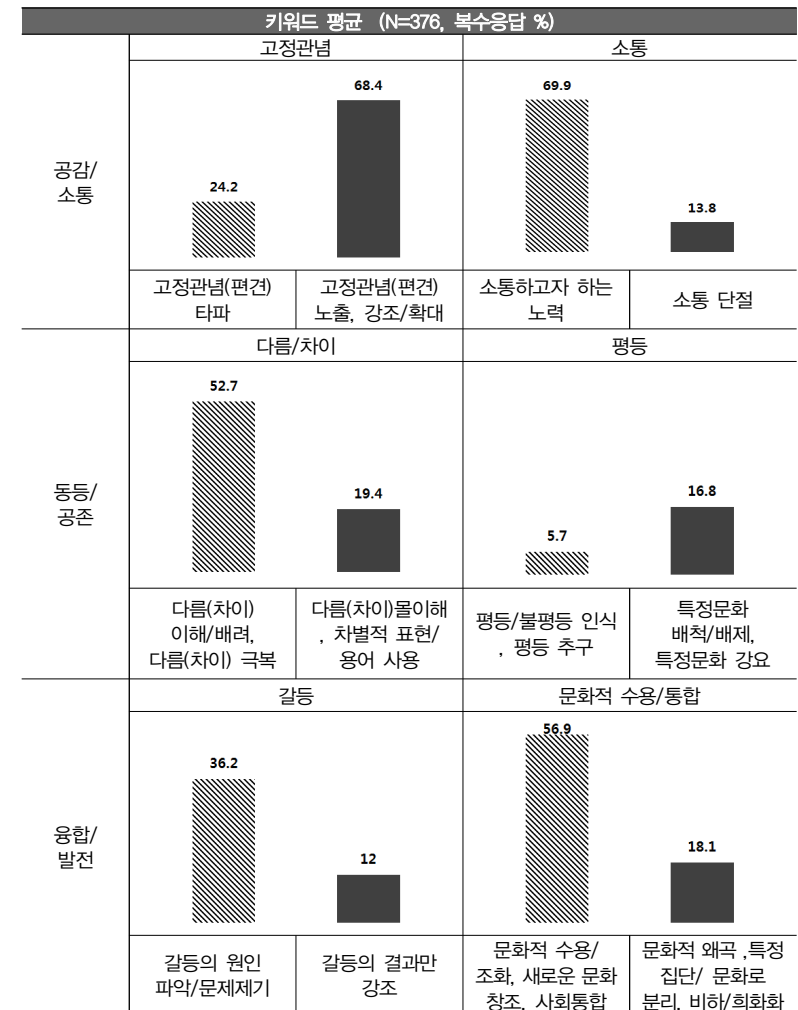
〈표 14-5〉 방송 - 프로그램 키워드

키워드	긍정	부정
고정관념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 (재생산)
소통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다름/차이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갈등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통합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키워드별 속성 분석
- 전체 키워드는 문화다양성 속성인 공감/소통, 동등/공존, 융합/발전의 상위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음. 대다수 속성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공감/소통' 속성 중 소통 하고자 하는 노력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외 '동등/공존'의 속성의 경우 다름/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면이 과반 수 이상(52.7%)인 반면 평등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융합/발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갈등을 극복(36.2%)하고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며 발전(56.9%)해 나가려는 점이 부정적인 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제2장 본론

〈표 14-6〉 방송 - 키워드별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발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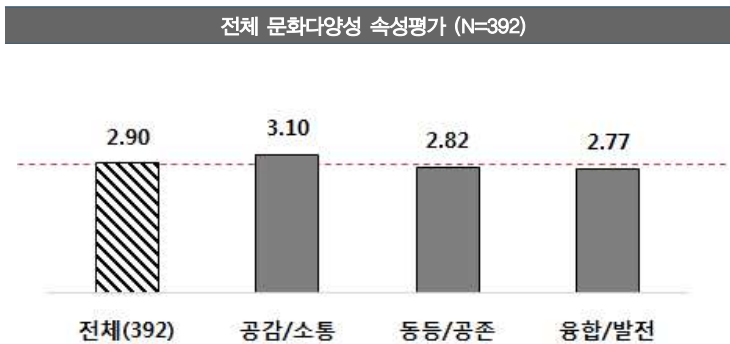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 3. 전체 [언론] 속성별 결과

## □ 언론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 분석

- 언론사에서 다루지는 문화다양성 속성 평균은 2.90점으로 보통보다 소폭 낮은 발현정도를 보여 평균 3.41점을 받은 방송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방송프로그램 대비 언론기사의 경우 단편적인 사례가 많아 문화다양성 발현정도를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나, 지속적인 관찰로 심층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부적으로는 '공감/소통'의 경우 3.10점으로 다른 속성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등/공존' 및 '융합/발전'의 경우 각 2.82점, 2.77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됨.

〈표15-1〉 언론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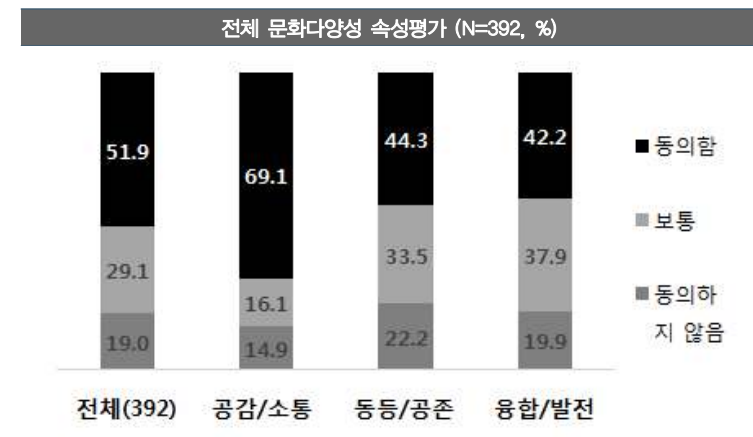
( )언론 평가 일치 수 / 단위 5점 만점 평균점수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2점: 별로 동의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어느정도 동의함, 5점: 매우 동의함

## 제2장 본론

- 전체 속성평가 점수를 동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보면, 언론 모니터링단의 약 절반 가량이 51.9%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속성 발현 정도에 동의한다고 평가함.
- 이는 방송 분야(50.5%) 대비 오히려 더 높은 편으로 기사의 경우 글쓴이의 의도가 문서화되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세부 영역별로는 '공감/소통' 측면에서 69.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동등/공존'과 '융합/발전'은 유사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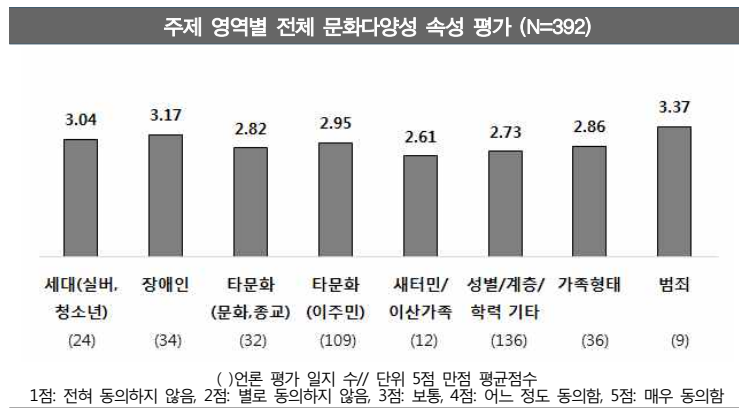
〈표15-2〉 언론 -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제2장 본문

- 주제영역별로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기사의 문화다양성 속성이 3.1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새터민/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경우 2.61점으로 가장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에 동의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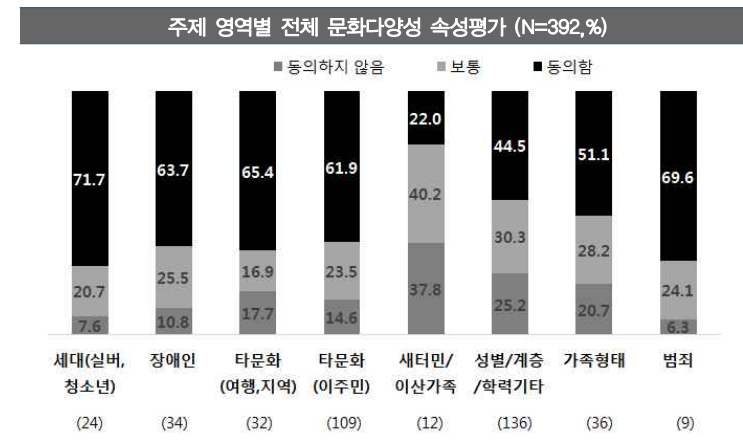
〈표15-3〉 언론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 제2장 본문

- 언론 주제 영역별 세부 평가점수를 보면 ‘새터민’, ‘성별/계층/학력 기타’ 외 대부분의 주제에서 과반 수 이상이 언론기사 내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에 동의한다는 평가임.
- 전체 속성 평가점수는 보통 이하이나, 동의+매우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15-4〉 언론 - 주제 영역별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제2장 본론

## 4. 전체 [언론] 키워드별 결과

- 키워드는 방송과 동일하게 총 6개로 대분류 되며, 언론 모니터링단은 해당되는 기사를 모니터링 후 각 기사별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를 아래 키워드를 복수로 선택하여 평가함.
- 단, 긍정과 부정 키워드는 절대적인 비교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표 15-5〉언론 - 기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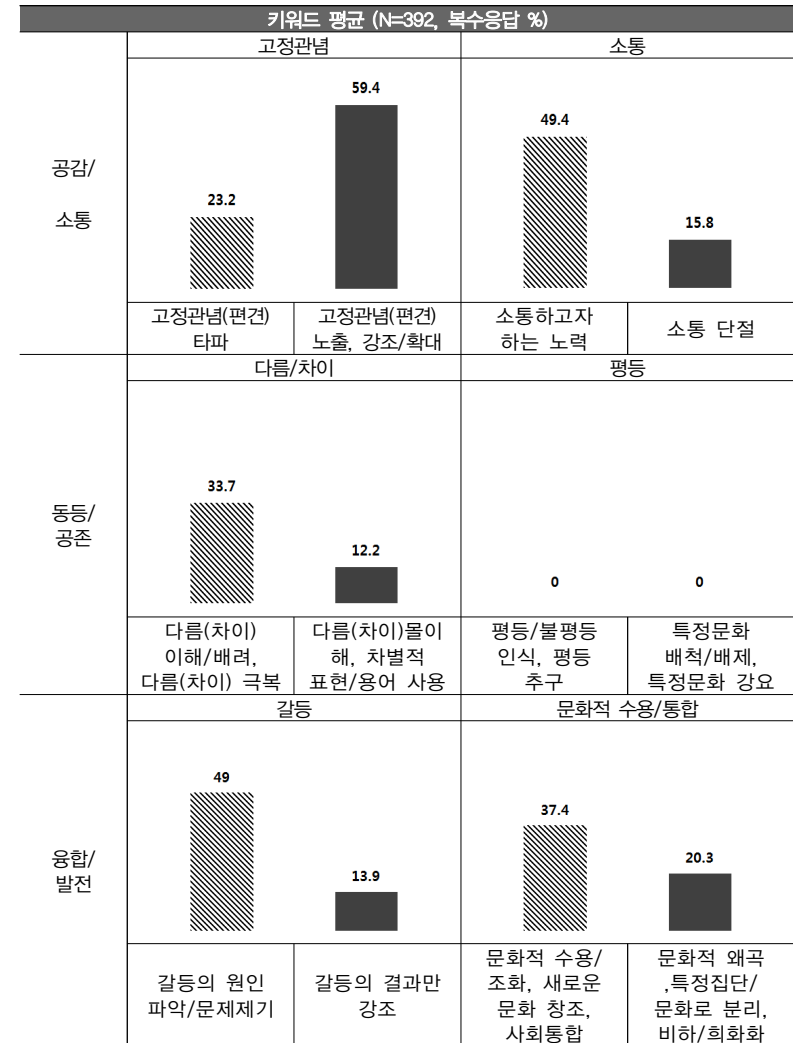
키워드	긍정	부정
고정관념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 (재생산)
소통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다름/차이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갈등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통합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 키워드별 속성 분석

- 언론 전체 키워드의 문화다양성 발현지수를 분석했을 때, 긍정적인 키워드는 공감/소통 측면에서 소통과 융합/발전에서 갈등 해소가 각각 49.4%, 49.0%로 부정적인 키워드 대비 높게 평가됨.
-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높게 평가되는 키워드는 ‘고정관념’으로 전체 언론 기사의 주요 키워드로 59.4%가 선택됨.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은 23.2%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보임.

## 제2장 본론

〈표 15-6〉언론 - 키워드별 기사 문화다양성 발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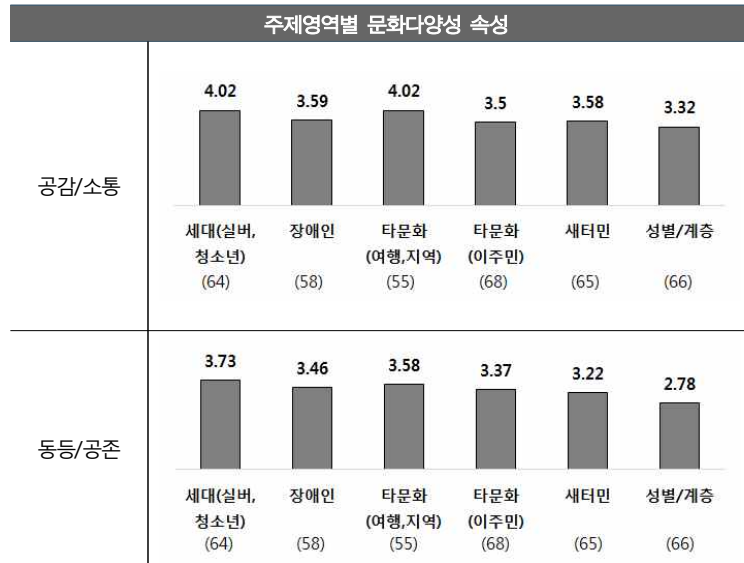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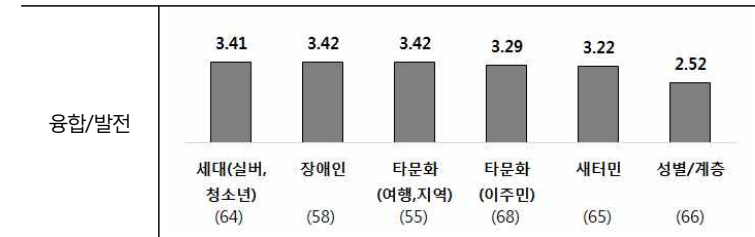
## 5. [방송]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 방송 모니터링 단은 총 6개 주제로 나뉘어 각각의 문화다양성 속성평가를 진행하였음. 방송 모니터링단은 각 주제에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배분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문화다양성 속성을 평가함.
- ‘공감/소통’ 측면에서 가장 발현정도가 높게 나타난 주제는 ‘세대(실버, 청소년)’ 과 ‘타문화(여행, 지역)’ 이 4.0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동등/공존’ 에서도 ‘세대(실버, 청소년)’ 와 타문화(여행, 지역)이 각각 3.73점, 3.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세부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문화다양성 발현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융합/발전’ 의 경우 ‘타문화(여행, 지역)’ 이 3.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동의 정도 또한 높게 나타남

〈표 16-1〉 방송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5점 척도)



## 제2장 본론



- 각 주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세대(실버, 청소년)’ 을 주제로 다룬 프로그램의 경우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속성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 특히 ‘공감/소통’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발현정도가 4.0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타 주제 대비 갈등보다는 비교적 가볍고 유쾌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출연진들이 화합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동등/공존’ 측면 또한 세대(실버,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로 다른 세대 또는 인물이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평임. 다만 일부 어르신 세대의 보수적인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공감대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보임.
- ‘장애인’ 을 다룬 프로그램의 경우 공감/소통은 보통 수준이지만, 동등/공존 및 융합/발전에서 고른 분포를 보임.
-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대상자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로써 객관적 시선에서 서로가 다른 점을 존중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여 개인이 중요시 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참여·나눔 방식과 문화가 창조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보임.
- ‘타문화(여행, 지역)’ 을 다룬 프로그램은 특히 공감/소통(4.02점)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를 보임.
- 세부적으로도 ‘동의+매우 동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여행, 새로운 지역이라는 주제가 주는 긍정적 영향(낮은 갈등요소)과 함께 잘 알지 못했던 타 국가의 사람들 또한 우리의 일상, 고민, 공통적인 관심사 등으로 맞닿

## 제2장 본론

아 있는데서 느끼는 공감대에서 견인된 것으로 보임.

## □ 타문화(이주민)

- 타문화(이주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공감/소통' 면에서 문화다양성 발현정도는 3.5점으로 평균 수준이나 실제 동의 정도는 발현정도가 더 낮은 성별/계층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방송 모니터링단은 세부적으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함. 이 때,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보도하는 태도가 문화나 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편견을 보여주거나, 서로 공존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은 더딘 것으로 평가함. 반면, 이주민의 모국을 소개할 때 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해를 돕거나 서로를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에서 인정할 때 문화다양성 속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 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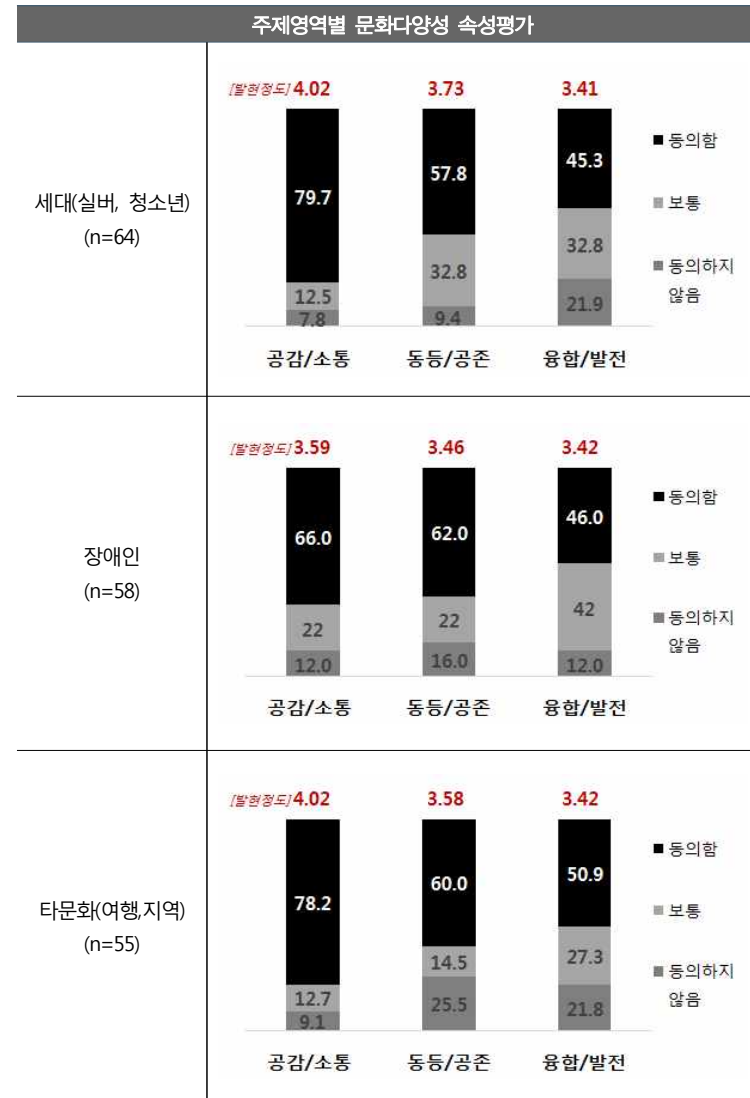
- '새터민' 을 다룬 프로그램은 전체 문화다양성 속성 측면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모니터링단은 북한에 대한 비판 또는 남한의 잣대에서의 평가가 아닌, 중립적인 태도로 북한을 이해하고 좋은 사례(예. 순우리말을 보존하려는 태도)는 인정할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이러한 요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용어측면에서 '탈북민' 이라는 단어는 지양하고 '새터민' 으로 언급해야 함을 권고함.

## □ '성별/계층' 이슈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속성 평가점수도 보통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여전히 타파되지 않거나 갈등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 일부 보인 데서 견인됨. 그러나 성별/계층별로 서로 다른 생각을 폭넓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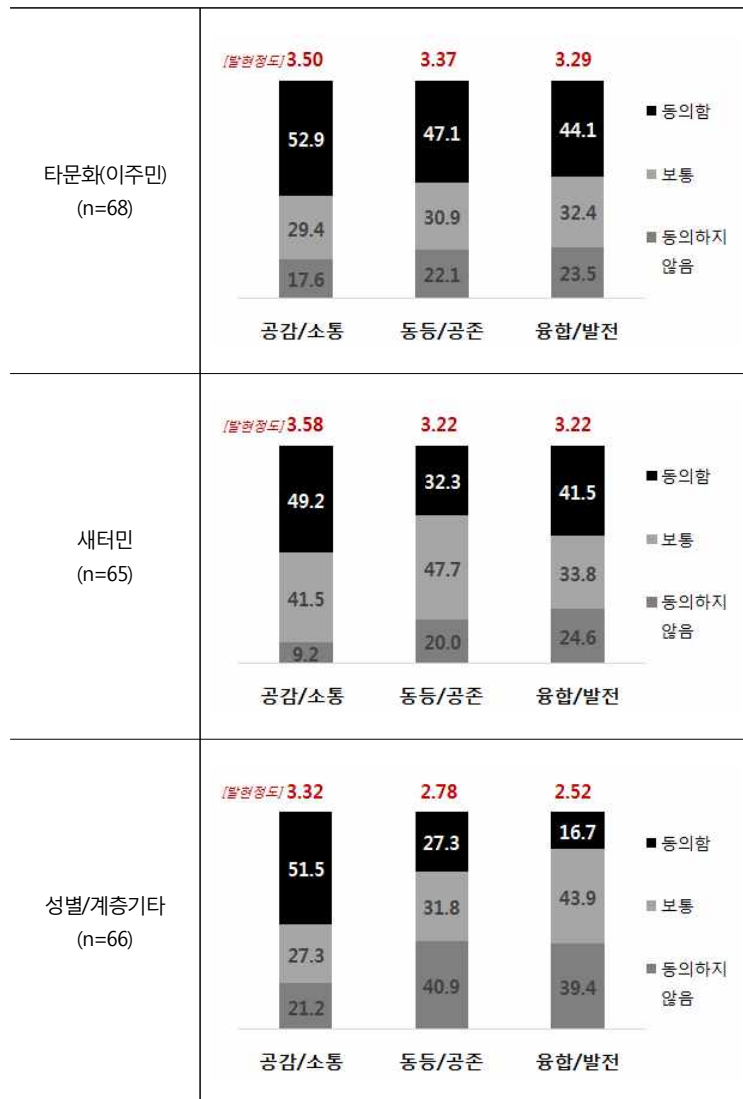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표 16-2〉 방송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제2장 본론



## 제2장 본론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1) 세대(실버,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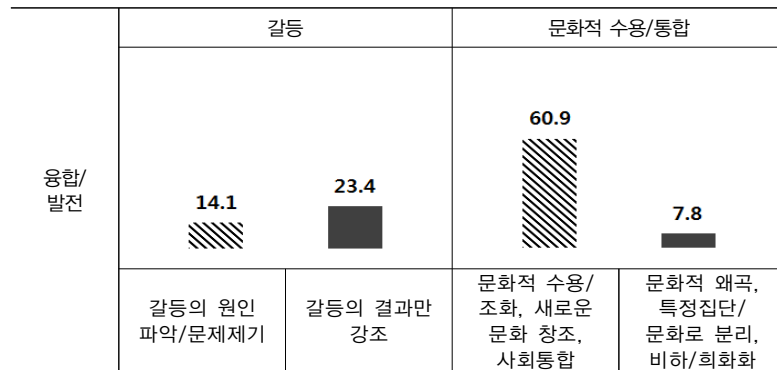
- 세대(실버, 청소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다양성 키워드 중 '공감/소통'에서 소통 측면이 8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고정관념의 경우 부정적인 키워드가 긍정적 키워드보다 2배 이상 높게 선택되어, 고정관념(편견) 타파를 선도하기 위한 인식전환이 요구됨.
- 서로의 다름(차이)을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다름/차이 속성은 약 46.9% 선택되어, 방송을 통해 보이는 동등/공존을 위한 상호 이해가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됨.
- 융합/발전의 긍정적 속성인 문화적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측면 또한 60.9%로 높게 평가함.

〈표 16-3〉 방송 - (1)세대(실버, 청소년)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1)세대(실버, 청소년) (N=64,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17.2		82.8	
	48.4		6.3	
동등/공존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다름/차이		평등	
	46.9		7.8	
	12.5		3.1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극복	다름(차이)몰이 해, 차별적 표현/용어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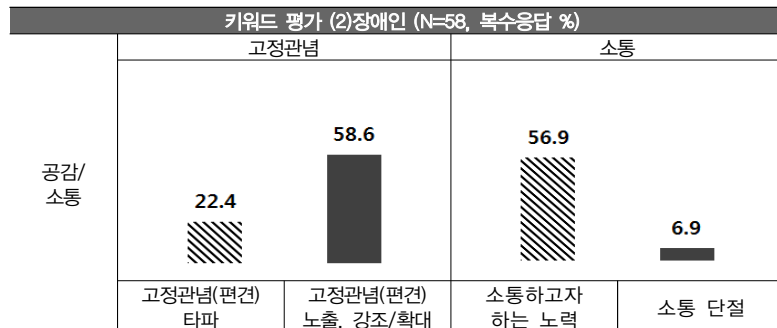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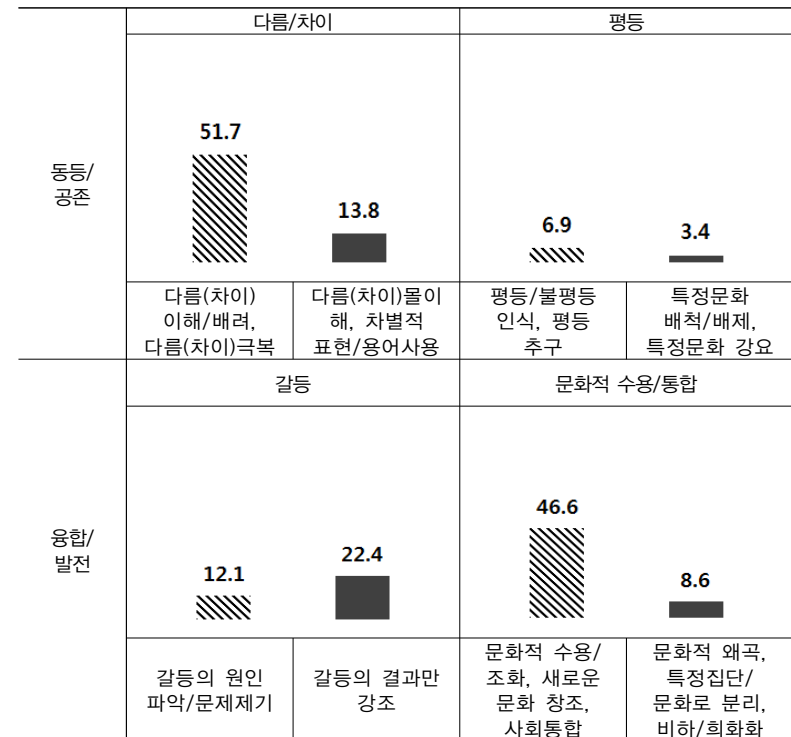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2) 장애인

- ‘장애인’을 주제로 한 기사의 경우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 선택이 과반 수 이상인 58.6%로 나타남. 반면, 동일 속성인 공감/소통 측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56.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등/공존 속성인 다름/차이 키워드의 긍정적 측면이 51.7%로 부정적 키워드 대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이는 타 주제영역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평가임.
- 융합/발전 속성인 문화적 수용/통합의 긍정적 키워드 또한 46.6%로 높음.

〈표 16-4〉 방송 - (2)장애인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 제2장 본론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3) 타문화(여행, 지역)

- 타문화(여행/지역)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타 주제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고정관념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6.0%로 낮은 편임. 이는 타문화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26.0%), 다름/차이 이해(24.0%)를 기반으로 융합/발전 문화적 수용/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33.1%로 나타남.

## 제2장 본론

〈표 16-5〉 방송 - (3)타문화(여행, 지역)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3)타문화(여행, 지역) (N=55,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11.7 	26 	26.0 	5.2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24.0 	8.4 	2.6 	0.0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극복	다름(차이)몰이 해, 차별적 표현/용어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융합/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11.0 	11.7 	33.1 	9.7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제2장 본론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4) 타문화(이주민)

- ‘타문화(이주민)’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적 수용/통합’에 연관된 긍정적 키워드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타문화(이주민)을 선주민의 문화로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많은 방송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6-6〉 방송 - (4)타문화(이주민)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4)타문화(이주민) (N=68,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14.9 	24.0 	3.9 	9.7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26.6 	10.4 	5.2 	2.6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극복	다름(차이)몰이 해, 차별적 표현/용어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 제2장 본론

융합/ 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div>3.9</div> <div>9.7</div>		<div>30.5</div> <div>5.8</div>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5) 새터민

- 새터민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모니터링단이 가장 다수로 선택한 키워드는 '문화적 수용/통합' 으로 긍정적 평가가 60.9%로 부정적 평가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부정적 키워드가 32.5%로 다소 높은 편임.

〈표 16-7〉 방송 - (5)새터민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5) 새터민 (N=65) 복수응답 %				
공감/ 소통	고정관념		소통	
	<div>8.4</div> <div>32.5</div>		<div>30.5</div> <div>7.1</div>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 제2장 본론

동등/ 공존	다름/차이		평등	
	<div>20.8</div> <div>6.5</div>		<div>3.9</div> <div>3.2</div>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몰이 해, 차별적 표현/용어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융합/ 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div>14.9</div> <div>11.0</div>		<div>60.9</div> <div>3.2</div>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6) 성별/계층

- 성별/계층을 주제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낮은 문화다양성 속성 평가와 함께, 키워드에서도 부정적 측면이 타 주제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타문화의 문화다양성 이해뿐 아니라, 내부적인 문화다양성 이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을 의미함.

## 제2장 본론

〈표 16-8〉 방송 - (6)성별/계층 주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6) 성별/계층 (N=66,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div>8.4</div> <div>42.9</div>		<div>26.0</div> <div>8.4</div>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div>18.8</div> <div>11.7</div>		<div>7.8</div> <div>2.6</div>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물 이해, 차별적 표현/용어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융합/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div>9.7</div> <div>16.9</div>		<div>13.6</div> <div>13.0</div>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제2장 본론

## 6. [언론] 주제 영역별 결과 비교

- 언론 모니터링단은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기사를 검색하고 각각의 문화다양성 속성평가를 진행하였음. 이후 유사한 키워드를 통합하여, 총 8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함.

〈표 17-1〉 언론 - 주제 영역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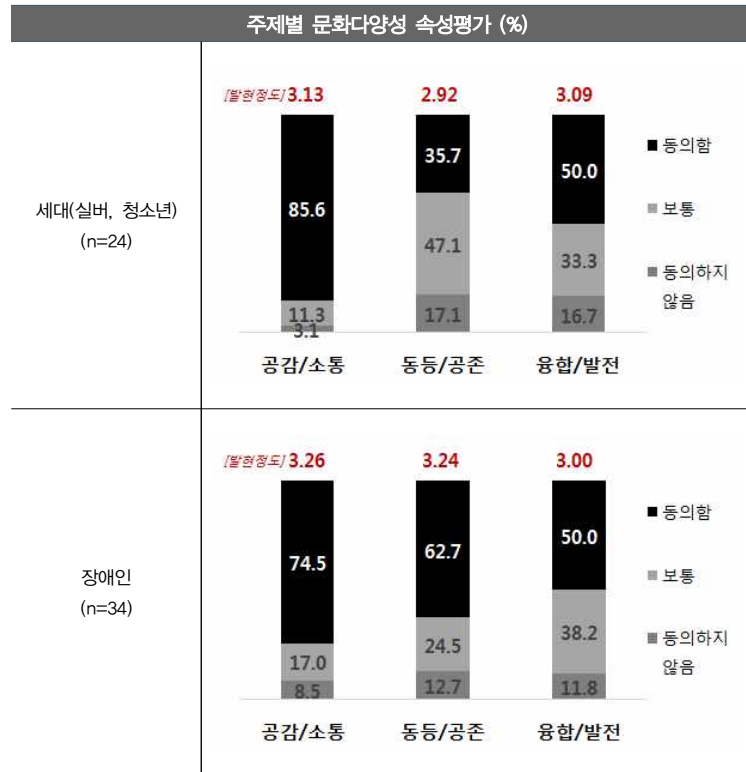
키워드	세부 내용
세대(실버, 청소년)	고령화, 독거노인, 청소년, 세대갈등
장애인	장애, 지적장애, 장애 인권, 지체장애 등
타문화(이주민)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인종
타문화(문화, 종교)	무슬림, 이슬람, 프란치스코, 히잡
새터민/이산가족	북한, 새터민, 이산가족, 조선족 등
성별/계층/학력 기타	게이, 계층, 성소수자, 학력차별, 지방 등
가족형태	한부모가정, 미혼모, 임신 출산입양, 싱글맘
범죄	제주 4.3 사건, 파주토막살인, 가해자 등

- ‘세대(실버,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감/소통 측면에서 85.6%가 문화다양성 발현에 동의함. 반면, 동등/공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의 부정적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을 주제로 한 기사에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다양성 속성 발현 정도에 대해 모니터링단의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함.
- ‘타문화(문화, 종교)’에서는 세대(실버, 청소년)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공감/소통(82.8%) 정도로 평가됨.
- ‘타문화(이주민)’을 다루는 기사의 경우, 타 주제와 유사하게 공감/소통 측면은 76.1%로 높은 편이나 동등/공존, 융합/발전 속성에 이르러서는 47%대로 하락함. 이는 이주민을 단순히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각 변화가 필요함을 반증함.
- 새터민의 경우 타 주제 대비 가장 낮은 문화다양성 발현 정도를 보였으며, 특히 융합/발전 측면에서는 ‘동의+매우동의’하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언론 모니터링단 중 가장 많은 평가가 이뤄진 ‘성별/계층/학력 기타’의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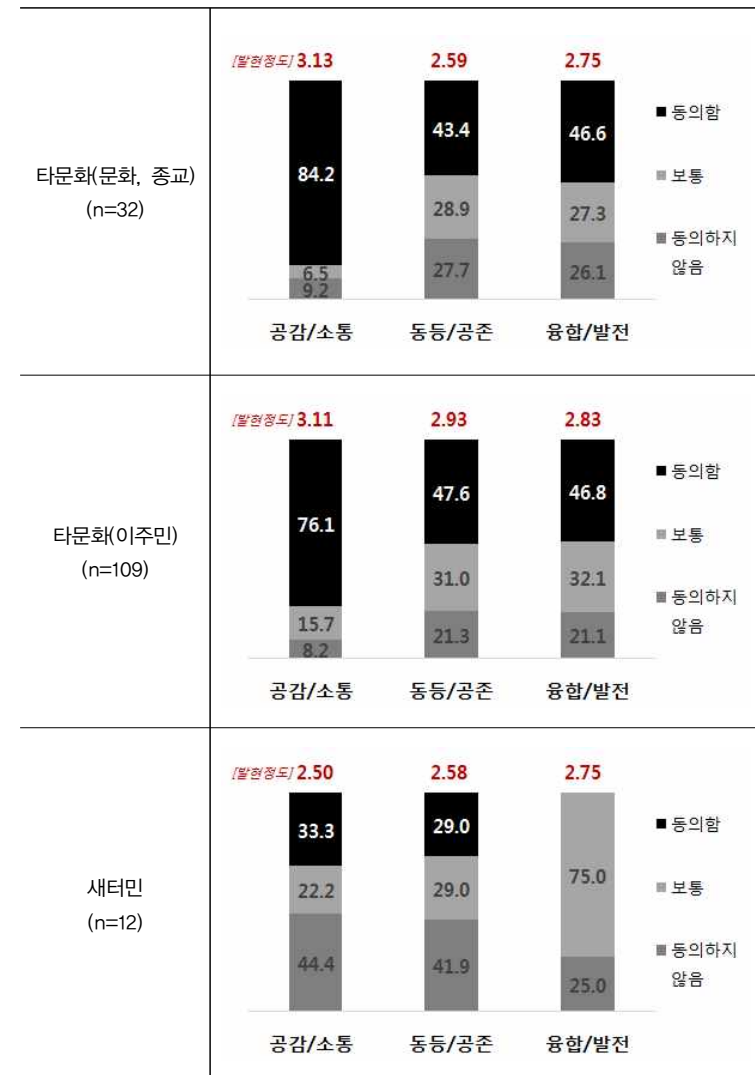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 는 모두 보통 이하의 발현 정도를 보였으며, 특히 동등/공존과 융합/발전 측면에서 각각 41.3%, 39.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이 외, 가족형태 및 범죄 관련 기사가 모니터링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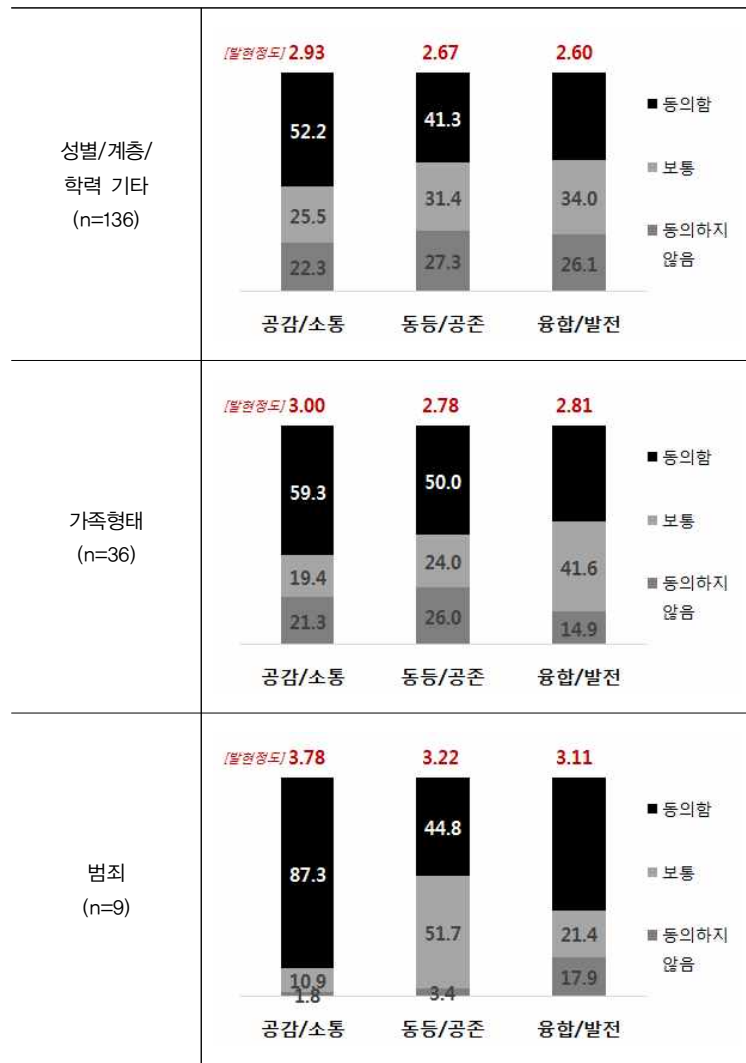
〈표 17-2〉 언론 - 주제영역별 문화다양성 속성평가 (%)



## 제2장 본론



## 제2장 본론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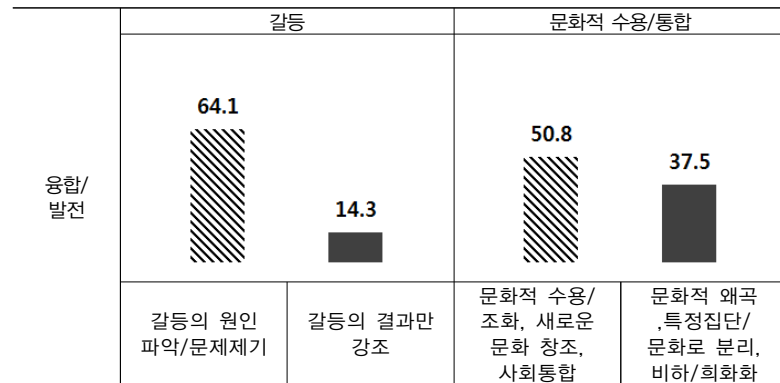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1) 세대(실버, 청소년)

- 세대(실버, 청소년)를 다룬 언론 기사의 경우,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측면에서 82.8%의 높은 평가를 받음.
- 고정관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다름/차이와 문화적 수용/통합에서 월등하게 긍정적 키워드 선택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긍정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케 함.

〈표 17-3〉 언론 - (1)세대(실버, 청소년)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1)세대(실버, 청소년) (N=24,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0.0	26.5	21.2	15.8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27.7	16.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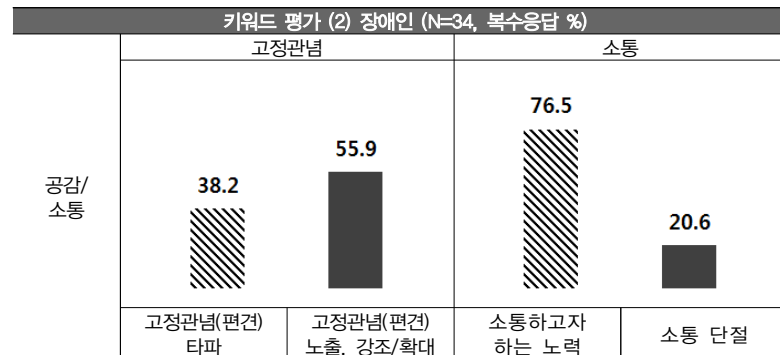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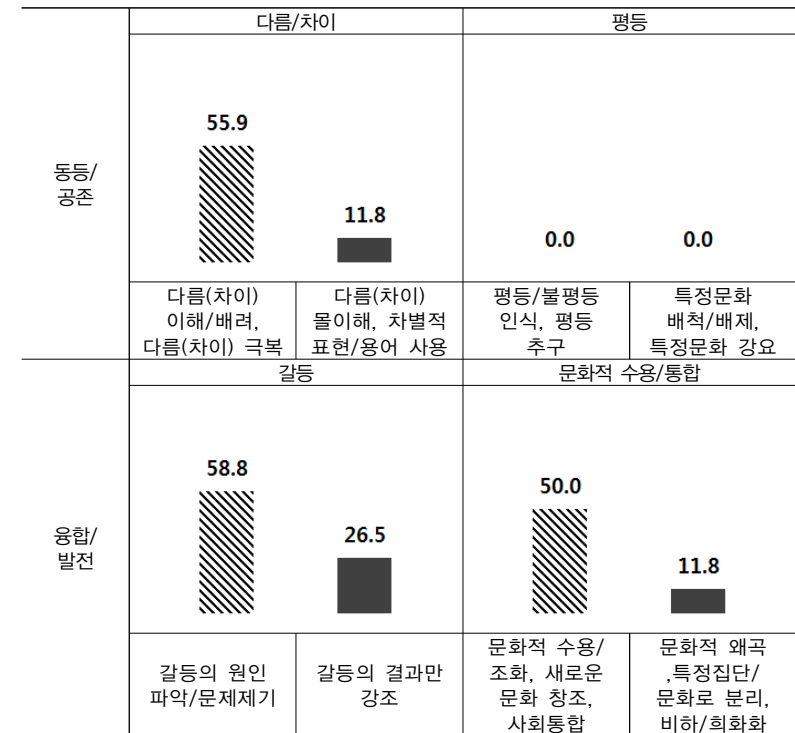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2) 장애인

- 장애인을 주제로 한 언론 기사의 경우, 고정관념 외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키워드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평가된 기사는 장애인 인권,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기사가 작성되었을 때 긍정적인 키워드의 선택이 높게 나타남.

〈표 17-4〉 언론 - (2)장애인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 제2장 본론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3) 타문화(문화, 종교)

- 타문화(문화, 종교)를 주제로 한 기사에서는 다른 주제와 유사하게 ‘고정관념’에서 부정적 키워드가 46.9%로 높은 편임.
- 언론 모니터링단은 타문화(문화, 종교)에 대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편견을 깨는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때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전시상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에도 교회가 존재하며 여기서 안정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할 때 새로운 을 느끼며, 고정관념(편견) 타파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함.

## 제2장 본론

〈표 17-5〉 언론 - (3)타문화(문화, 종교)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3) 타문화(문화, 종교) (N=32,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12.5	46.9	46.9	6.3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18.8	12.5	0.0	0.0
다름/차이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15.6	15.6	56.3	12.5
동등/공존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15.6	15.6	56.3	12.5
융합/발전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문화적 수용/통합	
	15.6	15.6	56.3	12.5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통합	
	15.6	15.6	56.3	12.5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15.6	15.6	56.3	12.5

## 제2장 본론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4) 타문화(이주민)

- 이주민을 다룬 언론 기사의 경우 74.3%가 부정적 고정관념 키워드를 선택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에서 접근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서 기인함.
- 그러나 일부 기사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주민/선주민으로 구분짓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엄마 또는 사회인으로써 고충, 꿈 등을 토로하는 등의 기사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표 17-6〉 언론 - (4)타문화(이주민)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4) 타문화(이주민) (N=109,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18.3	74.3	29.4	20.2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18.3	74.3	29.4	20.2
다름/차이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33.0	21.1	0.0	0.0
동등/공존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33.0	21.1	0.0	0.0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33.0	21.1	0.0	0.0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33.0	21.1	0.0	0.0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33.0	21.1	0.0	0.0



## 제2장 본론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융합/ 발전	29.4 	20.2 	32.1 	24.8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5) 새터민/이산가족

- ‘새터민/이산가족’을 주제로 다룬 기사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나타남. 또한, 새터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긍정적이나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 사회통합을 위한 발전적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임.
- 단, 모니터링단이 확인한 기사가 유의미한 사례 수(N=30)가 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17-7〉 언론 - (5)새터민/이산가족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5) 새터민/이산가족 (N=12, 복수응답 %)			
	고정관념		소통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공감/ 소통	33.3 	91.7 	41.7 
			33.3 

## 제2장 본론

	다름/차이		평등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동등/ 공존	33.3 	0.0 	0.0 	0.0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융합/ 발전	33.3 	8.3 	41.7 	33.3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6) 성별/계층/학력 기타

- 각 성별/계층/학력에 따라 구분 짓기를 하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66.2%로 높게 나타남.

## 제2장 본론

〈표 17-8〉 언론 - (6)성별/계층/학력 기타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6) 성별/계층/학력 기타 (N=136,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융합/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특정집단/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제2장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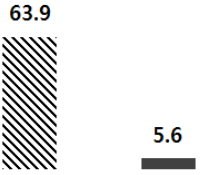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7) 가족형태

- 미혼모, 1인 가정 등을 다룬 가족형태 관련 기사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투영될 때 ‘고정관념’으로써 공감/소통의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됨.

〈표 17-9〉 언론 - (7)가족형태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7) 가족형태 (N=36, 복수응답 %)				
공감/소통	고정관념		소통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동등/공존	다름/차이		평등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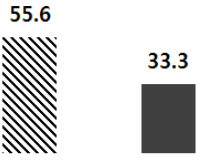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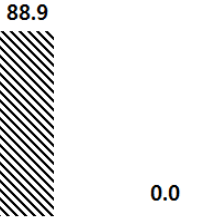
## 제2장 본론

융합/ 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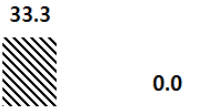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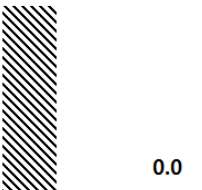

## □ 주제영역별 키워드 평가 : (8) 범죄

- 모니터링단이 확인한 기사가 유의미한 사례 수(N=30)가 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17-10〉 언론 - (8)범죄 주제 기사 문화다양성 키워드 평가 (%)

키워드 평가 (8) 범죄 (N=9, 복수응답 %)				
공감/ 소통	고정관념		소통	
				
	고정관념(편견) 타파	고정관념(편견) 노출, 강조/확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소통 단절

## 제2장 본론

동등/ 공존	다름/차이		평등	
				
	다름(차이) 이해/배려, 다름(차이) 극복	다름(차이) 몰이해, 차별적 표현/용어 사용	평등/불평등 인식, 평등 추구	특정문화 배척/배제, 특정문화 강요
융합/ 발전	갈등		문화적 수용/통합	
				
	갈등의 원인 파악/문제제기	갈등의 결과만 강조	문화적 수용/ 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사회통합	문화적 왜곡 , 특정집단/ 문화로 분리, 비하/희화화

## 제2장 본론

## 제2절 : 문화다양성에 대한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사례

(※ 참고) 전체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 개요

〈표 18-1〉 분야별 모니터링 대상

분야	주제	프로그램/ 기사 수	모니터링 일지 수
방송	세대(실버, 청소년)	5개	64개
방송	장애인	6개	58개
방송	타문화(여행, 지역)	7개	55개
방송	타문화(이주민)	5개	68개
방송	새터민	4개	65개
방송	성별/계층 기타	5개	66개
언론	세대(실버, 청소년)	24개	24개
언론	장애인	34개	34개
언론	타문화(문화, 종교)	32개	32개
언론	타문화(이주민)	109개	109개
언론	새터민	12개	12개
언론	성별/계층/학력 기타	136개	136개
언론	가족형태	36개	36개
언론	범죄	9개	9개

## 제2장 본론

## 1. [방송] 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 19-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1)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25)</sup>	비고 <sup>26)</sup>
MBC	늘 푸른 인생 (2003.5.4.)	(일) 오전 5시 50분	한 평생 함께 한 부부들의 정 깊은 이야기. 어르신들의 파란만장 인생사가 펼쳐지는 고향 토크쇼	종영
KBS1	청포도 (2014.8.16.)	(토) 오후 3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자신의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평범한 청소년이 어떻게 꿈을 찾고 노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10부작 다큐	방영 중
SBS	노장불패 (2012.3.3.)	(토) 오전 6시 5분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열정과 패기를 담아내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방영 중
SBS	내 마음의 크레파스 (2008.5.6.)	(수, 목) 오후 5시 30분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고민과 꿈,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초/중/고생들에게는 또래 친구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	방영 중
KBS	해피선데이 (2004.11.7.)	(일) 오후 4시 50분	활력충전 100%, 행복충전 100%	방영 중

25)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26)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19-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1)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모니터링 요원	늘 푸른 인생	청포도	노장불패	내 마음의 크레파스	해피선데이
A	1월1편,9월1편	8월16일1회	7월2편	6월2편	1~10월 중 1편 선택
B	2월1편,10월1편	8월23일2회	8월2편	7월2편	
C	3월1편,8월1편	8월30일3회	1월2편	8월2편	
D	4월1편,7월1편	9월13일4회	2월2편	1월1편, 9월1편	
E	5월2편	10월4일5회	3월1편, 9월1편	2월1편, 10월1편	
F	6월2편	10월11일6회	4월1편, 10월1편	3월1편, 9월1편	1~10월 중 2편 선택
G	7월2편	-	5월2편	4월1편, 10월1편	
H	8월2편	8월 30일3회	6월2편	5월2편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 ' 청포도 ' 1회
- 키워드 : 고정관념(편견) 타파, 다름(차이) 이해/배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새로운 문화 창조
- 프로그램 내용요약
  -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 '안재훈'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청춘의 미래가 되다! 1998년 단편 애니메이션 <히치콕의 어떤 하루>로 데뷔한 고졸 출신 애니메이션 감독, 안재훈 씨는 지난 2003년 '연필로 명상하기' 라는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수십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개봉한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려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었다. 또한 2014

## 제2장 본론

시카프(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개막작품으로 한국의 대표 단편 소설을 들고 나온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안재훈 감독은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늘 자신의 스튜디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 이미 14년 전, 그의 멘티가 되어 애니메이션 산업에 뛰어들었던 후배들도 이제는 독립프로덕션을 설립해 창작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미국의 대학생도, 레바논의 청년도 안재훈 감독을 찾아와 이곳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가 되는 과정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
- 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창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애니메이터' 라는 꿈을 가지고 이곳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도전하겠다는 아이들의 도전을 격려해 왔다. 어린 시절부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키워왔던 아이들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또 미래가 되기를 함께 바라고 있는데, 2014 시카프 '청소년애니메이션공모전' 에서 은상을 수상한 소정아와 친구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진학이 아니라 '경험을 쌓는 것' 이라고 고백한다. 당당한 여름을 시작하는 어느 날, 소정아는 언젠가 자신의 학교로 찾아와 '애니메이터의 진로' 로 강의를 해주었던 멘토 안재훈 감독을 찾아 간다. 과연 나는 애니메이터로 재능이 있는지, 또 개성이 있는지 고민을 들고 찾아온 열여덟 고등학생의 소정아에게 멘토 안재훈 감독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

## - 프로그램 총평

- 안재훈 감독과 직원들은 애니메이션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서 문화를 융합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민주적인 방식의 협의과정을 볼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생소한 시청자에게 그림, 설명, 자막,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출연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했다. 김소정 예고 학생 등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안재훈 감독과 직원들의 태도는 학생이라고 해서 상하를 나누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멘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제2장 본론

-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큐멘터리지만 지겹지 않았고 안재훈 감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 즐거움 시청이 되었다. 학력보다는 열정이라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잘 녹아낸 프로그램이었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캐릭터의 개발과정을 만화와 자막, 성우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는 장면
      - 애니메이션영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만화와 자막·내레이션으로 설명함으로써 생소한 분야의 애니메이션영화의 이해를 쉽게 해주어서 첫 시작부터 흥미를 유발하여 공감하도록 하였다.
    - 2) 전체 회의 시간 대사 리딩 등을 하면서 선입견 없이 웃으며 소통하는 장면
      - 상하, 권역관계가 아닌 진정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장면이다.
    - 3) 김소정 학생이 안재훈 감독에게 조언을 듣는 장면
      - 안재훈 감독이 존댓말로 칭찬을 해주면서 진심으로 멘토하는 모습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이 느껴졌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캐릭터보다 배경이 더 눈에 띄지 않게 작업을 한다고 말하는 장면
      - 누구나 자신이 애를 쓰고 만든 그림이 더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배경을 만들기 위해 책과 여러 역사적인 자료로 고증을 하면서 중요한 주인공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배경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 2) 스튜디오의 직원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장면
      - 학생들의 작품이지만 진지하게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함께 보는 모습에서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소중한 날의 꿈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스튜디오에

## 제2장 본론

- 서 일하게 된 레바논인 패트릭의 사연이 나오는 장면
    - 서로 다른 문화권의 패트릭과 안재훈 감독이 만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개성을 없애지 않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워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잘 그려냈다.
  - 2) "좋은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잣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박진아 직원의 인터뷰 끝에 나온 내레이션
    - 이 부분의 내레이션은 이 프로그램의 주제를 나타내는 말인 듯했다. 진정한 발전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열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전체 프로그램의 방향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다가 출연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감동이 있는 장면이었다.
  - 3) 김소정 학생이 기타 치는 거리의 가수를 그려 그에게 주는 장면
    - 서로가 다른 분야의 두 사람이 예술로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 각자가 더 발전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장면이었다.
  - 4) 직원들과 안재훈 감독이 풍물시장 및 여러 곳을 답사 다니는 장면
    - 한사람의 독선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서로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과정을 중시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 '노장불패' 129회
  - 키워드 :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 재생산, 고정관념(편견) 타파, 다름(차이) 몰이해, 다름(차이) 이해/배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특정문화 강요, 문화적 수용/조화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충남홍성 게이트볼 연합회 노장불패 2부
    - 김종연, 김정태씨와 가수 김국환씨가 '모두 함께 뛰어' 라는 재미있는 게임 코너를 만들었다. 이정순, 서광철씨가 자신들한테 의미 있는 물품을 사진 찍고, '도전 300점을 넘겨라' 에서는 윤경혁, 이건자, 최연수씨가 열창을 하셔서 무사히 도전을 끝마쳤다. '동네 진품명품' 도 선보였고, 끝으로 '물 대접 옮기기' 에서도 상대팀을 이겨 무사히 상금 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피날레는 김국환씨 노래로 끝을 맺었다.

## 제2장 본론

## - 프로그램 총평

- 출연자들의 밝은 모습과 활기찬 노년을 표현한 점은 좋았으나, 여전히 출연자보다는 가수 게스트에 좀 더 집중한 모습이 아쉬웠다. 게임들도 너무 단순하였고, 집중도도 낮아 보였다. 한 가지 게임을 해도 출연자들이 정말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승부를 걸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 있었으면 좋을 듯싶다.
- 게스트로 나오는 가수에 비해 주민들이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연 있는 출연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 - 세부 내용

##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모두 함께 뛰어’ 라는 게임에서 참가자로 나오신 김종연씨가 키가 안 돼서 풍선을 못 터뜨리고 있자 가수 김국환씨가 옆드려서 자기 등을 밟게 해서 풍선을 터뜨리는 장면.  
→ 서로가 협조하는 장면이 서로 공감대가 있어보였고, 김국환씨는 가수여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듯한데 재미와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옆드리는 수고를 하는 점에서 출연자와 가수 김국환씨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 2) ‘동네 진품명품’ 에서 봉사상을 받은 정덕성씨의 경쾌하게 춤을 추는 장면  
→ ‘동네 진품명품’ 코너에서 봉사상을 받은 정덕성씨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넘치는 끼로 춤을 보여주셨다. 어르신들은 젊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찌 보면 막춤이지만 경쾌한 춤을 보여주시면서 그 코너의 관객들과 그 코너의 사회자들을 흥겹게 만들었다.

##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도전 300점을 넘어라’ 코너에서 윤경혁씨가 카바레에 다닌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다 같이 지르박, 탕고 등 춤을 추는 장면  
→ 윤경혁씨는 일흔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상처한지 22년이 되셨다. 그분의 취미는 카바레 다니기였는데, 카바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 제2장 본론

수 있는 곳을 윤경혁씨는 아주 건전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렸고, 칠십 넘은 할아버지가 카바레에 다니시면서 지르박이나 탕고를 춘다는 점이 신선해 보였고, 게이트볼 회원님들도 다 함께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건강하게 표현되어 인상적이었다.

- 2) 배동성 MC가 ‘여자 친구가 생길 수 있다.’ 로 소리를 한번 내 보시라고 이야기 하는 장면

→ 일흔이 넘어서 여자 친구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연한 욕구이고, 그 욕구를 이해하고 MC가 소리 한번 내보시라고 말하는 장면은 무척 좋았다.

##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도전 300점을 넘겨라’ 코너에서 출연한 이진자 부부. 애처가인 남편과의 대화에서 이진자씨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사랑한다는 대화  
→ 보통 고생한 아내가 출연하는데 이번 회에서는 살림을 잘 못하는 아내 대신 남편이 살림을 많이 도와준 애처가 남편이 출연.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남편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는 연세가 많으시면 남녀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SBS '내마음의 크레파스' '113회'
- 키워드 : 다름(차이) 이해/배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문화적 수용/조화, 새로운 문화 창조, 갈등의 원인파악/문제제기, 갈등의 해소
- 프로그램 내용 요약
  - 경상남도 창원시. 16살 윤화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각종 노래대회에 나가 상을 휩쓴 소년. 멋진 미성과 고음, 풍부한 성량을 가진 친구. 그리고 그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젊었을 적 꿈인 가수였던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윤화를 가르치면서 응원하고 있다.
  - 하지만 윤화에게 변성기가 오고 윤화의 고음과 미성은 지금 들을 수 없다.

## 제2장 본론

목소리가 변해버린 윤화. 아버지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고 다른 진로를 찾아 보자 하지만, 윤화는 지금 성장과정인데 아버지의 그런 생각이 못내 서운하다. 하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누나와 자신의 1호 팬인 아마추어 작가 강진화 씨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로 홀로서기 연습에 들어가는 윤화

- 사이가 멀어졌던 아버지도 가족과의 대화로 인해 마음을 돌리고, 윤화에게 사과하고 두 사람은 아버지가 원했던 거리공연을 다시 시작하면서 화해한다. 윤화는 노래 연습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음악공부를 하기로 결심한다.
- 윤화는 집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체력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700m의 산을 오르내리고 그 위에서 발성연습도 한다. 이 고전적인 방법은 실제로 어렸을 적 가수를 꿈꿨던 아빠가 했던 방법인데, 윤화의 아빠는 자신이 못 다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
- 가수의 꿈을 위해 노력하던 윤화에게 변성기가 찾아오고, 누구나 겪는 성장 과정이지만 노래하는 윤화에게는 당장 바뀐 목소리 톤부터가 걱정이고 자기에게 맞는 음악 스타일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아빠는 예전 같지 않은 윤화의 목소리에 가수를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모색해보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그런 아빠의 말에 속상함을 느끼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점차 심해진다.

## - 프로그램 총평

- 자신의 젊었을 적 꿈을 재능 있는 아들을 통해 실현시키고 싶은 아버지. 그 아버지 뜻을 잘 따르던 아들. 하지만 변성기가 와서 아들이 목소리가 변하자 일련 다른 길을 모색하는 아들과 계속 가수의 길을 가고 싶은 아들의 성장과정을 기승전결과 설득력 있게 잔잔하게 잘 담은 작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의 변성기를 받아들이고 아들이 음악가로 나갈 수 있게 한발자국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아버지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품격을 느꼈다.
-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중3짜리 소년이 벌써부터 가수를 한다고 이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걸맞은 들었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가족들의 모습에서 유난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음악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었고 자식을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연구

## 제2장 본론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또한 윤화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과정도 설득력 있게 그려졌다. 자식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아버지도 가족들의 대화와 아들의 모습에서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고 아들과 화해하는 장면까지 그려져서 좋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버지가 너무 웅고집이고 괴짜처럼 그려졌다는 것이다. 계속 가수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설득력 있는데 그 모습은 생략된 것이 아쉽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산에 올라서 발성연습을 시키는 모습. 아들이 왜 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도움이 된다니 한다. ‘구식 같았지만 산에서 하는 연습으로 발성이 좋아졌다’ 라는 인터뷰.
 

→ 아들은 ‘아버지의 방식이 너무 구식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함으로써 발성과 성량에 훨씬 좋아졌다.’ 고 하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 아들의 목이 건조해지지 않을까 싶어 젖은 수건을 방안에 걸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 아들은 변성기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고 목이 많이 건조해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 젖은 수건을 걸어주는 장면은 아들에게 다른 진로를 찾아보자고 말하지만 아들의 꿈을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낌.
  - 3) 아들에게 쉽사리 진로를 바꾸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
 

→ 아들에게 노래는 취미로 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지만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이야기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과 소통하는 아버지가 그려져서 좋았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누나가 윤화한테 김밥을 먹으면서 ‘돈은 낮아졌지만 감수성이 더 풍부해졌으니 너한테 맞는 노래를 찾아봐라’ 대화내용.



## 제2장 본론

→ 누나가 변성기로 목소리가 변한 동생을 격려하면서 실질적인 좋은 조언을 해 주는 장면에서 공존이 느껴졌다.

- 2)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엄마가 아빠한테 ‘다른 진로모색은 성급하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 다 성장과정인데 다 부모욕심이다.’ 라는 대화에 아버지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자고 해서 미안하다. 음악에 몰두하자’ 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 어머니가 부모욕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격려 해주었고, 아버지 역시 어머니 말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아들에게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윤화가 자신의 1호 팬의 개인전 전시 축하를 열심히 부르는 장면.  
→ 아버지로부터 조금씩 독립해가면서 어른으로써 성장해가는 윤화를 볼 수 있었다.
- 2) 변성기 목소리를 녹음하는 장면, 앨범 재킷 사진을 찍는 장면.  
→ 자신의 변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발성조차 어려움에도 앨범 녹음을 하려는 윤화와 그것을 도와주는 강진화씨. 그리고 실제 가수처럼 앨범재킷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강진화씨를 통해 윤화가 한발자국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3) 가족회의 중 송화가 윤화에게 ‘네가 다른 음악, 노래만 할 것도 아니니까 그 시간동안 기타를 좀 더 발전시키거나 피아노를 배워보거나 작사, 작곡을 해봐’라는 대화.  
→ 누나의 조언은 실질적이었고, 발전적이었다. 또 그런 누나의 조언을 듣고 실행해 옮기는 윤화의 모습에서 가수로 한발자국씩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4) 길거리 공연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동환의 ‘묻어버린 아픔’을 부르고 서로 포옹하는 아버지와 아들.  
→ 목소리가 변한 아들이 안타까운 아버지와 성장과정을 일부로 받아들이는 아들. 둘 사이에 약간의 다툼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

## 제2장 본론

고 받아들이고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발전하게 가꿔주고 지원해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은 두 사람이 함께 커가는 느낌이었다.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19-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1)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KBS	노장불패	2 회	어르신들께 게임을 통한 즐거움 제공, 마을의 특산품과 요리 코너를 통한 마을 소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미술시간과 연계한 고민해결 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MC들 또한 어르신들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에 계속해서 호응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졌다.
		5 회	어르신들의 노년이 즐겁고 힘차 보인다. 함께 협동하고 즐기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코너 각각에 충분히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아직 곁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곳곳에 배어 있다. 형식적인 즐거움이 지속되면 그 즐거움은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더 세심한 내면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40 회	어재리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재미있었고, 시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준 동네 형님과 친구를 모셔서 음식을 한상 차려 같이 먹는 할머니의 모습이 특히 세대를 넘어서야 하는 오늘의 과제에서 부러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는 더 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어서, 지속되기를 바란다.
		553 회	어르신들의 운동회 같은 느낌을 주면서 어르신이라는 특정 계층을 고려하여 게임의 종류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을 고려하고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게임을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건강운동이라든지(손박수) 스트레칭 등을 넣어 함께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이들을 위한 게임은 많으나 어르신

## 제2장 본론

			들을 위한 게임이 많이 없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없나 고민하게 된다.
		569 회	각보다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구성되어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즐기기 적합한 수준으로 제작된 것 같아 직접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TV를 통해 보는 어르신 모두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570 회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프로그램 구조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버라이어티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노인과 아이가 함께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감동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 수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다. 젊은 세대가 과연 조부모, 부모와 함께 이런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포도	579 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프로그램 중반부부터 계속되는 퀴즈코너에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장기간 서있을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확인한 결과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글들이 몇 개 보였다.
		4 회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으뚱으로 살고자하는 학생들, 그 으뚱이 목표를 향한 피나는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선사하고 싶다.
		131 회	아직 어린 청소년인데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서 깜짝 놀랐고, 플로리스트의 다양한 면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부모와 조부모 세대와의 연결 고리로 다루고 있어서 좋았다.
MBC	늘 푸른 인생	5 회	어르신들을 모셔 토크쇼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새로웠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좋았다. 또한 앞에 실제 주민들을 모셔 놓고 이야기를 하니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리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104 회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담은 프로그램은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진행자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뿐 새로운 시각을

## 제2장 본론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보완된다면,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다.
		117 회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었고, 고루하게 느껴졌지만 어르신들의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인터뷰에서 삶의 향기가 느껴졌고 몽글한 장면도 꽤 많았다. 우리 삶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서 더욱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을 듯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인터뷰로 약간 지루함도 느꼈고, 강원도 정선을 보여준 방식, 예를 들어 누구나 아는 정선 아리랑, 토종꿀, 곤드레밥 외에 특색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았다. 좀 더 그 동네를 잘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394 회	사실 연령대의 차이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가 느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촬영을 하고 즐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분들께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크나큰 즐거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415 회	전체적으로 감동을 주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프로그램이 거의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세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과거와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따뜻한 사랑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에 존재해 있고 가득하다. 눈물 나는 곱고 아름다운 무궁화 마을의 어르신들이다.
		452 회	지금 60 대 이상 나이를 드신 어르신 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은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특히 몇 번 만나지도 않고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하거나,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남편을 속절없이 기다리고 다시 받아준 할머니의 사연은 지금 세대에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고와 그런 사고를 갖게 된 세대관, 그 세대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해볼 수 있는 것 같다.
		507 회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봤다.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드려야겠다. 요즘 젊은이들보다 때 묻지 않은 어르신들이 나와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다 담겨져 있어 좋았다. 방송을 보며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은 여자가 당연히 참아야 하며 여자가 감수해야할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현대사

## 제2장 본론

SBS	내 마음의 크레파스		회와 비교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사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인내하며 참고 지내야한다는 생각을 요즘 젊은이들도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561 회	황금빛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러나 방송 분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려는 부분이 다소 마음에 걸렸다. 끝까지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 풍부한 사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572 회	어르신들의 즐거움과 애환, 어르신들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살아온 고단한 삶이 보이는 듯하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도시의 자녀들이 따뜻하게 시청할 수 있는 즐겁고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마음의 크레파스	1 회	방송 분량이 삼십분 밖에 되지 않고 주요 에피소드는 유빈이와 안내견 세모가 친해지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안내견에 대한 상식을 많이 보여준 것 같다. 또 겉모습과 다르게 아직 어린 아이인 유빈이의 감정 상태를 잘 표현한 것 같다.
		122 회	영빈이를 보면서 우리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그때도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나는 잔소리로만 들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말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 싶어 좀 더 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니 아이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 공감백배였다.
		426 회	나 역시 초등학교 때에는 천방지축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실례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초등학교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그 밖에 안내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보성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견을 돌보는 점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안내견 세모의 이야기에 있어 유빈이 부분만 강조된 것 같아 아쉽다. 유빈이와의 갈등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전반적인 예비 안내견인 세모의 이야기를 보여줬어도 좋을 것 같다.
		436 회	12살 영빈이를 통해 그 또래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 또래 아이를 가진 부모의 고민도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만을 하려고 집하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동감하고 봤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니터

## 제2장 본론

			링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49 회	성훈이의 고민이 사춘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느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성훈이의 모습을 통해 이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세밀히 보면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찾을 때 하는 일반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코치님 등의 어른들의 말보다는 학교친구, 같이 스케이트 하는 친구 등의 인터뷰가 좀 더 들어가서 성훈이를 다른 쪽에서 이해하는 장면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제2장 본론

## 2. [방송]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20-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2)장애인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27)</sup>	비고 <sup>28)</sup>
MBC	함께 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2010.7.21)	(목) 오전 1시 5분	다양한 형태의 기부방법을 알리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즐겁게 기부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방영 중
MBC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2010.7.21.)	(수) 오전 5시 10분	장애인들의 장애는 차이일 뿐 장애가 될 수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종영
KBS1	사랑의 리퀘스트 (2001.2.10.)	(토) 오후 6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의 사연을 다양 한 시선으로 따라가며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인간애를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	방영 중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2003.5.10.)	(월, 화) 오후 5시 35분	장애와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아와 가난 때문에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선정,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연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휴먼 솔루션 다큐멘터리	방영 중
EBS	희망풍경 (2006.6.3.)	(토) 오전 6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받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방영 중
KBS1	사랑의 가족 (2000.7.22.)	(토) 오전 11시	장애계 소식 및 생동감있는 현장, 현안이 되고 있는 시사적 내용을 포함해 소개	방영 중
KBS2	개그콘서트 (1999.9.4.)	(일) 오후 9시 50분	매주 새로운 개그를 통해 웃음을 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방영 중

## 제2장 본론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20-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2)장애인 관련

모니터링 요원	함께 사는 세상 희망프 로젝트 나누면 행복	장애인 희망프 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사랑의 리퀘스 트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 운 여행	희망 풍경	사랑의 가족	개그 콘서트
A	1월1편 9월1편	1월 162회 4월 177회	1월1편	5월1편	5월1편	1월~10 월 중 1편	-
B	2월1편 10월1편	2월 168회	2월1편	6월1편	6월1편	1월~10 월 중 1편	1월~10 월중 1편
C	3월1편 9월1편	3월 171회	3월1편	7월1편	7월1편	1월~10 월 중 1편	1월~10 월중 1편
D	4월1편 10월1편	4월 175회	4월1편	8월1편	8월1편	1월~10 월 중 1편	1월~10 월중 1편
E	5월1편	5월180 회	5월1편	1월1편 9월1편	1월1편 9월1편	1월~10 월 중 1편	-
F	6월1편	1월 165회	6월1편	2월1편 10월1편	2월1편 10월1편	1월~10 월 중 1편	-
G	7월1편	2월 170회	7월1편 9월1편	3월1편	3월1편 9월1편	1월~10 월 중 1편	-
H	8월1편	3월 174회	8월1편, 10월1편	4월1편	4월1편 10월1편	1월~10 월 중 1편	-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MBC '함께 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68회
- 키워드 : 고정관념(편견) 노출, 고정관념(편견) 강조/확대 재생산, 소통 단절
- 프로그램 내용요약
  - “뛰어노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어요. 병이 다 나으면 축구시합을 하고 싶어

27)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28)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요.” 열한 살 승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롭게 걸어본 적이 없다.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 때문이다. 신경섬유종증은 피부질환과 골격, 신경계에 기형을 일으키는 선천적 병이다. 엄마는 승모를 낳고 아이의 피부에 커피색 반점이 있는 걸 보자 병이 유전된 걸 알았다. 아직 피부 반점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엄마와 달리 승모는 생후 7개월 무렵 신경섬유종증으로 정강이뼈에 기형이 생긴 ‘선천성 경골 가관절증’을 진단받았다. 나쁜 병을 물려줬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엄마.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 주는 승모가 커서 유전병인 걸 알고 원망하지는 않을까 두렵다. 만 22개월에 첫 수술을 시작으로 벌써 13번째 수술을 받은 승모. 성장이 끝날 때까지 다리뼈를 이식하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계속 받아야 한다. 매년 2~3백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비용... 아빠는 일용직으로, 엄마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벌고 있지 만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일하느라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승모를 휠체어에 태우고 등·하교를 시켜준 건 승모의 할아버지. 건강한 형, 동생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아픈 손자가 안쓰럽기만 하다. 아직은 목발과 보조기가 없으면 몇 걸을 걷기도 힘들지만, 언젠가 건강해진 두 다리로 축구시합을 하기를 꿈꾸는 승모에게 많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 희망일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한 아동센터 선생님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간 곳! 그곳에서 단칸방에 사는 열두 살 지영이와 열 살 지원이 남매를 만날 수 있었는데... 2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의 보살핌 없이 아빠와 함께 살게 된 아이들. 하지만 지방에서 트럭운전을 하는 아빠는 일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어린 두 남매는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서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지영이와 지원이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희망일촌이 두 팔 걷고 나섰다! 정리되지 않았던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일일 엄마, 아빠로 변신한 MC와 함께 두 아이의 가장 큰 바람인 한강 나들이도 갔다. 즐거운 시간을 갖는 동안 정리정돈 전문 봉사자들과 MC정진수는 아이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집안 대청소를 진행했는데... 과연 변화된 집은 어떤 모습일까? 두 남매가 소중한 추억을 만든 시간을 희망일촌이 함께 했다!
-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 오늘의 나눔&피플에서는 그들에게

## 제2장 본론

세상을 읽어 주는 착한 목소리를 만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MBC 성우들! 바쁜 일을 잠시 접어 두고, 매달 한 번씩 꼭 모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이다. 이곳에서 ‘소리 잡지’를 녹음하고 있는데, ‘소리 잡지’는 기존의 잡지에서 좋은 꼭지들을 모아 음성 파일로 만든 월간 잡지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좋은 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잡지뿐 아니라 화면 해설 영화도 녹음하고 있어, 영화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도서 낭독의 경우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해 벌써 17번째 낭독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할머니도 있다. 녹음이 끝난 며칠 뒤, 성우들은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 시설을 찾았다. 미리 녹음해둔 도서 테이프를 전달하고, 직접 동화책도 읽어주기 위해서다.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자, 아이들이 신나게 웃는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큰 기쁨이 되고 봉사를 계속할 힘이 생긴다는 성우들. 시각장애인의 소중한 빛이 되길 바라며 목소리를 기부한 봉사자를 〈나눔&피플〉에서 만난다.

## - 프로그램 총평

- 승모가 앓고 있는 신경섬유종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산정 특례나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 돼 있는데 방송에서 후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알려 주고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 문제점도 짚어 줄 수 있으면 좋겠음.
- 트럭운전을 하느라 아버지가 오래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 그 정도 언급만 돼있지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방치해야만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며 집 안이 그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환경이라면 방치나 학대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승모네에 대한 물질적 후원독려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엄마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더해졌다면 시청자들에게도 장애나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음.

## - 세부 내용

## 제2장 본론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권혁수 성우와 시각장애인 독자 반갑게 만나는 장면.  
권혁수 인터뷰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오는 마음이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 봉사를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더 많이 가진 입장에서 베풀고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나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 2) 권혁수, 한경화 성우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을 찾아 시각장애인 아이들과 반갑게 만나 빵을 나눠 주면서 하나하나 빵을 설명하고 나눠주는 모습.  
“반달 모양인데 안에 녹색 팔 들어 있는 거...”  
→ 가지고 온 선물을 그저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빵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권을 주고 일방적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빵을 기쁘게 받는 아이들 모습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소통과 배려의 모습을 보았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얼굴과 사물을 만지고, 점자를 읽는 손 화면 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시각장애인은 조금 특별하게 세상을 만납니다.” 내레이션.  
시각장애인 아이 인터뷰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들어요”  
→ 시각장애를 어두운, 안타까운 등의 수식어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우리와 보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로 표현한 것이 공감을 줌.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MBC '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177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장애인 대상 전문 프로그램.
  - 177회 주요 방송내용
    - 1) 코너 1. 행복한 밥상-이웃집 내 친구
    - 2) 코너2. 장애인인권향상 프로젝트-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

## 제2장 본론

- 3) 코너 3. 우리들의 희망노트-하모니카로 부르는 희망 멜로디
- 4) 코너 4. 여행의 발견-가볍게 떠나는 행복여행

## - 프로그램 총평

-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현실적 문제들의 원인과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사회의 인식이나 그 인식을 통해 변화된 모습들을 담아내 인식개선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원인파악과 문제제기, 수용과 조화가 두드러짐.
-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의 모델링을 제시함. 그러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내레이션보다 빠르게 표시돼 혼란을 줌. 형식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코너1,2,3,4. 임복덕/시각장애인, 임석규/지체장애인, 표형민/시각장애인, 박운영/지체장애인. 소개 화면의 자막표시  
→ 대부분의 경우 의학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까지 표시하는데 반해 장애 유형만 표시되어 인상적임. 긍정적 변화로 보임. 각 코너의 전체 내용에서도 장애유형을 표현하거나 등급까지 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장애인들의 이슈에 민감해진 것 같아 인식개선에 도움 될 듯.
  - 2) 코너1. 임복덕씨가 집 안 청소를 하는 첫 장면: 임복덕씨 인터뷰장면.  
“집구조가 몸에 익숙하니까 다 알잖아요.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가 놓는 대로 물건을 놔야지 내가 찾죠. (마루를 닦으며) 손으로 감각으로 해요.” 손수 화초에 물도 주고, 나뭇잎을 닦아주는 모습.  
임복덕씨가 이웃집 친구가 고마운 이유를 말하는 장면. “안 보이니까 김치도 담그다가 고춧가루색깔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부탁해요.)” 이웃집 친구 분의 설명과 함께 꽃구경도 하고 나뭇잎도 만져보는 모습.  
→ 주부로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으로 먼저 인식됨. 인터뷰 내용에서 시각

## 제2장 본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무엇보다 장애는 내 몸의 한부분이어서 익숙해지고 보조 시스템만 있으면 일상생활에는 그리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3) 코너2. 첫 장면. 보호자 인터뷰: “장애인 전문치과 의사선생님들은 일반 치과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생각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장애인 전문병원을 찾곤 하지요.”  
내레이션: 장애인 환자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고 날카로운 기구와 소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간단한 치료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대부분 치과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장애인 환자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병원이용이 어려웠던 청각장애인 환자 인터뷰: “예전에 통역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필담으로 하거나 언니와 동행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 장애인, 보호자, 의사 등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며 장애인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킴. 특히 의료전문 수화통역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짚어주어 시청자에게 인식시킴.

- 4) 코너4. 관악산 무장애 숲길 소개 장면  
→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이 있음을 알려줌.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코너1. 요리사가 임복덕씨를 위해 칼을 쓰지 않고 주먹밥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는 모습  
→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보는 모습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동의 첫걸음임
- 2) 코너2. 일부 일반 병원의 장애인 환자의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어 정확히 짚어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화장실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 폐문으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잘못된 점자블록 사례의 사진 보여줌), 여담이문으로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입구 등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입장과 의사입장에서 의료전문 수화통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의료전문 수화

## 제2장 본론

통역사가 상주하는 병원은 10군데도 채 되지 않는다는 내레이션  
→ 장애인의 병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 문제의 원인과 다양성 존중, 차별적 현실을 인식하도록 잘 구성된 장면이었음. 제작진이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됨. 양측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음. 시청자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편견으로 가지지 않도록 잘 전달함.

- 3) 코너4. 용꿈 꾸는 작은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의 책읽기를 위한 보조기구들과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소개하는 장면. 무장애 숲을 올라가기 전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장면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 노력을 조명하고 이런 노력이 결국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킴.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Ending 장면. 새싹을 느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새싹을 만져보게 하는 모습과 내레이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봤다가 못 보게 된 사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함.
- 2) 장애인 전문치과 의사들의 장애인 전문치과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맞춤형 치료방법 등을 이야기 하는 인터뷰 장면. 특히 “ 장애인환자 한분을 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 진료에 대한 현실적인 의료 수가 정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 없어요.”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  
→ 장애 특성별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전문병원의 중요성과 열악한 지원 등을 알려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게 함.
- 3) 무장애 숲길을 기획하고 완공시킨 관악산 관리소장의 인터뷰장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완공시켰고, 지금도 장애인들이 의견을 반영해 하나하나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 제2장 본론

→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새롭고 발전적인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것임을 전파시킴.

##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20-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2) 장애인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MBC	나누면 행복 - 함께 사는 세상 프로젝트	163회	입양이나 농촌 아촌 등의 이주 문제로 폐교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자원 활동가를 소개하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적 조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재능기부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방송 모두 제공되고 있어서 장애가 있는 시청자에 대한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과 몰이해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도 있어서 기획의도를 살려내지 못하고 대부분이 일시적 지원이나 이벤트성으로 그칠 수 있어서 아쉬웠다.
		172회	1) 달려라 형만씨 - 아빠의 장애, 아이의 기형, 필리핀 엄마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구성원이라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일도 하지 않고 무능하며 자식을 왜 낳아서 키우는지 절대 키울 수 없으니깐 낳지 말라고들 한다. 그러나 달려라 형만씨 프로를 보고 나면 부모 마음은 다 같으며,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가족을 보면서 따뜻해짐을 알 수 있으며, 희망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인식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2) 청소년을 위한 희망포차 - 가출 청소년들은 다들 불량학생으로 사람들은 인식한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대화하려는 것, 청소년들이 사회든 가정이든 따뜻함을 알 수 있도록 희망포차를 만들어 함께 하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듯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임.
		183회	나눔이라는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작진들의 의도가 잘 드러난 방송이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 방송이었다. "나누면 행복"이라는 방송 타이틀답게 나눔의 가치를 잘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189회	전반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과 따뜻한 시선을

## 제2장 본론

			<p>없지 않았다. 다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다 보니 수혜층을 지나치게 대상화한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입장임을 잊지 않아 차별적 시선이 되는 것은 피했다. 실질적인 사회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아, 안타까운 사연이거나 소소한 미담에 그친 것은 프로그램 성격의 한계인 것 같다. 무난한 연출의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을 강요하는 BGM이나 시각효과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려다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화다양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객관적인 연출이 필요할 듯.</p>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171회	<p>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또 잘못된 편견과 무지들이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애인이 편하면 누구에게나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장애인하면 누구나 받기만 하는 존재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도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EBS	희망풍경	394회	<p>우기씨네 구두공장 스토리는 중도장애를 가지고서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애를 가진 사장님.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장애인으로 우기씨의 삶은 보기에 좋았고 본받고 싶었다. 우기씨는 장애를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나누며 함께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장애는 몸의 장애가 결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 할 때 멋진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
		692회	<p>지체 장애 1급의 이정희씨의 이야기를 20여 분의 방송에 잘 녹여낸 것 같음. 여느 일반인들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편,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또한 함께 풀어냄으로써 한 편으로는 마음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정희씨의 삶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방송이었다.</p>
		721회	<p>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 박명수씨의 아버지로서의 삶, 즉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과 본인을 위해 본인을 가꾸는 모습이 함께 보이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연출된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명수씨의 삶 중 아름다운 부분, 즉, 단면만 보여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프로그램의 본질적 한계가겠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점이 보였다. 특히 박명수씨의 아내 이야기(자식들이 결혼하자마자 갈라섰다는)는 아주 짧은, 연출 스스로도 언급하는 것이 불편해 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간략하고 짧다. 삶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p>



## 제2장 본론

SBS	아름다운 그녀, 희망의 목소리	174회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장애 인권을 지키려는 태도가 일관되었다. 표피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 문제도 언급한 적이 유의미했다. 다만 첫 번째 코너와 네 번째 코너 같은 경우 장애인권이라는 전체적 주제와 크게 관통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 일관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기도 했다.
		697회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인물들은 소통과 공존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몇몇 지나친 탐미적 표현이나 성차별적 언급이 거부감을 주었다. 그러나 위의 노력들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시각을 견지하려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융합/발전에 대한 제시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 기존 일반인의 영역에 편입하려는 노력으로밖에 비치지 못한 것 같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597회	골덴하르증후군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정보부족과 사회적 제도가 부족해서 가족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있는 가정의 생활고와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을 엿볼 수 있다. 아직도 장애인 하면 불행, 고통, 절망으로 미디어에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힘들지만 많은 제도와 자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더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613회	초등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원에서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진정한 친구,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이라는 아동복지센터의 메시지를 참 잘 그려냈던 프로그램이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멕시코 음식을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타문화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했다는 점이 참 좋았고, 아이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

## 제2장 본론

## 3. [방송] 타문화-여행, 지역소개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21-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3)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29)</sup>	비고 <sup>30)</sup>
MBC	여행남녀 (2014.4.7.)	(월) 오후 6시 20분	현지인만이 알 수 있는 일상적이고 디테일한 문화를 남자와 여자의 시선으로 각자 공감, 교류하며 나만의 여행을 떠나본다	종영
MBC	월드리포트 (2013.3.23.)	(토) 오전 7시 30분	지구촌 소식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개하는 국제뉴스 전문 프로그램	방영 중
KBS1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2013.8.21.)	(일) 오전 10시	오락적인 리얼을 지양하고 낯선 곳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인간의 모습을 연출 없이 지켜보는 다큐 프로그램	방영 중
KBS	세기는 지금 (2012.3.3.)	(토) 오후 10시 30분	단발성 국제 뉴스 전달에서 벗어나 PD가 현장을 체험하고 보도하는 지구촌 소식	방영 중
JTBC	비정상회담 (2014.7.7.)	(월) 오후 11시	기성세대의 멘탈을 흔드는 비정상적이고 재기발랄한 세계의 젊은 시선 - 토크쇼	방영 중
EBS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2012.1)	(금) 오후 8시 20분	EBS와 월드비전 공동기획 글로벌 나눔방송	방영 중
MBC	무한도전 (2006.5.6.)	(토) 오후 6시 25분	대한민국 평균 이하임을 자처하는 남자들이 매주 새로운 상황 속에서 펼치는 좌충우돌 도전기	방영 중

29)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30)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21-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3)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모니터링 요원	여행 남녀	월드 리포트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세계는 지금	비정상화 담	글로벌 나눔 프로 젝트	무한 도전
A	4월1편	1월1편 9월1편	7월1편	5월1편	7월1편	3월1편	1~10월 중 1편
B	5월1편	2월1편 10월1편	8월1편	6월1편	7월1편	4월1편	1~10월 중 1편
C	6월1편	3월1편	1월1편 9월1편	7월1편	8월1편	5월1편	1~10월 중 1편
D	7월1편	4월1편	2월1편 10월1편	8월1편	8월1편	6월1편	1~10월 중 1편
E	8월1편	5월1편	3월1편	1월1편 9월1편	9월1편	7월1편	1~10월 중 1편
F	9월1편	6월1편	4월1편	2월1편 10월1편	9월1편	8월1편	1~10월 중 1편
G	10월1편	7월1편	5월1편	3월1편	10월1편	1월1편 9월1편	1~10월 중 1편
H	10월1편	8월1편	6월1편	4월1편	10월1편	2월1편 10월1편	1~10월 중 1편

## □ 긍정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 '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46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황보와 친구 최하나, 그리고 PD 2명이 각 200불로 떠난 세계배낭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 여행목적지인 이란은 공항에서부터 대사관의 입국 불허로 입국도 못한 채, 터키에서 모로코로 여행지를 변경하여, 모로코에서 좌충우돌 배낭여행한 이야기를 실었다.

- 프로그램 총평

- 단돈 200불로 천신만고 세계여행을 한 이야기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의 문화를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평등을 추구하는 정신이 깃

## 제2장 본론

들어있으며, 특히 황보의 타문화에 대한 친근함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행동은 진정한 세계시민의식을 보여주어 긍정적이었다.

- 황보의 자유롭고 소탈한 이미지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배척이 전혀 없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인드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나미스(알제리 여성)가 황보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한국어도 하고 ‘우리 결혼했어요.’ 에서 봤다고 한국프로그램 언급도 하며 사진을 함께 찍는 장면
    - 한국의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등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등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알제리 여성의 노력이 돋보인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이란 공항 도착할 즈음에 황보랑 친구가 히잡을 쓰고 내리는 장면
    - 히잡을 쓰는 것은 이란문화가 한국문화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다.
  - 2) 이란 공항 입국 불허 났을 때 황보와 기타 일행의 반응-입씨름이나 격한 장면 없이 영어로 소통하다 이란 공항 직원의 말에 수긍하고 여행목적지를 수정하는 장면
    -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보임.
  - 3) 공항철도역에서 만난 낯선 여성 나미스(알제리 여성)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는 황보
    - 황보와 나미스의 열린 마음, 세계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 4) 마라키시로 가는 열차 안에서 같은 칸 탑승객 5남매 엄마 게리나가 촬영거부를 했지만, 흔쾌히 촬영카메라를 맡기고 담당pd의 촬영기술을 칭찬하고 또 그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
    - 촬영거부는 갈등을 만들 수 있지만, 카메라를 맡기면서 갈등을 해소했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주었기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보인다.

## 제2장 본론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터키에서 출발하여 이란 공항 입국 거절당한 후, 어느 국가로 갈지 토론하여 결국 무비자국가 모로코로 결정한 장면
    -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문화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 2) (황보) “여기는 딱 모로코스타일, 그리고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라는 멘트
    -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특정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배척이 전혀 없는 세계시민의식이 돋보인다.
  - 3) 마라케시수크 전통시장에서 수공예품, 장식물들이 너무 예쁘다며 일행이 너무 사고 싶어 하는 장면
    - 그 나라 물품을 좋아하는 것은 그 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황보의 언행은 진심으로 와 닿았고 우리와 그가 아닌 모두 같은 문화가치로 인정하는 평등인식이 돋보인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JTBC '비정상회담' 11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올인하는 나, 정상인가? VS 비정상인가? 100대 1은 기본! 취업문 뚫기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 취업 전쟁이 시작됐다
  - 꿈의 직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올인하는 나, 정상인가? VS 비정상인가?" 외모도 중요한 스펙 중 하나? 각 나라의 입사지원서는? 취업을 위한 성형,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뜨겁게 불붙은 취업성형 찬반 토론!
- 프로그램 총평
  -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여나가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와 닿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다양성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현재 가장 최적합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한다.
- 세부 내용

## 제2장 본론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미국의 타일러는 한국에서 인턴십을 찾는데 이력서에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직종의 이력서든 사진첨부가 필수인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꼭 필요한 직종 이외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종, 성별, 외모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 다른 나라 이력서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매우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이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그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 부당함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래서 글로벌한 소통과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할수록 내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으면 비율이 좋다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머리가 크면 똑똑하고 보기좋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너무 마르면 여성스럽다고 게일로 오해 받는다. 독일 다니엘이 털이 많아 고민이라고 하자 이집트에서는 털 많은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알려 준다. 미국의 타일러는 탈모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거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 외모로 판단하는 차별에 대한 세계의 교육과정을 들어보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양한 민족과 모습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전 세계적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7.7%에 불과하다. 모두 다 대학에 가려 하지는 않는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기업과 학교가 함께 교육하는 이중교육 시스템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마이스터라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제도로 자격증을 따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2장 본론

→ 각국의 경제 사정이나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일자리 정책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취업난 청년 취업난을 돌파하는 한 방법으로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내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1 ' 세계는 지금' 119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공장지대, 아침이면 공장지대 앞으로 어린 아이들의 출근길이 이어진다. 아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 학교가 아닌 철공소나 공장으로 향한다.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 최근 국제적 분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종교분쟁 사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그 하나로 서로를 증오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러시아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친구, 친척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다른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매일 오후면 펼쳐지는 죄수들의 흥겨운 춤판. 교도소 내 모든 재소자들이 참여하는 댄스타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 'Thriller', 싸이의 '강남스타일', 원더걸스의 '노바디' 등의 음악에 맞춰 수백 명이 춤을 춘다.

- 프로그램 총평

-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현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어 흥미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종교 공존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것 자체가 가장 소통과 공존 융합이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카자흐스탄 각 종교 사제들에게 인터뷰 - 다른 종교 사람들과 어울려도 문제없는지? 금지하기는커녕 사이좋게 차별 없이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 사제의 친구들 중에도 다른 종교인 친구가 있다.

## 제2장 본론

종교가 다른 신랑 신부들 인터뷰 - 종교가 같건 다르건 맹세한 내용은 다르지 않다. 변함없는 마음. 종교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할 때 종교 문제로 고민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보았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같은 열린 마음이 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합하는 데도 문제될 것이 없겠다는 공감이 생겼다.

##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성당을 보수하는 무슬림들, 이슬람 모스크이든 그리스도 교회든 열심히 짓는다 마음을 담아 일하는 것은 똑같다. 유대인회당을 지키는 경비원은 무슬림. 하지만 카자흐스탄에도 위기는 있었다. 2011년 이슬람 극단주의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19명 사망. 정부의 냉정한 대응으로 극단주의 종교단체 활동을 금지했다.

→ 서로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친구로 여기며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잘 보여주었다

##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러시아 정교회에 이슬람 사제가 들어와 빌려간 책을 돌려주며 스스로없이 대화하는 모습과 인터뷰 - 저 또한 나우르즈 축제 때 초청을 받아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 같이 식사도 합니다.
 

→ 다른 종교 사제를 배타시하지 않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각자의 종교를 더욱 크고 넓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였다.

##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21-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3)타문화(여행, 지역)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EBS	글로벌 프로젝트	17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들과 이번 회차에 자원해서 내레이션을 해준 유선씨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다. 이

## 제2장 본론

	나눔		프로그램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25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는 내내 슬펐고 눈물이 났다.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도움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착한 방송프로그램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그들의 힘든 모습만을 가지고 구성된 프로그램이라 조금 아쉬웠다. 도움의 손길을 설득하는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힘들 때 제작진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이 그 도움에 활짝 웃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영상 안에 담는다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JTBC	비정상회담	4회	다국적 혼남들의 불꽃 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웃고 즐기면서 G11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제대로 된 문화를 알게 된 경험이라서 신선하고 교육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게스트로 초대된 오나미씨와 씨스타 소유의 고민이 문화다양성보다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남성 우월주의와 편견 등이 느껴지기도 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갖는다면 프로그램 기본 취지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KBS	세계는 지금	95회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 듣는 문화들과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그 예시 또한 적절히 보여주어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 수 있게 해준 듯 보인다. 세 가지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모두 부정적인 소재가 아니라 사건뿐 아니라 교도소 무에타이 이야기들처럼 서로 함께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들어간 이야기도 넣어 좋았던 것 같다.
		100회	전반적으로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심각한 사건을 당사자와 촬영하고 그 삶을 체험해봄으로써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다. 주석 채굴은 잘 촬영된 것 같지만, 정부 당국은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했다면 더욱 공감의 요소가 많았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거나 융합한 것은 없었지만, 우리의 잘못되거나 몰랐던 인식과 생각을 개선해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15회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고 예상 시청자들의 연령대 또한 오락 프로그램보다 높을 것을 예상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현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고정관념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도 대치를 잘하는 모습 또한 많이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감/소통은 거의 없었고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만을

## 제2장 본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융합/발전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방송의 주제도 너무 무겁거나 청소년이 이해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고정관념도 노출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좋게 봤다.
		123회	이번 회에서 힘들어하는 나라에 직접 찾아가 그들을 보며 주며 그들의 모습을 단순히 불쌍하다 진짜 힘들겠다는 내용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페트병 전구를 통해 행복해 하는 모습과 동시에 조수빈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가 못 살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 연민을 느끼게만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중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보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드리포트	49회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제 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편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을 잘 전달해 준다. 그러나 설명을 해주는 내레이션 부분에서 종종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를 선을 그어 버리는 표현이 나오고 편견이 들끓는 듯 드러난다.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33회	우리나라의 문화와 캐나다의 문화를 잘 조합시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좋았던 것 같다. 조연우씨가 프로그램 내내 그 어떤 다른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는 프로그램들의 출연진들 중에 가장 잘하셨다고 느껴질 정도다.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 뿐 아니라 우리가 접하기 힘든 나라의 문화를 접한다면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본다.
		41회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라오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 없이 담담하게 잘 보여준 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과 정 많은 사람들, 그러나 열악한 교통과 주거 환경 등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라오스에서 승려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출연자와 제작진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였고 좋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MBC	여행남녀	1회	여행 체험 프로그램이기에 그 나라에 대한 소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행자인 터키에 대해

## 제2장 본문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잘 보여줬음. 여행을 체험하는 출연진들이 이방인처럼 밖에서 관조하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몇몇의 고정관념, 차별적인 행동과 장면들이 편견을 강화시키고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고 여겨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

## 제2장 본문

## 4. [방송] 타문화-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22-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4)타문화(이주민)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송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31)</sup>	비고 <sup>32)</sup>
MBC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2010.7.20.)	(목) 오전 5시 10분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출신나라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서로를 이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새터민 소개  타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이야기	중영
EBS	다문화 고부열전 (2013.10.18.)	(목) 오후 10시 45분	다문화가정의 고부가 며느리의 나라로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방영 중
EBS	다문화-사랑 (2013.8.31.)	(토) 오전 6시 30분	언어의 벼를 넘어 사랑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	방영 중
KBS1	러브인 아시아 (2005.11.5.)	(화) 오후 7시 30분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 감동의 휴먼스토리	방영 중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22-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4)타문화(이주민) 관련

모니터링 요원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 사랑	러브인 아시아
A	1월1편, 9월1편	8월1편, 4월1편	7월2편	6월1편
B	2월1편, 10월1편	1월1편, 9월1편	8월2편	7월1편
C	3월1편, 8월1편	2월1편, 10월1편	1월1편	8월2편

31)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32)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D	4월1편, 7월1편	3월1편, 5월1편	2월1편	1월1편, 9월1편
E	5월2편	4월1편	3월1편, 9월1편	2월1편, 10월1편
F	6월2편	5월1편	4월1편, 10월1편	3월1편, 9월1편
G	7월1편	6월2편	5월2편	4월1편, 10월1편
H	8월1편	7월2편	6월2편	5월2편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EBS '다문화-사랑' 38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대만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아홉 식구 대가족의 살림을 맡고 있는 황의순씨는 여러 개의 직책을 맡고 있다. 구리전통시장 DJ, 원어민 강사, 다문화 모임 '아름다우' 대표, 구리시 시민의원 등. 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대만의 전통 춤을 연습해 공연봉사를 하는 등 바쁘게 생활한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숨지 않고 오히려 더 나서서 활동한다는 그녀. 그녀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 프로그램 총평

-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해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황의순씨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집와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도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이 만연한 한국에서 타국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준다면 다른 이주민들도 집 밖의, 더 많은 활동에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 한국인보다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이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어서 신선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이 '편견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점도 대단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녀들이 집안일에만 몰두하기를 원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이주민, 특히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 제2장 본론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1)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쓰며 키우는 황의순씨 인터뷰 :  
“중국어를 알면) 대만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되죠. 대화가 안 되면 모든 소통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황의순씨의 남편이 중국어로 장인어른, 장모님과 통화하는 장면

→ 보통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한국어만 주로 쓰고, 아내이자 엄마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어눌하지만 한국어를 배워서 써야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황의순씨의 가정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2개 국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함으로써 아이들과 엄마가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이 돋보였다.

2) 황의순씨는 일주일에 3-4일 지역 어린이집에서 다문화수업 진행 중이며 강사 수료도 마친 상태이다. 수업시간에는 주로 다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는 만들기(중국의 향낭 등), 지도, 복장 등을 가르친다.  
→ 다문화수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을 얻어 내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아이들이 편견 없이 지도를 보고, 향낭을 만들고, 대만의 전통복장을 입어보는 장면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1) 황의순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다른 시민 DJ, 김외숙씨 인터뷰 : “방송할 때 몸짓이나 한국에 대한 문화나 전통시장(을 이해하는 것까지)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시장상인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구함. 그 후 황의순씨 인터뷰 : “제가 한국에서 외롭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방송 잘 들었다. 활기찬 목소리에 기분 좋게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 황의순씨가 라디오 DJ를 함으로써 시장 상인들과 교류도 많아지고 격려와 응원까지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장면으로 인해 황의순씨는 구리

## 제2장 본론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더 이상 한국에 혼자 건넌,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 2) 9식구 대가족의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일을 다 하는 맏며느리 황의순씨. 그런 황의순씨에 대한 시어머니 강옥련씨의 인터뷰 : “(며느리가) 생전에 성질내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확실히 착한 편이에요. 저는 나가서도 항상 며느리 자랑을 해요. 며느리 자랑하면 팔불출이 라는데...”

→ 황의순씨는 대만에서 외동딸로 자랐지만 한국의 맏아들 남편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매일 대식구를 위해 집안일을 해야 한다. 황의순씨는 일정 부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은 황의순씨의 사회생활을 지지하고 믿는 모습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 3) 다문화수업을 하는 황의순씨에 대한 내레이션 : “다문화수업은 어릴 때부터 수료하는 것이 좋다. 선입견 없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황의순씨 인터뷰 : “처음에는 한국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외국에서 시집왔다고 하면 웬지 조금 낮게 보는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편견이 다문화 2세 아이들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다문화와 관련된 일을 해온 것 같아요. 다문화 아이도 한국 아이고 한국 아이도 다문화 아이인데, 어차피 다문화는 다 함께하는 문화잖아요.”

→ 아직 편견이 없는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황의순씨의 모습과 아직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편견과 싸우고자 다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황의순씨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다문화를 알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융합/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구리전통시장 라디오 프로듀서 인터뷰 : “다문화 DJ분들이나 다문화 가정 분들이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라디오를 해서 고국에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보시게 되면 한국에

## 제2장 본론

- 2) 있는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향수병도 없어지고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문화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가 융합/발전에 딱 맞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고향에 가고 싶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라디오 DJ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개개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좋은 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3) 8개 나라 15명의 회원이 있는 구리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모임 '아름다우'에서 함께 모여 전통음식도 나눠먹고, 전통 춤도 연습해서 공연봉사를 가는 장면. 황의순씨 인터뷰 : “공연에 나가고 나서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고 ‘춤 동작을 조금 더 잘 맞춰야겠다.’ 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 한국에서는 낯선 대만의 전통 춤을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모여 연습하고, 공연봉사도 나간다. 이는 공연을 하는 공연자에게는 자신감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연을 보는 관객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신선함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발전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EBS '다문화-사랑' 아메드 가족의 2014 라마단 이야기
- 프로그램 내용요약

- 한국에서 세 개의 파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아지스 아메드씨와 가족들이 2014년 라마단을 맞이하여 무슬림들이 라마단에 대해 갖는 경건함, 인내심, 진지한 예배의식들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파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한국인들을 위해 음식의 맛이나 라마단 시기의 식당운영 등을 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9세가 된 둘째 아들 사미가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와 친구들과의 우정 등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 제2장 본론

## - 프로그램 총평

- 라마단, 무슬림에 대해 우호적 시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현재의 국제 정세나 IS의 잔혹한 행위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무슬림들의 경건한 신앙심, 철저한 종교의식은 두려움과 배타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딜레마인데, 이슬람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점과 이슬람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23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한국사회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납득시키기에는 아지스씨 가족의 따뜻한 생활은 부족하다. 또한 아지스씨 가족의 한국적응의 노력은 여러모로 다뤄졌으나 아지스씨 가족의 일방적 노력이고 이 과정에서 주변의 한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아지스씨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 전혀 다뤄져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라마단과 라마단을 경건하게 지키는 무슬림들에 대한 내용-맨발로 기도하기, 갈증과 배고픔을 참아내는 모습 등
    - 라마단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으로 설명하여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는 일부 무슬림들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을 이슬람에 대해 모든 무슬림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슬람의 문화 역시 반드시 과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각화한 점이 문화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임.
  - 2) 예쁜 히잡을 쓴 아지스씨의 처와 딸들의 모습
    - 히잡이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데, 히잡을 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갖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3) 식당 운영과 음식 조리에 대한 아지스씨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빨리빨리, 향신료 직접 제조하는 모습
    - 한국인들의 입맛과 특성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지 장사속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호의를 가지게 함.
  - 4) 무슬림들의 가족애 모습 : 아버지는 아들들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큰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직업을 이으려고 하고 작은 아들은

## 제2장 본론

전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

→ 국적,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임.

## 5) 둘째 아들의 학교생활모습

→ 둘째 아들과 한국인 아이들 쌍방이 그저 친구로서 스스럼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아지스씨의 아들이 친구 생일잔치를 갔을 때 무슨 고기인지 몰라 먹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친구들이 닭고기라고 알려주는 장면
  - 9세의 어린 아이들임에도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배려를 하는 모습은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기본적인 존중심을 표현한 것임.
- 2) 라마단임에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진 후 첫 식사를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에서 먹는 아지스씨의 모습
  - 단지 장사속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라마단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첫 식사를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행위를 통해 양쪽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
- 3) 라마단에 대한 소개내용
  - 한국인들로 하여금 라마단과 라마단이 무슬림에게 갖는 큰 의미를 인지하여 무슬림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아지스씨의 둘째 아들의 학교생활, 생일놀이 모습
  - 한국아이들이 지금은 돼지고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나, 파키스탄 출신 아이와 친구가 되어 지냈다는 경험이 장차 새로운 시각과 감수성을 갖게 할 것으로 예상함.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1 ' 러브인 아시아' 418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키르기스스탄에서 와서 2011년에 결혼한 나르기자씨는 한국 남편, 시어머

## 제2장 본론

니, 2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살림을 함께 하고 있다. 나르기자씨는 딸 수연을 낳고 처음으로 친정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고 그 방문을 남편과 수연이가 함께 하였다. 친정에는 나르기자씨의 남매들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프로그램 총평

- 러브인아시아를 보면 보통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남편의 모습은 배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편은 남편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편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키르기스스탄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장인어른의 농사를 도우며 아내의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지금까지의 러브인아시아를 보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힘들게 혹은 씩씩하게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살다가 고향에 가서 고향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귀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런 구성 속에서 남편은 아내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빨쫂한 이방인으로 취급된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 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듯이 남편 또한 사위로서 그 가정에 수용되는/수용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나르기자씨가 남편과 친정을 방문하여 딸 젓을 짜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는데, 남편이 꺼려할까 봐 맛있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 도시 사람들도 하루에 두 번씩 먹는다고 설명하는 장면
 

→ 딸 젓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에게는 먹기 어려운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나르기자씨가 딸 젓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남편이 꺼려하지 않고 먹도록 유도하였고 남편 또한 시도해보지도 않고 거부하기 보다는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고소하다, 맛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이 각자 나라의 식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므로 긍정적인 장면으로 평가한다.

## 제2장 본론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내를 위해 중앙아시아 음식점을 방문하여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주는 장면
 

나르기자씨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시어머니는 맛이 없다고 한 반면에 남편은 맛있다고 하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내가 요리하고 있다고 평가한 장면

→ 나르기자씨가 집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한국 음식인 된장찌개를 요리하지만 외식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보인다. 또한, 나르기자씨가 된장찌개를 능숙하게 끓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맛있다고 평가하는 남편의 태도는 한국 음식 문화를 따르라고 강조하기 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딸 수연이의 돌잔치를 키르기스스탄 방식에 따라 행하는 장면
 

→ 우리나라에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잔치를 치르는 방식이 있듯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아이에게 엄마 나라의 의례를 함께 행함으로써 자녀 양육은 부모 한 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모 양 쪽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의 아이인 수연이는 아버지의 한국 문화와 어머니의 키르기스스탄 문화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문화적으로 풍부해지며 어머니의 문화,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적 배경을 갖게 될 것이다.

## 제2장 본문

##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22-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4)타문화(이주민)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EBS	다문화 고부 열전	35회	다문화가정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일 수 있는 고부갈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 인끼리도 고부갈등이 흔히 일어나는데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의 갈등은 소재가 끊임이 없고 다채로워서 더 신선했다. 이 갈등은 '타국가-한국'의 문화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옷의 길이가 짧다, 예의가 없다는 등) 세대적인 갈등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이 아닌 사람도 보면서 갈등에 대해 큰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며느리의 고향에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같이 가서 자란 환경을 보고 가족들과 만나는 점 역시 고부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특별한 해결법이 아닌, 서로간의 진솔한 대화가 가장 크다는 것 또한 느꼈다.
		31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나 장모와 사위가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잘 지내는 모습, 각 나라의 육아법을 적절히 조화 이루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이다씨의 방임적 교육관이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한국의 일반적 교육관이 맞고 그녀의 교육방식은 틀리다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다문화 사랑	38회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해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황의순씨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집 와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도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이 만연한 한국에서 타국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준다면 다른 이주민들도 집 밖의, 더 많은 활동에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한국인보다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이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어서 신선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이 '편견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점도 대단했다. 결혼이주여성인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녀들이 집안일에만 몰두하기를 원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이주민, 특히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39회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겪은 갈등이나 피해보다는 도전, 화목에 훨씬 집중한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은 이들이 한국에서 겪은 모든

## 제2장 본문

		46회	것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아쉽기는 했지만 이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본 회의 내용은 두 가지 차원의 적응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생활을 했던 남편과 아내의 농촌 생활에 대한 적응이다. 외국인 아내가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며 한국어 배워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듯이 남편은 농촌 생활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며 농촌 생활에 적응하려고 한다. 이들의 적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웃"이다. 필리핀 출신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과 모임으로써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힘을 만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카밀씨와 은석씨 부부와 주변 한국-필리핀 가정 이웃들과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웃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전보다 해당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늘어 시청자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또한, 자연의 주인공들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로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적어 융합적인 측면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BS	러브인 아시아	434회	
MBC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167회	1) 굴다라씨와 굴라디스씨가 진행하는 코너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소개와 외국인의 한국 문화 체험"이 주요 컨셉인데, 서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과 한국의 역사를 함께 알려준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교양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등장하는 용어가 어렵고 자막과 화면 전환이 빨라서 한국인이 보기에도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템포를 조금 늦추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요구된다.
			2)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꿈을 갖도록 만든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문화카페를 통해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발판이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지원센터에 좋은 모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인 아침에 아이들을 밥 먹여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혼자 요리하여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놓는 식의 내러티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미디어는 지금까지 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 제2장 본론

		접근법이 '가정과 밖에서도 모두 적절 잘해내는 수퍼우먼'처럼 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과거의 '구순용사'에서부터 '새터민', '탈북민', '탈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칭하는 집단은 동일하더라도 각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및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에 대해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 본 코너에서는 '탈북자'와 '새터민'을 함께 쓰고 있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용어의 통일된 사용이 필요하다.
188회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잘 적응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다문화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초대를 한다거나 케이크를 만드는 것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아 식상했다.	
191회	한 프로그램 내에 3명의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다양하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한 사람당 할당되는 시간이 적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고마운 사람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행복한 밥상〉이라는 코너는 음식으로써 정을 나누는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출연자들이 타문화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희망차고 밝은 분위기였다.	

## 제2장 본론

## 5. [방송]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 23-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5)새터민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33)</sup>	비고 <sup>34)</sup>
MBC	통일전망대 (2001.1.20.)	(월) 오후 1시 20분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현안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달	방영 중
KBS1	남북의 창 (1989.3.14.)	(토) 오전 7시 50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 관계의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	방영 중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2014.7.4.)	(금) 오후 11시	남측 노총각과 북측 꽃미녀의 가상 결혼 생활을 통해 통일이라는 남과 북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남과 북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을지, 피부에 와 닿는 통일이야기를 결혼이라는 상황으로 리얼하게 그려낸 프로그램	방영 중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23-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5)새터민 관련

모니터링 요원	통일전망대	남북의 창	애정통일 남남북녀
A	1월2편, 10월1편	4월2편, 9월1편	7월1편
B	2월2편, 10월1편	5월2편, 10월1편	7월1편
C	3월2편, 9월1편	6월2편, 9월1편	8월1편
D	4월2편, 9월1편	7월3편	8월1편
E	5월2편, 10월1편	8월3편	9월1편

33)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34)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F	6월2편, 9월1편	1월2편, 10월1편	9월1편
G	7월3편	2월2편, 10월1편	10월1편
H	8월3편	3월2편, 9월1편	10월1편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MBC ' 통일전망대 ' 629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전망대 브리핑>에서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소식을 전하고, 금메달을 딴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에 대한 평양 시내의 수습만 거리 환영 인파를 소개 하였다. 그리고 은정차 재배에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남북한의 외래어 사용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 <인 한반도>에서는,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성공스토리와 통일체육축전 행사에서 그녀가 노래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 프로그램 총평

- 이번 프로그램은 다른 회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공정한 시각을 유지했고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리 응원 같은 장면에서는 남북 주민의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남북한 언어를 비교한 장면에서는 물론 서로의 정책 차이에 의해서 많은 용어 사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더 크게 보면 남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를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 같다.
- 이번 회차는 비교적 공정한 시선 덕분에 한결 편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진행에서 여성 MC의 영향력이 강해서, 그녀의 발언에 따라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많이 좌우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을 게스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느껴진다. 예외도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대한 좋은

## 제2장 본론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전망대 브리핑>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의 거리 퍼레이드 장면과 북한 당국이 자정에 평양 시내에서 결승 경기를 녹화 방송해 주어, 많은 시민들이 전광판거리응원을 한 장면  
→ 평양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정이라는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 북한 여자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아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강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음.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은 공감, 소통 면에서 매우 잘된 기획이라고 생각됨.
- 2)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 10월 9일인 남한의 한글날을 맞아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한 장면  
→ 남한의 한글날과 다르게 북한은 1월 15일 훈민정음 창제일을 기념한다는 서로 다른 점을 알게 해 주었고, 그렇지만 한쪽은 창제일 한쪽은 반포일을 기념하고 있으므로 크게 보면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남한의 외래어와 북한의 외래어에 대한 차이점을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부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느낌이었음.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의사소통과 북한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편견 때문이 6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  
→ 남한 사회에 만연한 탈북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그들의 입장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고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고, 60%가 넘는 비율로 언어 문제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의 언어가 급격히 이질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음. 이를 통해 우리가 북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전해주고 있어 공존 정신을 잘 살린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 제2장 본론

- 2)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식 말투나 표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취업에서도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스트와 진행자의 대화

→ 남한 사회에서 북한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게스트가 실제로 겪은 취업 불이익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배타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 역시 우리 스스로를 반성케 하는 좋은 장면으로 느껴졌다.

- 3)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 게스트로 나온 북한이탈주민 이미연 씨의 성인 '리'가 남한의 두음법칙으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아쉬워하는 모습

→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생각되었다. 남한에서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정 성씨를 다르게 적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제제기가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잘 생각하지 못하는 면을 일깨워주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 [융합/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톡톡 북한 이야기>에서, 북한의 말다듬기 정책을 예로 들며, 남한의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 실태에 대해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려는 북한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진행자의 표현

→ 북한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말다듬기 정책이 우리말을 지키고 아끼는 데에는 남한보다 낫다고 평가하며, 우리가 이를 본받아 외래어의 남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북의 좋은 점을 수용하여 우리의 발전을 이루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잘 융합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여겨진다.

- 2) <인 한반도>에서, 탈북가수 백미경 씨가 정토회가 주관한 통일체육축전 행사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장면

→ 통일체육축전 행사에서 남한의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감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 그들이 공존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배워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 제2장 본론

희망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서로를 살리는 통일에 대한 발전적이고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다.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1 ' 남북의 창' 511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이슈&한반도>에서는 현재 남한과 일본의 갈등이 수면화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음. 그동안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노력과 일본의 대응,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소개하였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공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요즘 북한은>에서는 남한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북한 지역 중학생의 위로 동영상을 소개하고, 북한 적십자사의 위로 전문을 소개하였음. 또한 북한에 불고 있는 영재 교육을 언급하며 평양 제1중학교를 소개하였음.
-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2인자로 급부상한 황병서의 파격 승진 문제를 언급하며 최룡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북한 사회의 유일 체제 특성상 2인자의 권력은 제한적이며 언제든 제거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북한 영상>에서는 피아노협주곡 '백두산의 눈보라' 연주 현황을 보여주었음.

- 프로그램 총평

-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상적인 내용들이 여럿 있었는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 특히 그랬다. 현재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보여 주었고, 남북의 향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다.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북측의 위로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다.
- 한편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일률적인 결론 맺기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북한의 2인자 교체에 대한 분석 기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보이기는 했지만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 없이 북한의 매체 보도에 대한 추정 의견만을 소개하여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매번 반복되는 결론이

## 제2장 본론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 전체적으로 흥미 있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알거나 보기 어려웠던 것들이 여럿 있어서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말투, 음악 등등)이 반복되었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 뒤에도 꼭 붙이는 비판(이번 편에서는 세월호 위로 영상 뒤에 군사훈련 모습 같은)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시청자들을 의식해서,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까지 들었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이슈&한반도>에서, 북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 영상
    - 북한 지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영상이었음. 1991년 남한의 최초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북한에서도 1992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가 만들어졌고, 218명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남북이 위안부 피해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남북의 이러한 압력에 의해 일본에서 1993년에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압성과 정부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점은 남북이 함께 문제에 접근할 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 <요즘 북한은>에서, 4월 16일 남한에서 발행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북한의 위로 영상
    -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한 사고에 대해 위로 영상을 제작하여 남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뜻을 보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평양 룡라초급중학교 안수미 학생의 위로 동영상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분초초 배에 탔던 남녘의 언니, 오빠들이 모두 구원되기를 기원했어요”라고 말하며 거북이에게까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에서 북도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음. 또한 조선중앙TV가 소개한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위로 전문도 한민족으로서 아픔

## 제2장 본론

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됨.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이슈&한반도>에서, 2014년 3월 29일 중국 선양에서 남과 북의 여성단체가 합동해서 개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토론회 영상
    - 현재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부정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여성 단체가 합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따른 공동의 아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토론회를 통해 공감과 공존을 되새기고, 민간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남북 정부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하루속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등을 해결하라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토론회 모습을 소개한 것은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장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23-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5)새터민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KBS	남북의 창	531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양한 전문가와 해외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서 전반적으로 신뢰가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졌다. 한편으로 좀 딱딱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너무 정중하고 굳어 있어서 인간적이지 못한 느낌이랄까? 진행자들의 자세에서부터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더 편안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	북한의 문화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심층적이다. 북한과 우리 사회 소외계층(국군포로 등)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언론의 역할이 잘 수행된 것 같다. 북한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진 영상이 평양지역 영상에만 한정되어 아쉽다. 북한주민/탈북민과의 소통 혹은 공존에 관한 내용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MBC TV	통일전망대	597회	딱딱하지 않은 구성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편향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관용적

## 제2장 본론

조선			태도를 일부 취하려고 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10월 달 프로그램에 비하여 신년 프로그램은 조금 정치적이었습니다. 장성택 처형이후 불안한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남한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인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통일의 대화 파트너로 북한을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을 좀 더 중도적으로 편성할 필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601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하고, 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 많은 자료 화면을 통해 지루하지 않고 생생하게 보여준 것은 좋게 평가할 수 있겠음. 그러나 기자나 진행자의 멘트 중에서 진행에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다소 편견 섞인 의견이 의외로 자주 노출되는 느낌을 받아 소통, 공존의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613회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명에서 다소 남과 북의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여느 토크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진행자 김현경의 진행 솜씨와 남한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희망적인 모습에서 계속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양계장 사업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시청하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번졌으며, 북한에서 계란과 돼지고기가 귀하여 통일이 된 후 북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614회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던 과거와 달리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기를 바라는 진행자들의 진심이 담긴 대사와 전문가와 실제 경험 했던 탈북자가 함께 전해 주는 북한의 모내기 소식은 더욱 신뢰성이 느껴져서 만족하였지만, 2회나 편집 실수로 보이는 탈북자 김정아씨의 대사가 끝나기 전 진행자의 대사가 이어진 것은 보다 편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준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2회 연속 모니터링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선입견을 완전히 없애 주었던 것 같다.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기 일색이었던 과거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탈피한 듯 보인다.
	애정통일 남남북녀	11회	예능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도 해결 못하는 새터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잘 녹여낸 프로그램인 것 같다. 북한의 놀이문화와 제사상 음식(자르지 않은 갈비)도 소개되어 자연스럽게 북한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 제2장 본론

## 6. [방송] 성별/계층/기타 관련 프로그램 긍정 사례

## □ 대상 프로그램 개요

〈표24-1〉 방송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개요 : (6) 성별/계층/기타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시작일)	편성 시간	간략 소개 <sup>35)</sup>	비고 <sup>36)</sup>
KBS	나는 남자다 (2014.11.28.)	(금) 오후 11시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토크쇼 프로그램	방영 중
SBS	달콤한 나의 도시 (2014.8.27.)	(수) 오후 11시 15분	4명의 서른 즈음 여자들이 청춘의 끝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서른 즈음 여자들의 진짜 이야기!	종영
JTBC	마녀사냥 (2013.8.2)	(금) 오후 11시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뒤흔드는 마성의 여자들, 마녀! 마녀들에게 놀아나 무기력한 남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좀 놀아 본 네 명의 남자들이 나선다! 냉소적으로 여자들을 파헤치는 본격 여성 토크 버라이어티	방영 중
KBS1	소나기 (2014.4.12.)	(화) 오후 11시 40분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영 중

## □ 모니터링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표 24-2〉 방송 - 모니터링 요원별 대상 프로그램 : (6) 성별/계층/기타 관련

모니터링 요원	나는 남자다	달콤한 나의 도시	마녀사냥	소나기
A	8월2편	8월1편	1월1편, 9월1편	10월2편
B	8월2편	8월1편	2월1편 10월1편	9월1편 10월1편
C	8월2편	8월1편	3월1편 9월1편	9월2편
D	9월2편	9월1편	4월1편 10월1편	8월2편

35)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36) 2014. 12. 3. 현재 기준



## 제2장 본론

E	9월2편	9월1편	5월1편 8월1편	7월2편
F	9월2편	9월1편	6월1편 7월1편	6월2편
G	10월2편	10월1편 8월1편	7월1편	5월2편
H	10월2편	10월1편 9월1편	8월1편	4월2편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JTBC '마녀사냥' 47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뒤흔드는 마성의 여자들에게서 무기력한 남자를 구원하기 위한 남자 MC 4명의 연애 코치.
- 프로그램 총평
  - 마녀사냥이 방송된 초반(1년 전)에는 소위 어장관리하는 여자를 '마녀'라 칭하며 이에 대해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인지, 이제는 어느 한 쪽을 부정적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사연을 다루고 있다. 남녀 MC&패널&게스트를 골고루 섭외함으로써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남-녀의 소통, 공존, 융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다.
  - 아직까지도 홍석천을 다루는 방식에 변함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쉽다. 그러나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더 큰 문제-성 소수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인데, 이는 서서히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지, 씁쓸하다.
  - 내가 평소에 마녀사냥을 볼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연애, 썸, 사랑'보다는 '홍석천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가 '토크게이'로 소개되며, 활짝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장난스럽게 다뤄지는 부분이 많은 데... ('홍석천은 보살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언제쯤 레즈비언이 이렇게 장난스럽게라도 방송에 등장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 제2장 본론

같다. 설사 앞으로 방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의 여러 소수자를 다루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를 아주 느리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래도 그런 노력이 없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미디어가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서로 관심 있는 듯 한 여자와 남자의 사연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MC들의 반응
  - 2) 허지웅 “여자는 문자 보내기 쑥스러워서 그랬나? 남자는 ‘내 연락이 귀찮았구나.’ 해서 배려한 것 아닐까... 그래도 여자 분이 알아야할 것은, 남자가 그렇게 친절히 대해준 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거예요.”  
유세운 “여자가 밀당한 것? 지기 싫었던 거 아닐까? 남자가 한 번 더 연락하길 기대했던 듯”  
→ 사연을 보면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자MC들이 사연의 주인공(여자)을 이해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여자에게 남자의 입장을 대신 알려주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였다. 남자나 여자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모두 헤아리며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공감과 소통의 노력으로 보였다. 이는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이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3)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 코너가 이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에 대해 MC, 패널, 게스트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식  
→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말 다르다. 남자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여자가 생각하는 여자와 남자를 골고루 알게 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 4) 동성애자 홍석천이 고정 패널로 참여하는 것 + 코너 소개 자막 ‘남심, 여심, 게이심으로 보는 <그린라이트를 꺼줘>’

## 제2장 본론

→ MC들이 종종 홍석천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등 성 소수자가 희화화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연애 상담'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홍석천을 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성 소수자도 사랑과 연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녀라는 양쪽의 생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성의 의견도 들려주어 성과 연애와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이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성시경의 말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중창단을 했어요. 제가 유일한 불교 멤버였습니다. 그때도 불교라고 얘기하고 활동했죠.” + 자막 ‘종교의 자유’

→ 종교가 다름에도 서로 배척하지 않고 어울린 경험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으로 보였다.

- 2) 게이를 희화화하는 MC들의 말 “우리도 게이하자!” 에 대한 홍석천의 반응 (아주 쿨하게) “내 밑으로 짹 줄 서 이것들이!”

→ 홍석천은 동성애자라는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익히 알고 있다.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조차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희화화하면서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보였다. 소수자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기는 하지만, 소수자 자신이 먼저 사회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 3) 씬을 타고 있든, 연애를 하고 있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연에서 '이해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MC&게스트&패널들

→ 누가 봐도 이상한 사연이 아닌 이상, MC&패널&게스트들은 서로 노력해서 좋은 연애를 하라는 식의 조언을 해준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 제2장 본론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예전엔 무조건 자기편을 들어주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만 한다는 여성의 사연에 대한 광정은의 말 “남자친구가 변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애길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맨 정신이거나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여자친구를 보호하며 옳은 말을 하지만, 술이 엄청 취해있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거네요. 현명한 거죠. 남자친구 없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남자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여자 분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 여자는 자신에게 늘 잘해주던 남자친구가 변한 것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광정은은 여자에게 남자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시켰다. 남자친구의 보호에 너무나 익숙해진 여자에게 남자친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는 힘도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호간 노력을 통해 더 멋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SBS '달콤한 나의 도시' 9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서른 즈음의 보통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취지. 네 여자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그 나이 대 여자들의 연애, 결혼, 일, 사랑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

- 프로그램 총평

-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문화다양성(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장애인)이 아닌 소소한 소재 속 문화다양성을 다룸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가족 세대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한다. 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고, 출연진들의 일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그에 대한 내레이션도 대부분이 가치중립적이라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고민해보게 만드는 것이 좋다.
-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서른 즈음 여자들의 사랑, 일, 가족 등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획 의도는 충분히 달성된 듯 하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기에 소재가 한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제2장 본론

## - 세부 내용

##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정인(28, 영어강사)씨는 친구의 결혼식에 입고 갈 원피스를 예쁘게 소화하기 위해 5일 만에 3.5kg를 감량했다. 밥 대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먹고 새벽까지 운동하며 이룬 결과다. 목표를 이룬 여자는 결혼식 후 바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신에게 상을 줬다. 그 장면에서 깔린 내레이션 “그날, 스몰 사이즈의 원피스를 입고 여자는 생각했다. 서른 즈음, 나에게 맞는 옷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 여자라면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봤을 것이다. 젊은 날 아름다운 몸의 예쁜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결국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다. 정인씨도 그런 이유로 5일 동안 고군분투했다. 굶기, 108배, 헬스, 계단 오르기,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살을 빼는 (보통의)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서러움과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다. 내레이션 대사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줬다. 나는 저 대사를 이렇게 해석했다. 서른 즈음, 여자에게 맞는 옷은 꼭 조인 작은 원피스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라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이라고.
- 2) 결혼을 앞둔 현성(30, 회사원)씨와 친구들의 대화. 친구1 : “프로포즈도 추억이잖아~” 현성 : “추억은 같이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남자친구가 뭔가 세팅을 해서 하는 건 별로...”  
→ 청혼은 암묵적으로 남자의 몫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몇몇 여자들은 프로포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그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낀다. 현성의 말은 남자의 그런 부담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예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역할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현성씨는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때문에 현성씨의 언행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남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인식’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2장 본론

- 3) 정인씨의 말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명이 전부 다. 그런 걸 같이 얘기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좋았어요.”  
→ 네 명의 여자들은 여자라는 공통점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결국은 다 다른 삶이다.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연애를 하고, 누구는 결혼을 하고.. 같은 여자이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도 문화다양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인씨의 말은 그런 다양한 문화와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청자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삶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

##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수진씨(29, 변호사)의 말. “예전의 저는 아버지를 너무 엄격하고 어렵게만 생각한 거 같아요. 조곤조곤 제 생각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젠 제가 서른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어떤 게 힘든지 그런 걸 아빠가 (방송을 통해)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요즘은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수진씨의 말. “(이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는 그 깊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 세대차이, 세대 간 소통 부족도 문화다양성 속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수진씨의 아버지, 그 외 가족들은 단순히 수진씨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수진씨의 가치관을 인정해주며 때로는 고민에 조언도 해준다. 이 모습이 자신과 다른 문화(세대)를 이해하고 그 세대와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보였다. 수진씨 역시 무서워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동등/공존의 노력을 느꼈다.

##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현성씨의 예비 신랑 경민씨가 현성씨에게 쓴 편지 중 일부.  
“안녕. 우리 이제 결혼을 한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만큼 행복하다면

## 제2장 본론

그 행복,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 기대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부족한 만큼 우리 서로 채워주면서 살자. 고마워 사랑해.”

→ '앞으로의 삶이 기대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부족한 만큼 우리 서로 채워주면서 살자'라는 말이 [융합/발전]의 노력으로 느껴졌다. 꼭 남자와 여자의 융합으로 본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문화를 지닌 둘이 만나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2 '나는 남자다' 4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결혼을 앞둔 남자와 그 친구들을 방청객으로 초대 MC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결혼을 앞둔 지금 하고 싶은 것, 결혼을 실감한 순간,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게스트(백지영)이 출연하여 여자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하는 내용

- 프로그램 총평

-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포맷자체가 남성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여성들과의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게스트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 이번 회에서는 1회 만큼의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다.
-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 그저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처리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진행을 한다면 결혼의 어떤 부분이 남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여성 시청자 입장에서 남성들을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하고 싶은 것-여행에 대한 이야기

## 제2장 본론

결혼이 부담이 되는 이유-내가 사라질까봐, 가장이 되는 부담감

결혼을 실감한 순간-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 등 결혼을 하며 겪게 되는 실질적인 감정의 변화 등을 이야기 함

\* 여자 게스트가 여자 입장에서 해주는 코멘트

→ 결혼에 대해서 공감할만한 남자들의 심정을 의견으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 1회에서는 여자 게스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4회에서는 여자 게스트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더 커졌다. 게스트중의 한 명으로 등장해 주제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써 이야기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결혼의 과정에 대한 남성 입장에서의 솔직한 표현들 : 웨딩드레스 고를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신부와의 첫날밤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

→ 결혼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고정된 이야기만 존재한다. 그것은 신성하며, 제일 행복한, 그리고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야 하는, 소중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풍부해지지 못하고 계속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는 남자다' 이번 회에서는 결혼에 대해 남성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인 것이 결혼을 보는 다른 시각 그리고 남/녀 간의 결혼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여성게스트 역할의 강화

→ 기존 여성게스트의 역할은 미약하고 남성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여성게스트가 처음부터 등장해 남성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4)

## 제2장 본론

-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 : KBS1 '소나기' 7회
- 프로그램 내용요약
  - 노숙인 이상태씨의 하루 일과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처한 상황과 해결책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 총평
  - 프로그램에서는 한 노숙인의 현재 상황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줬다.
  -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작자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개입을 했다는 느낌을 들었다.
  - 한 노숙인 개인을 위한 자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런 자활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 참여로 시청자로 하여금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 물론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렵겠지만 많은 노숙인들이 자활활동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 보는 내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개인이 닦친 상황을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제목 그대로 나눔에 대해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출연자 이상태씨의 하루를 쫓아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 요새같이 사는 것이 힘든 사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사회적인 제도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공짜밥을 먹지 않기 위해 일한다는 일하는 노숙인들의 말.
      - 평소애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평가는 게으르고 공짜만 좋아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들을 보면 더럽고 위험해 보여 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일하는 노숙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하고, 공짜 밥이 아니라

## 제2장 본론

-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 1) 프로그램 후반부에 관찰자 입장이었던 제작진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면서 노숙인 재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장면
      - 프로그램의 초반부 한 노숙인을 통해서 그가 지금 처한 상황과 사회적 인 제도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후반부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의논을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행을 옮긴다.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시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

##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 24-3〉 방송 -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 (6)성별/계층 기타

방송사	프로그램	회차	총평
JTBC	마녀사냥	23회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실제의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재에도 곳곳에 넓게 퍼져있는 편이다. 그러나 <마녀사냥>은 이런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금기를 깨는 것과 더불어 서로 다른 취향과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매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장하면 조금 더 넓은 사회,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것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과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마냥 MC들만 이야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 밖의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방청객들과 이야기 하고, 2부에 나오는 여성게스트 그리고 호모섹슈얼인 홍석천등의 게스트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흥미롭다.
		43회	기본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소재를 택함으로써 선정성으로 흥미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르다. 이는 프로그램에 속하는 한 소재일 뿐인 것 같다. 오히려 기본적인 바탕에는 우리를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과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얘기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 경우, 마지막에 사연과 관련된 컷플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직접 두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관계 유지 및 발전

## 제2장 본론

			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다.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전화연결 등은 방송을 위한 것이 많다. 하지만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사연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과정은 진심으로 커피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마무리가 다소 흐뭇한 느낌이 있던 것 같다.
		55회	MC들이 솔직하지만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알리는 주되 무리한 일반화를 시키지 않아 재미와 나름대로의 유익함을 다 잡은 것 같다. 사연 자체는 남녀의 역할에 관한 이미지, 예를 들어 이번 회차에서 '남자친구의 든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여자친구가 7첩 반상을 내오는 모습' 등이 많이 나오지만 불편하지 않게 다루주고 서로 솔직하기 힘들어 소통하기 힘든 남녀들에게는 긍정적인 프로그램 같다. 다만 알려주는, 분석해주는 코너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타문화가 융합되고 발전될 여자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62회	시청자의 다양한 사연과 4명 MC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때론 진지한 토크가 흥미로운 프로그램임. 이번 방송에서는 기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노출하거나 이용해서 웃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존에 시청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막이나 토크내용도 많아 졌다고 느껴짐.
KBS1	소나기	16회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시청자 후원을 연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내레이션 내용이 다소 부정적, 안쓰럽고, 개인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면이 강하다. 이번 16회 방송의 경우 문화다양성 속성을 평가할 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주인공의 어려운 점과 이를 이해하려는 주변동료와의 대화, 아이들의 밝은 모습, 미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다. 다만 미혼모와 가정폭력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것보다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느낌이라서 아쉬웠다.
		18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은씨의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담아냈음. 정은씨의 밝은 신발을 클로즈업하거나 편찮으신 부모님이 등장하는 화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편집되긴 했지만 이는 후원이 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19회	보육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과 시설의 열악함에도 꿈을 잃지 않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는 부분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보육원이 우리 사회에 왜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보육원의 아이들

## 제2장 본론

SBS	달콤한 나의 도시		은 그저 불쌍한 아이들로만 인식될 것 같다.
		1회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남자와 여자의 인터뷰 등을 담음으로써 시청하는 남자/여자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한 부분은 좋았다. 이런 시도가 후의 회차에서도 많이 보이면 좋겠다. 청춘이라는 위기감 속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서른 즈음의 여자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겠다는 기획 의도는 생각보다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며 도시에서 살고 있는 또래 여자들의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며 삶을 생각하게 만든다.
		1회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여성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찾기는 어렵다. 주로 남성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결혼을 한 기혼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달콤한 나의 도시〉를 통해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성들의 위치는 모두 같지 않으며, 그녀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녀들 하나하나의 삶을 살피면서도 그녀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장면을 배치해 그녀들 또래의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4회	여러 여자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여자들을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남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들과 고민이 많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다양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서 살리는 것 같다.

## 제2장 본론

## 7. [언론]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사 긍정 사례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검색 키워드 : 결혼이주여성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동아일보 문화면 / 2014. 5. 24.
- 기사 제목 : [토요판 커버스토리]다문화 한국 10년
- 기사 총평
  - 다문화가족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기사였다. 그러나 정작 인터뷰 대상자가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장단점만을 말했다. 당사자들의 문제점에 대한 말은 없다. 권리만을 말하지 의무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왜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지 양방향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기사 및 이유

이주여성들은 정부가 아무리 복지 지원을 해줘도, 당사자들이 계속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왕 회장은 다문화가정의 미래에 대해 "애들이 중고교에 들어가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경제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때도 계속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이주여성들의 나이가 20, 30대로 젊을 때 한국어와 기술을 제대로 배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혼이주민은 복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다. 한국인으로 소속감을 주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적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인식을 알려줘서 신선했다.

## 제2장 본론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해당 명칭이 거북하긴 마찬가지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도 한국 사람인데다 모국어도 한국어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다."며 "제발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달라"고 말했다.

→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는 그냥 국민의 한사람으로 구별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동의 한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 가족과 생활하면 다른 가족과 동일한 법체계로 지원과 규율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차별, 역사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적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 이상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의 단일민족 등을 내세워 이주민을 배척하려는 것도 있지만 지원의 대상이라는 것, 예산 지원의 역사별적인 것에 대한 불만 등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적 취득 등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검색 키워드 :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이투데이 사회면 / 2014. 1. 8.
- 기사 제목 : " '다문화 사은품족' ,이주여성 아닌 정책 실패 탓"
- 기사 총평
  - 다문화정책을 실패라고 보는 것이 새로웠다. 다문화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다문화센터 서비스의 문제점에 공감한다. 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의 실패 탓은 이주여성이 아닌 정책이라는 점에서 좋게

## 제2장 본론

평가한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기사 및 이유

결혼 이주여성 네트워크 TAW(터) 정혜실 대표는 “ ‘다문화 사은품족’ 과 같은 부작용은 사전 준비, 의사소통 부재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것인데, 마치 이주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 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다문화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성들의 결혼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탄생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동의한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정 대표는 “결국엔 다문화 지원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네트워킹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다.” 며 “일부 다문화 여성들이 사은품을 주는 곳만 골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도 오해” 라고 말했다.

→ 다문화센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여성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그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층은 남편 혼자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전업주부이며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라며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보도 하고 있어 다문화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다문화관련 일하는 기관들이 알고 참고하면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정책이 개선되는 도움이 되는 기사이다.

## 제2장 본론

－ 기사 전문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다문화 사은품족’ 이라 불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녀들은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네트워크 TAW(터) 정혜실 대표는 “ ‘다문화 사은품족’ 과 같은 부작용은 사전준비, 의사소통 부재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것인데, 마치 이주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듯 한 뉘앙스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 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주여성들은 남성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탄생했다” 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 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센터들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준 것과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전에 예산을 설정하고 진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결국엔 다문화 지원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네트워킹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다” 며 “일부 다문화 여성들이 사은품을 주는 곳만 골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도 오해” 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인인 재중 동포여성은 안산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 조선족 동포회 등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러 단체에 소속돼 있어 프로그램 수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동원되고 있다” 고 부연했다. 다문화센터장이나 지인 등에 얽힌 인맥 때문에 한번 기관과 관계를 맺으면 쉽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중복지원을 막고 다문화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가 개인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층은 남편 혼자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전업주부이며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라며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 검색 키워드 :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여성, 주부
-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충북일보 / 2014. 6. 26.
- － 기사 제목 : 베트남 새댁의 한국생활 이야기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기사 및 이유



## 제2장 본론

한국에 시집온 지 4년차 되는 어엿한 주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맹렬 여성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나와 한 남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씨를 통해 다문화가족이라 불리는 우리 이웃의 애완과 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일반적으로 이주 여성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제결혼은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논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 기사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어느 여성들과 차별적 시선이 비교적 적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무엇보다 지금 배우고 있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제 네일숍을 갖는 게 꿈이에요. 지난번엔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를 번 돈으로 남편한테 향수도 선물해 줬어요. 좋아하는 일이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자격증 꼭 따서 평생 직업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 베트남 여성으로서 입장만을 대변하기보다는 모든 여성의 입장의 대변인으로서 주요린씨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방향이 다소 차별적 시선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도 일반 여성과 다르지 않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이 공감이 되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최상갑 청주출입국 이민통합지원센터장은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체류 외국인수는 2만7천869명에 이르는데 이중 결혼이민자는 1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률 및 정책적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 역시 큰 틀로 확장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새댁 주요린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삶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 제2장 본론

알 수 있었다."그냥 똑같이 대해 주시면 돼요"하는 주씨의 마지막 말이 함축하고 있는 큰 의미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기자의 관점과 더불어 주요린씨가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전업주부 주요린씨가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 기사 전문

"신짜오, 베트남 하이퐁에서 온 드앵티화입니다. 남편이 지어준 한국이름은 주요린입니다. 저는 주요린이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린으로 불러주세요."

수줍게 말하는 주요린(24·비하동) 씨는 외모만으로 보아서는 24살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리고 뽀얀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에 시집온 지 4년차 되는 어엿한 주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맹렬 여성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나와 한 남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씨를 통해 다문화가족이라 불리는 우리 이웃의 애완과 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린씨.

- 국제결혼이라는 남다른 선택을 한 동기와 현재 생활은?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나 언니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시집가서 살고 있던 동네 언니가 남편을 소개해 줬어요. 남편과는 16살이나 차이가 나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같은 취미활동(배드민턴)을 갖고 있어 마음이 잘 맞았고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1달 만에 결혼을 했고, 벌써 결혼 4년차 주부가 되었어요.(웃음) 나이 차이가 많다보니 남편이 저를 아이 취급할 때도 있지만, 항상 보살펴주고 귀여워 해줘서 결혼생활에 만족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남편과 둘이 살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지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겨서 지금은 시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도 좋지만 엄마 아빠(시부모님)가 너무 좋아요."

## 제2장 본론

특히 엄마는 제가 모르면 화내지 않고 알려주시고 딸 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부모님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저는 너무 행복하죠. 아직 아기가 없는데, 빨리 아기도 낳아 저도 엄마가 되어 아기 잘 키우고 싶어요."

- 매일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일들인가.

"자원봉사활동, 네일아트학원 다니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등 제가 하는 일이 아주 많아서 요즘 바빠졌어요.(웃음) 자원봉사활동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도우미(통역 및 안내)로 1주일에 2번 하고 있어요. 국제결혼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피스타트 멘토링프로그램에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청주출입국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갚는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종의 하나예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네일아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자들은 원래 멋 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웃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일아트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10월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베트남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아주 다행이에요. 네일아트는 너무 재미있지만 학원비랑 재료비가 너무 비싸서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요. 취미활동으로 남편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배드민턴을 아주 잘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충청북도대회, 청주시대회에서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에서는 조금 유명해요.(웃음)"

- 앞으로 소망

"무엇보다 지금 배우고 있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제 네일숍을 갖는 게 꿈이에요. 지난번엔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를 번 돈으로 남편한테 향수도 선물해 줬어요. 좋아하는 일이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자격증 꼭 따서 평생 직업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 하고 싶은 말

"한국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왔다고 무조건 불쌍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시집왔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됐다고 하고 불쌍해

## 제2장 본론

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대해주시면 돼요.(웃음)"

요즘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문화인식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다문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우리와 그들을 '다름'으로 가르는 편견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상갑 청주출입국 이민통합지원센터장은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체류 외국인수는 2만 7천 869명에 이르는데 이중 결혼이민자는 1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률 및 정책적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 역시 큰 틀로 확장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새댁 주요린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삶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냥 똑같이 대해 주시면 돼요"하는 주씨의 마지막 말이 함축하고 있는 큰 의미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2장 본론

## 8. [언론] 외국인/인종/타문화 관련 기사 긍정 사례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검색 키워드 : 흑인 외국인 인종차별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영남일보 / 2014. 1. 27.
- 기사 제목 :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 기사 총평

- 최근 본 기사들 중에 가장 괜찮은 기사라고 느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기피한다는 것과 글로벌한 시대에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기사 및 이유

인종차별 문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치의 인종차별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학살됐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도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지만, 대상에 대한 집단 폭력을 수반한다는 데서 심각한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유엔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을 1969년부터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79년부터 조약이 발효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인류보편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지수를 정확한 통계지수로 표현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하고, 또 꺼려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게다가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인 예시로 들면서 좀 더 확실한 주장을 해서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8위의 무역국가가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교민의 수가 700만 명에 이른다.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 제2장 본론

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중 잣대다.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차별을 당연시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중 잣대다. 치열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라.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차별의 선두에 있지 않은가!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 점차 글로벌 시대가 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로부터 차별을 당한다는 내용이 너무 와 닿았다.

## - 기사 전문

얼마 전 미국 뉴욕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노인들이 커피나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한국노인들을 강제로 내쫓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인종, 노인차별이라며 맥도날드 불매운동을 선언했는데, 이 매장이 한국노인들이 백인이나 유대인, 혹은 차별에 민감한 흑인이었다면 강제로 내쫓진 않았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태는 현지 한인 정치인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해당 업체는 공식 사과했고, 한국노인들도 시간대를 조정해 매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이슈화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이 매장에서 한국노인들만 내쫓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단체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까지 거론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맥도날드 측의 사과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을까? 전자라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그런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

인종차별 문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치의 인종차별로 600만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학살됐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도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지만, 대상에 대한 집단 폭력을 수반한다는 데서 심각한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유엔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을 1969년부터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79년부터 조약이 발효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인류보편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종의식은 어떠한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대형 찜질방에 ‘外國人專用洗身室(외국인전용세신실)’이라는 문패가 내걸렸다. 이 찜질방이 골프연습장까지 갖춘 대형 찜질방이라 외국인 배려 차원에서 이 공간을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공간은 외진 곳에 있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샤워기만 달랑 4개

## 제2장 본론

달려있는 곳이었다. 이 ‘특별한’ 공간은 왜 만들어졌을까? 외국인들과 목욕탕을 같이 쓰기 싫어하는 손님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일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손님들과 찜질방만 탓해서는 곤란하다. 세계 인종주의 지도를 기사화한 작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민주화된 국가의 인종차별률은 10% 미만이었다. 단 하나 예외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였는데, 무려 37%가 다른 인종과 같은 동네에 살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남들과의 구분을 통해 자신만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자신의 신체특성이나 가진 것, 생각, 감정, 행동 등이 다른 사람과 구분될 때 자신만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자각할 수 있고, 그런 자각들이 함께 모여 한 사람의 주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자신의 차이는 개성이라 여기고, 자신과 다른 남들의 차이는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는 이중적 가치기준이 차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8위의 무역국가가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해외교민의 수가 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중 잣대다.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차별을 당연시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중 잣대다. 치열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라,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차별의 선두에 있지 않은가!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검색 키워드 : 이민, 교포, 불법체류자, 이민법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경향신문 / 2014. 5. 29.
- 기사 제목 : 미국 이민법 개정은 수많은 우리 교포들의 문제
- 기사 총평
  - 서류미비자로 분류되어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해외교포들의 겪는 어려움과 불안한 지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키워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홍씨의 계획도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민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과 논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이 감정

## 제2장 본론

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미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교포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 보인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기사 및 이유

“우리 가족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낼 수 없어요. 나는 대통령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교포들의 얘기에 귀기울여주고, 이민법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그 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의 NGO와 함께 이민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바람은 ‘서류미비자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홍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 5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 상태”라며 “한국 내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제기하는 이민법 이슈를 알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 친척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민법 개정을 위해 행동하게 하고 싶어요.”

→ 청년 '홍주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대변하는 서류미비자인 해외 교포들의 어려움을 반복적인 문구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을 결정한 것은 본인 의사로서 결정한 것이고, 다른 국가도 아닌 미국에 터를 잡았다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메시지는 곧 미국사회의 이민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청년의 노력임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그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외친 용기 있는 주장이 곧 현실적인 DACA의 결정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속적인 교포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까지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걸로 보아 이민관련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주씨가 계획하고

## 제2장 본론

있는 행위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교포들이 겪는 이민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홍씨는 자신의 이번 방문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고 있다. 한국에 머물며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건 약 20일. DACA는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안타까운 여행을 영상으로 남기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 비록 미국 내에서는 서류미비자인 해외교포이지만, 본질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한 인간'이고 '한 청년'임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아직 그 힘이 미약한 청년으로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창의적인 방식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국내에서 사회 부조리를 알리는 방식으로 공익광고를 UCC나 영상을 이용하고 조회 수를 높이는 쌍방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을 높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통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DACA조치 속에서 그가 가진 고뇌와 나름의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미국 내 여러 해외교포 및 이민법과 관련한 타 이주민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에는 "함께 살아가려는 행동"의 하나로서 인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미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조치로 홍씨의 꿈은 이뤄졌다. 26일 만난 홍씨는 "난 운이 좋은 편이지만, 전체 이민자들 중 DACA의 혜택을 본 이는 매우 적은 편"이라며 "한국 국민들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교포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고, 이민법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단순히 홍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포들에게까지 그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 제2장 본론

때문이다.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홍씨가 했던 작은 행동이 DACA까지 (비록 일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끌어냈던 점을 미루어보아 더 발전된 행정적 조치 및 입법을 통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 작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 대다수가 갖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 - 기사 전문

"우리 가족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낼 수 없어요. 나는 대통령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한 청년의 외침으로 중단됐다. 그는 11살 때 어머니와 미국에 왔지만, 영주권을 얻지 못해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가 된 한국인 청년 홍주씨(25)였다. 서류미비자의 애환을 토로하는 그의 외침에 다른 청중도 호응했고, 이는 주요 언론을 통해 미 전역에 보도됐다.

이민법 문제로 미국을 떠돌아다녔던 홍씨가 지난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어머니와 미국에 건너간 지 13년 만이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해외 방문을 할 수 없지만, 미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조치로 홍씨의 꿈은 이뤄졌다. 26일 만난 홍씨는 "난 운이 좋은 편이지만, 전체 이민자들 중 DACA의 혜택을 본 이는 매우 적은 편"이라며 "한국 국민들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교포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민법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씨 가족이 서류미비자가 된 건 1997년 외환위기가 발단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경제난 속에서 파산하자, 어머니는 큰딸과 홍씨를 데리고 미국행을 선택했다. 절박한 마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차차 이민비자를 받으려 했으나,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비자 취득의 과정은 까다롭고 지났다.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데 제 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알려주셨죠.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취업 허가조차 안 나니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불법체류의 주홍글씨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대학 진학은 제한됐고, 정식으로 취업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어도 추방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 홍씨는 "난 원래 외향적이었지만,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며 "한때 우울증

## 제2장 본론

에 빠져 자살할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의 헌신을 보며 포기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고 전했다.

홍씨는 그 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의 NGO와 함께 이민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바람은 ‘서류미비자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홍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 5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 상태”라며 “한국 내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제기하는 이민법 이슈를 알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홍씨는 자신의 이번 방한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고 있다. 한국에 머물며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건 약 20일. DACA는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안타까운 여행을 영상으로 남기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족, 친척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민법 개정을 위해 행동하게 하고 싶어요.”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검색 키워드 :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한겨레 / 2014. 7. 28.
- 기사 제목 : 르포 “울부짖는 가자”
- 기사 총평

-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폭탄과 테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구 내에도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통해 안식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 세부 내용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마흐무드는 “잠깐 임시휴전이 된 동안 우리 가족은 겨우 사자야아를 빠져나와 여기로 왔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 전차포에 파괴됐다. 온 가족이 무사한 것은 알라 덕분이다.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 본 것은 난생처음이다.

## 제2장 본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은 팔레스타인인이다.” 라고 말했다.

피난민 수가 급증하자 이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 난민을 맞이했다. 알렉시오스 대주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 문을 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 종교가 같고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대주교는 “사람들은 모스크보다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미 많은 모스크들이 폭격에 부서졌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했다.

→ 팔레스타인, 알라, 기독교, 이스라엘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대립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지구 내 기독교 교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히잡 여인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내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이용되는 종교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을 구하는 종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과 서구의 끊임없는 갈등이 종교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 손에는 코란(꾸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이슬람교가 폭력적으로 타 종교를 배척한다는 편견은 오해다. 코란의 2장에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라는 구절이 있고, 지금까지 중동을 여러 번 취재하는 동안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강요하는 무슬림은 한명도 없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근원은 석유 패권과 관련된 서구의 중동 정책과 유대 민족주의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진정한 종교적 화해가 이뤄지고 있는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에서, 종교를 내세우며 학살을 거듭하고 있는 역설을 가슴 아프게 고민하게 된다.

→ 자칫하면 전쟁 중 미담에 그칠 수 있는 기사를, 실제 종교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야기된 종교 갈등이라는 점으로 결론 내어 명기한 점이 무척 긍정적인 부분이다.

## - 기사 전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가장 유서 깊은 지역 중 한 곳인 가자시티 자이툰

## 제2장 본론

구역에는 그리스정교 예배당인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가 15 세기 이래 근처 윌라야 모스크와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100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300 명이 넘는 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피해 이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다. 샤자이아에서 교사로 일하던 마흐무드 아부 제흐라의 대가족 22 명도 이곳에 머물고 있다. 샤자이아는 얼마 전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마을 한곳에서만 70 명 넘게 목숨을 잃은 곳이다. 마흐무드는 “잠깐 임시휴전이 된 동안 우리 가족은 겨우 샤자이아를 빠져나와 여기로 왔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 전차포에 파괴됐다.

온 가족이 무사한 것은 알라 덕분이다.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 본 것은 난생처음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은 팔레스타인인이다” 라고 말했다. 피난민 수가 급증하자 이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 난민을 맞이했다. 알렉시오스 대주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 문을 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 종교가 같고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대주교는 “사람들은 모스크보다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미 많은 모스크들이 폭격에 부서졌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했다.

가자지구에는 약 1400 명(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포함)의 기독교인이 있다. 전체 인구 18 만 명 중 99.9% 이상이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0.1%도 안 된다.

하지만 407 년에 세워져 1600 년 넘게 신앙을 지켜온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처럼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공존해왔다.

26 일 교회의 작은 마당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건물 안 예수 성화 아래에선 히잡을 쓴 무슬림 여인들이 평화롭게 잠을 청하거나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기도시간이 되자 십자가가 그려진 문 앞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하는 난민들도 보였다. 며칠 전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교회에 파편이 날아든 적도 있고 간간이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교회 건물에 직격탄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써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좁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피난민이 몰려든 데다 갓난아기를 비롯한

## 제2장 본론

어린이들을 먹일 식량 등도 충분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유엔이 운영하는 임시대피소 7 여 곳도 이미 10 만 명이 넘는 난민으로 한계점에 다다랐고, 최근엔 그중 한 곳이 폭격을 받아 16 명이 숨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과 서구의 끊임없는 갈등이 종교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 손에는 코란(꾸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이슬람교가 폭력적으로 타 종교를 배척한다는 편견은 오해다. 코란의 2 장에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라는 구절이 있고, 지금까지 중동을 여러 번 취재하는 동안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강요하는 무슬림은 한명도 없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근원은 석유 패권과 관련된 서구의 중동 정책과 유대민족주의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진정한 종교적 화해가 이뤄지고 있는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에서, 종교를 내세우며 학살을 거듭하고 있는 역설을 가슴 아프게 고민하게 된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4)

- 검색 키워드 : 조선족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경향신문 / 2014. 7. 15.
- 기사 제목 : [기고]엔벤조선족자치주 가치 재발견하다
- 기사 총평
  - 조선족의 역사와 그들의 현재 문제 상황을 밝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한국본토인들과 다름이 없음을 드러내었으며, 인구유출 및 경제력 약화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한 것과 마찬가지로 엔벤조선족자치주는 조선의 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피땀으로 삭이며 조성한 ‘마음속의 나라’이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한반도 지키기에 급급했던 우리 민족에게 유민들의 간도 진출은 새로운 희망을 쓴 일대 사건이었다. 고구려의 부활을 추구한 고려의 꿈이 정도전의 조기 퇴출로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화초같이 유약한 나라가 아니라 잡초처럼 강건한 유민들이 불씨를 되살렸기 때문이다.

## 제2장 본론

초창기 간도의 건설은 이상설과 김좌진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였지만 식민통치가 심화된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20년 청산리 전투와 1937년 보천보 전투에서 시작해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 시차와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도 이주민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중일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진 참화 속에서 어렵게 개척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피를 흘려야 했다. 이에 자치주 출범을 선도한 주덕해는 회고록을 통해 연변을 위협했던 일제, 군벌, 미제를 싸잡아 비난했다. 나아가 경위야 어찌되었건 한때 전쟁 상대였던 한국에 대한 감정의 잔재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취업비자 발급이 용이해지고 한국발 송금액이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서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 본토는 물론 한국 기업의 영향권인 중국 대도시로의 조선족 엑소더스는 고귀한 피땀으로 만들어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치주 내 시와 현 중에서 사정이 나은 연지시와 룡정시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절반을 위협받고 있고 실거주 인구는 절반에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 조선의 유민들이 간도로 이주해 미지의 땅을 개척한 역사, 또 중일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의 참화를 밝히며 그들이 흘렸을 수많은 피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한국과 한국기업의 영향으로 무너질 상황에 처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의 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피땀으로 삭이며 조성한 '마음속의 나라'이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한반도 지키기에 급급했던 우리 민족에게 유민들의 간도 진출은 새로운 희망을 쓴 일대 사건이었다. 고구려의 부활을 추구한 고려의 꿈이 정도전의 조기 퇴출로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화초같이 유약한 나라가 아니라 잡초처럼 강건한 유민들이 불씨를 되살렸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해 차별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달리,

## 제2장 본론

필자는 조선족자치주가 건립된 역사를 밝히며 그들이 염원한 한민족이며 그들의 업적과 태도를 높이 세우고 있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그렇다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우리 민족이 열망하는 '희망과 도전의 나라'로 계속 남아있도록 유도하는 한국 정부의 지원자적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보다 가까이, 더욱 심각한 북한 문제의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변 공동체의 활성화에 초점이 부여된 정책목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변의 위기'와 '북한의 절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혼합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재조명된 두만강 경제벨트 구상은 개성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노하우를 적절히 조합할 경우 우리 민족의 영원인 고토 수복의 과업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변과 북한의 접경인 두만강 일원에 다국적 이해관계를 결합한 다목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최북단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창안한다면 북한의 개방과 연변의 정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 경제벨트 성공의 당위성은 통일대박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에 부가해 압록강 상류 장백현과 헤산시가 수십m에 불과한 강폭을 사이에 두고 연출한 '갈라진 도시 노갈레스'의 비극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강 건너 북한에 비해 사정이 나은 연변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성장기 자녀들과 생이별하는 '가정파괴의 비극'을 간접적 원인 제공자인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배려가 내재되어 있다.

→ 조선족자치주가 인구 유출로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연변에 걸친 경제벨트 조성을 통해 자치주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사 전문

7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간에 필자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발전전략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한 아시아포럼 멤버들과 같이 현지 명망가 대담과 다양한 방문기회를 통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의 유민들이 망국의 한을 피땀으로 삭이며 조성한 '마음속의 나라'이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한반도 지키기



## 제2장 본론

에 급급했던 우리 민족에게 유민들의 간도 진출은 새로운 희망을 쓴 일대 사건이었다. 고구려의 부활을 추구한 고려의 꿈이 정도전의 조기 퇴출로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화초같이 유약한 나라가 아니라 집초처럼 강건한 유민들이 불씨를 되살렸기 때문이다.

초창기 간도의 건설은 이상설과 김좌진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하였지만 식민통치가 심화된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20년 청산리 전투와 1937년 보천보 전투에서 시작해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 시차와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도 이주민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중일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진 참화 속에서 어렵게 개척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피를 흘려야 했다. 이에 자치주 출범을 선포한 주덕해는 회고록을 통해 연변을 위협했던 일제, 군벌, 미제를 썩잡아 비난했다. 나아가 경위야 어찌되었건 한때 전쟁 상대였던 한국에 대한 감정의 잔재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취업비자 발급이 용이해지고 한국발 송금액이 연간 10억달러를 넘어서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 본토는 물론 한국 기업의 영향권인 중국 대도시로의 조선족 엑소더스는 고귀한 피땀으로 만들어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치주 내 시와 현 중에서 사정이 나은 연지시와 룡정시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절반을 위협받고 있고 실거주 인구는 절반에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우리 민족이 열망하는 ‘희망과 도전의 나라’로 계속 남아있도록 유도하는 한국 정부의 지원자책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보다 가까이, 더욱 심각한 북한 문제의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변 공동체의 활성화에 초점이 부여된 정책목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변의 위기’와 ‘북한의 절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혼합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재조명된 두만강 경제벨트 구상은 개성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노하우를 적절히 조합할 경우 우리 민족의 염원인 고도 수복의 과업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변과 북한의 접경인 두만강 일원에 다국적 이해관계를 결합한 다목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최북단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창안한다면 북한의 개방과 연변의 정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 경제벨트 성공의 당위성은 통일대박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에 부가해 압록강 상류 장백현과 해산시가 수십m에 불과한 강폭을 사이에 두고 연출한 ‘갈라진 도시 노갈레스’의 비극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강 건너 북한에 비해 사정이 나은 연변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성장기 자녀들과 생이별하는 ‘가정파괴의 비극’을 간접적 원인 제공자인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배려가 내재되어 있다.

## 제2장 본론

## 9. [언론] 장애인 관련 기사 긍정 사례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검색 키워드 : 장애, 장애인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동아일보 / 2014. 3. 15.
- 기사 제목 : “평생 지켜줄 수 없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
- 기사 총평

- 20대 사이에는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장애인 같아”라는 말이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보다가도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들에게는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조심스럽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생활하는데 단지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주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그 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자는 생각이 들게 하는 좋은 오피니언이었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자폐증, 다중중후군 등을 지닌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표현력, 자기결정력이 부족해 성인이 돼도 자립이 불가능하다. 지적장애를 동반해 차별, 학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가수 김태원은 “아내의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20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다.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해주고, 우리 삶에서 가까운 예시를 들어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동반한 사람들은 차별, 학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다른 기사들을 읽다 보면 지적장애를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제2장 본론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 로즈메리와 함께 자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3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교육 자립 취업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이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인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해 똑같은 선진국 대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체제가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한정된 재원으로 부자들까지 똑같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촘촘히 지원해야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다.

→ 무엇보다도 복지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이게 배분하려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재원이 제공되어야 사회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진다.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진정한 복지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기사 전문

광주에서 다섯 살짜리 발달장애아를 둔 기모 씨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모 씨 부부는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이 결국 발달장애 판정을 받아, 가족으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부담과 고통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달 2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도 4세 아들의 더딘 성장으로 우울증을 앓던 30대 주부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투신했다. 작년 11월 서울에선 17세의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던 40대 가정이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동반 자살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사건은 취약한 장애인

## 제2장 본론

복지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자폐증, 다운증후군 등을 지닌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표현력, 자기결정력이 부족해 성인이 돼도 자립이 불가능하다. 지적장애를 동반해 차별, 학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가수 김태원은 "아내의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20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 로즈메리와 함께 자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3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교육 자립 취업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이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에 이어 무상 교통 공약이 나올 만큼 포괄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정된 재원으로 부자들까지 똑같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촘촘히 지원해야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다. 광주 일가족의 자살은 꼭 필요한 곳에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검색 키워드 : 장애, 장애인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경향신문 / 2014. 7. 29.
- 기사 제목 : 휠체어 타고 그린 '장애인 여행지도'
- 기사 총평

- 처음에 기사를 접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에 '신선하네!'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공감/소통] [동등/공존] [융합/발전]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읽었을 때 훌륭한 기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장애인이라는 용어와 장애인의 작업 참여라는 소재가 쓰여 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 복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군복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자신과 같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젊은이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에 근무 중인 유경재씨(28)가 주인공이다.

프로젝트 참가자 중 유일한 장애인인 유씨는 "장애인이 외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 제2장 본론

아니다”라며 “지인과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장애인도 분명히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짐작해 늘 가던 곳만 갔다”고 말했다

→ 위의 기사는 하반신 마비라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지도 제작에 나선 유경재씨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유추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가진 고충을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어 공감과 소통이 잘 표현된 것 같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유씨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을 위한 여행지도 그리기’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변화가, 문화시설 주변의 휠체어 이동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화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말부터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작업을 해오던 중 물리치료사인 지인의 권유로 유씨가 올해 5월 합류하게 된 것이다.

→ 먼저, 하반신 장애인들도 함께 생활하는 사회라는 인식하에 비장애인들이 지도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 초기의 경우, 비장애인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장애인 복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유씨와 같은 장애인 역시 지도 만들기 작업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 실현된 것 같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유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봉사자들이 안대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과 같은 느낌일지 의문이 들었다”며 “내가 나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선뜻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씨의 참여로 지도 정보가 훨씬 풍성해지고 작업에 활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 작업을 하다 보니 의외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걸 알게 됐다”면서 “여러 장애인들과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제2장 본론

→ 위에서의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융합이 잘 표현된 것 같다. 또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에 작업이 능숙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을 휠체어 사용자가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단순 원조를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의 이동 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여행지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 이다.

- 기사 전문

군복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자신과 같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젊은이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에 근무 중인 유경재씨(28)가 주인공이다.

유씨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을 위한 여행지도 그리기’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변화가, 문화시설 주변의 휠체어 이동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화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말부터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작업을 해오던 중 물리치료사인 지인의 권유로 유씨가 올해 5월 합류하게 된 것이다.

유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봉사자들이 안대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과 같은 느낌일지 의문이 들었다”며 “내가 나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선뜻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씨의 참여로 지도 정보가 훨씬 풍성해지고 작업에 활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참가자 중 유일한 장애인인 유씨는 “장애인이 외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인과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장애인도 분명히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짐작해 늘 가던 곳만 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 작업을 하다 보니 의외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걸 알게 됐다”면서 “여러 장애인들과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학 재학 중 2007년 군에 입대한 그는 유격훈련 중 밧줄 매듭이 풀려 추락, 척수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2년간 병원 신세를 진 유씨는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실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그를 세운 것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휠체어 펜싱’이다. 재미를 붙여 운동에 전념했고 4년 연속 전국체전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포기하려 했던 학업도 재개해 올해 한성대 행정학과 학사모를 썼다.

## 제2장 본론

유씨는 휠체어 펜싱을 하는 동료들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했다. “무수한 사람들이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저 역시 받았기 때문이죠.”

## 제2장 본론

## 10. [언론] 기타 계층 관련 기사 긍정 사례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1)

- 검색 키워드 : 입양, 여성, 위탁모, 입양아동수당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동아일보 / 2014. 5. 12.
- 기사 제목 :
- 기사 총평

- 입양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실제로 입양을 실천한 사례를 들어 그가 이웃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여러 가족 형태 중의 하나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님을 독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위탁모의 사례 역시 입양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라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 하나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자료는 입양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특별히 포상을 해야 할 만큼 입양관련 활동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그는 직접 낳은 두 아들을 뒀지만, 2000년과 2007년에 두 딸인 유진 양(14), 유미 양(7)을 입양했다. 이때부터 여러 초중고교에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입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관련 강사를 초빙해 후원하는 등 입양 홍보에 힘써 왔다. 아울러 신문이나 라디오, 잡지 등에 출연해 입양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대구에 사는 백을생 씨(48)는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2005년부터 입양기관에서 ‘위탁모’로 활동하면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을 때까지 돌봤다. 백 씨는 “좋은 부모를 만나 떠나가는 아이를 보면 행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며 “하지만 입양을 간 뒤에 부모의 품에서 찍은 사진을 받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을 만큼 우리사회에서 입양하는 집단과 입양이 된

## 제2장 본론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을 수여한 분들의 사례는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입양관련 홍보를 하거나 위탁모로서 활동을 자처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입양이 개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경우 바람직한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두 딸을 입양한 전형찬 씨(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가족사진. 그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입양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입양은 그냥 단어일 뿐입니다. 입양 가족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사회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는 불편한 시선들을 깨고 입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자 한 전형찬씨의 노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여느 혈연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조부모와 구성된 가족이나 결국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역시 동등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입양하는 것이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몰래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가족이 형성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때문이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 대상은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복지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위의 사례와 같이 표창을 수여 하거나 포상을 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계획한 것을 언급한 부분은 정책홍보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홍보 및 격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 제2장 본론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경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두 딸을 입양한 전형찬 씨(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가족사진. 그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입양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전형찬 씨 제공 “입양은 그냥 단어일 뿐입니다. 입양 가족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익산시 삼기농업협동조합에서 과장대리를 맡고 있는 전형찬 씨(57)는 제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접 낳은 두 아들을 뒀지만, 2000년과 2007년에 두 딸인 유진 양(14), 유미 양(7)을 입양했다. 이때부터 여러 초중고교에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입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관련 강사를 초빙해 후원하는 등 입양 홍보에 힘써 왔다. 아울러 신문이나 라디오, 잡지 등에 출연해 입양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복지부는 이날 전 씨를 포함해 총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별도의 기념식은 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포상만 전달했다. 대구에 사는 백을생 씨(48)는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2005년부터 입양기관에서 '위탁모'로 활동하면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을 때까지 돌봤다. 백 씨는 “좋은 부모를 만나 떠나는 아이를 보면 행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며 “하지만 입양을 간 뒤에 부모의 품에서 찍은 사진을 받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해 입양 규모는 총 922명(국내 686명, 국외 236명)으로 전년(1880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2012년 6926명에서 지난해 60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미혼모(부)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455명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 대상은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김동성 안성하늘꿈교회 목사가 대통령 표창을, 김경아 씨, 김수정 한국어린이합창단장, 박기성 삼덕회계법인 이사, 이희송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상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나머지 18명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제2장 본론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2)

- 검색 키워드 : 성소수자,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호모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문화일보 문화면 / 2014. 8. 19.
- 기사 제목 : 시공간 넘나들며... 性소수자의 정체성 찾기
- 기사 총평
  - 꽤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성소수자를 접해 본 경험이 없다. 여고이니만큼 성소수자가 꽤 있었을 법 하건만, 전혀 없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성소수자들이 내게 커밍아웃하는 것을 보며 나의 성적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된 것 같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이성애자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것이 결론이었지만, 성소수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 물론 성소수자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이니만큼 '정상'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그 테두리 자체를 고민하는 것만큼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어쨌거나 다들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동질감만큼은 나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도 내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 세부 내용

##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나는 누구인가' 올해 연극열전 두 번째 작품인 연극 '프라이드' 는 이 같은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지난 2008년 영국 로열코트극장에서 초연돼 평단의 극찬과 함께 비평가협회상 등을 휩쓴 '프라이드' 는 성소수자를 다루지만 이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당신)는 누구인가' 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이다.

1958년과 2014년 이야기를 넘나드는 연극은 주인공들이 사회와 불화하고, 개인적 관계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 다음과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라면 사실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 보지 않아서 그 문화를 제대로

## 제2장 본론

알지 못 하기는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성소수자 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상가족이라는 상에 너무 집착한다고나 해야 할까. 이러한 '민감한 반응'은 그렇기에 문화 전반에서 그 느낌이 묻어난다. 글, 뉴스 등등의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그들의 특이성을 너무 의식하면서 쓴다거나 '우리'라는 비교적 배타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제스처를 강하게 취하거나, 동성애를 낯설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기사는 그런 면을 다소 적게 보이는 편이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고민과 문제가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가지는 의미를 실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당신)는 누구인가'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이다. 즉 이러한 질문을 드러내고 상정함으로써 성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이것은 곧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2014년,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다. 시대 변화를 보여주듯 필립과 올리버는 공식 연인 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뜻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필립은 게이잡지 칼럼니스트인 올리버의 자유롭고 충동적인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비아는 가치관이 달라서 늘 다투는 둘을 화해시키려 애쓴다.

→ 필립은 시간을 거쳐 가며 그 애정 관계가 변화한다. 1958년 실비아와의 부부관계에서 2014년 올리버와의 연인관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동성애자는 커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 결말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맞추어가거나 문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이성에 커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성에 커플이든 동성에 커플이든 둘 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문제라는 것을 따라서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이는 같은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름은 인정하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제2장 본론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1958년과 2014년 이야기를 넘나드는 연극은 주인공들이 사회와 불화하고, 개인적 관계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 이 연극은 성소수자를 소재로 다룬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인정하는 보편적 공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차이를 말한다. 또한 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성애 동성애에서 벗어나, 위 원문의 부분을 언급한다. 즉 어쨌거나 이는 사람이 사는 문제라는 것, 그런 점에서 차이를 인정하되 발전하는 양상과 의식을 '연극'이라는 문학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점을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융합, 발전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 - 기사 전문

'나는 누구인가?' 올해 연극열전 두 번째 작품인 연극 '프라이드' 는 이 같은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지난 2008년 영국 로열코트극장에서 초연돼 평단의 극찬과 함께 비평가협회상 등을 휩쓴 '프라이드' 는 성소수자를 다루지만 이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당신)는 누구인가' 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이다.

작품은 1958년과 2014년, 남과 다른 삶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와 차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올리버, 필립과 실비아의 이야기를 교차해 풀어나간다.

1958년 체면을 중시하고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필립과 실비아 부부의 집에 자유로운 동화작가 올리버가 방문한다. 억압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필립은 올리버에게 끌리자 스스로의 감정에 당황하고 괴로워한다. 실비아는 필립과 올리버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알아차리고 불안해한다.

2014년,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다. 시대 변화를 보여주

## 제2장 본론

듯 필립과 올리버는 공식 연인 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뜻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필립은 게이잡지 칼럼니스트인 올리버의 자유롭고 충동적인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비아는 가치관이 달라서 늘 다투는 둘을 화해시키려 애쓴다.

1958년과 2014년 이야기를 넘나드는 연극은 주인공들이 사회와 불화하고, 개인적 관계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다양한 무대 메커니즘에 따뜻한 감성을 담은 김동연이 연출을, 연극 '모범생들' 의 작가 지이선이 각색을 맡았다. 연극 뮤지컬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중인 배우 이명행, 김소진, 최대훈, 김종구, 오종혁, 반은석 등이 출연한다. 오는 11월 2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계속된다.

#### □ 긍정 사례 모니터링 기록지 (3)

- 검색 키워드 : 성별, 성소수자

- 언론사 및 기사 송고일 : 한겨레 / 2014. 9. 13.

- 기사 제목 : 신가족의 탄생 /우리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당신은 나의 동반자

- 기사 총평

- 게이, 동성애, 레즈비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소개했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의 가치를 부담 없이 깨닫게 해주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삶을 들려줌으로써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소개된 가족이 교수, 회사 대표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계층이기에 내 마음이 더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 세부 내용

- [공감/소통]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생각해보면 그렇다. 나의 비밀, 나의 꿈,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등을 나의 삼촌, 이모, 부모 혹은 나와 결혼하는 이성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란 법은 없다. 평생을 동물복지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에게 일상의 관심사는 동물이다. 딱히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 그에게는 자신의 이런 고민

## 제2장 본론

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누군가가 더 가족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민법(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개념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닌 삶을 나누고 이해하는 단위로 접근하여 공감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 [동등/공존]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령이다. 두 교수의 생활도 여느 가족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 혈연관계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인터뷰 하는 기자의 입장이 보인다. 이성애자로 결혼한 가족들과 다름 없음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 [융합/발전]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장면 및 이유

비록 소수이지만 엄연히 혈연관계나 결혼과 같은 전통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생활방식의 변화로 어쩌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가족이 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 혈연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외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안보인다 하는 것과 같다. 기자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재촉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과 같은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따라 생존력이 있다는 기자의 내면이 보인다.

## - 기사 전문

김조광수(49·청년필름 대표), 김승환(3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는 국내 첫 동성 부부로

## 제2장 본론

불린다. 실제로는 결혼한 동성 부부가 더 있을 테지만 결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국가에 신고하지도 않기에 국내에 동성 부부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김조광수 커플의 결혼과 삶이 한국 동성 부부의 역사이고, 삶이 곧 기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성결혼의 인정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동성 부부는 현재의 우리 법률 체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난 1일 김조광수 부부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혼집에서 만났다. 지난해 9월7일 결혼해 이들은 곧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자 깔끔한 집안 상태가 눈에 띄었다. 선풍기와 화분 세개를 제외하고 거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를 마친 옷들이 빨래걸이에 걸려 있었다. 김조광수씨는 주로 물걸레로 하는 작은 청소, 김승환씨는 집안 재정비 등 큰 청소를 담당한다고 한다.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앞에는 'GS 러브 SH' 라는 글자 모형이 놓여 있었다. 사랑의 기운이 넘쳐난 여느 신혼부부의 집과 별 차이가 없었다.

두 부부가 기자를 활짝 웃으며 맞았다. "잘 살고 계신가요?" 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순간, 인사가 좀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두 부부가 잘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한 듯한 질문 같았다. 김조광수 감독이 답했다. "네, 잘 살고 있죠." 짧지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답변이었다. 김조광수 부부와 기자가 함께 웃었다.

어색하고 무의미한 질문을 던진 뒤 바로 두번째 질문으로 옮겨갔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건 뭔가요?" 김 감독이 이번에는 좀 길게 답했다.

"달라졌지요. 저희 결혼 이전에 승환씨 부모님에게 저는 아들의 남자친구였을 뿐이었어요. 잘 해주시긴 하는데 가족 간에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아버님(승환씨 아버지)께서 서울로 출장을 오셨을 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마침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과 저 둘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승환씨 누나의 이사 문제를 저와 자연스럽게 상의하셨어요. 대화를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느낀 거죠.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상의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구나.' 그 이후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함께 상의하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은 둘 사이를 안정시켰다. 연인 사이일 때는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고 남들 앞에서 한 서약은 아무리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둘 사이의 결속을 단단하게 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승환씨의 말을 듣고 광수씨가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고, 목욕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아도 좋아요. 같이 살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하지만 둘은 법적으로 여전히 남남이다. 결혼 신고를 했지만 서대문구청은 받아주지 않았다. 현재 법적 소송 중이다. 승환씨가 주민세 고지서를 방에서 가져와 기자에게 내밀었다.



## 제2장 본론

8월분 고지서가 각각 광수씨와 승환씨의 이름 앞으로 배달돼 있었다. 배달된 주소는 같았다. 둘은 각자 6000원씩 총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광수씨가 “원래 주민세는 한 가정에 하나씩 내는 건데 우리 부부는 주민세를 두 배로 내야 한다”며 투덜댔다.

“뺑집 마일리지조차 함께 못 쓴답니다”

뿌리 깊은 이성에 중심의 가족관은 정부의 제도에만 박혀 있지 않다. 동성 부부는 배우자가 아파도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함부로 쓸 수 없다. 지난해 광수씨는 부정교합 교정 수술을 받았다. 보호자의 수술동의서가 필요한 일이었다. 다행히 병원은 승환씨가 수술동의서를 쓰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유명 동성애자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각자 적립해서 써야 해요. 원래 가족끼리는 합산해 쓸 수 있거든요. 항공사에 우리도 합산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 안 된다더군요. 하다못해 뺑집 마일리지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합산해 적립할 수 없어요.” 광수씨가 웃으며 설명했다. 차별받는 게 너무 일상적이라 생긴 마음의 여유일 것이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을 원한다. 다만 그 이전에 동거가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단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기까지 사회적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동안 남들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결혼권을 요구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는 평등권을 위한 싸움이고요. 생활동반자법의 요구는 다양한 동거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라는 자유권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광수씨가 설명을 이어갔다. “생활동반자법이 생기면 동거가족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독거노인도 줄어들 겁니다. 정부는 계속 노인돌보미의 수를 늘릴 고민만 하고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부부에게 평생 함께할 생각이나고 역시 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물론 평생 함께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견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은 편견이에요.” 둘은 9년을 사귀 뒤 지난해 결혼했고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다. 둘이 함께한 기간은 벌써 10년이다.

성소수자 3159명을 상대로 이뤄진 ‘한국 성소수자(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2014)를 보면, 11.6%가 연인과 동거하고 있다. 40대 이상 응답자의 51.2%가 연인과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32.6%가 동거하고 있다. 연인과 동거 중인 성소수자 중 80.9%가 공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이들은 믿는다.

## 제2장 본론

## 11. [언론] 영역별 기사 비교 모니터링

## □ 모니터링 기사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동일한 검색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평가함

〈표 25-1〉 언론 - 기사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검색 키워드	비교평가
결혼 이주여성	<p>삼성과 SM엔터테인먼트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두 기사로, 어쨌든 핵심은 삼성과 SM엔터테인먼트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한다는 말인데, A기사에서 박춘화씨의 커리어 언급과 개인사가 오히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 카테고리 분류되어 한류통역사가 주어진 느낌이 들어, 기사로 인터뷰한 당사자인 박춘화씨의 개성이 사장된 것 같고, B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친정 부모님들의 애기들을 함께 다루어 주어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p> <p>기사A는 보고에 지나지 않지만 숫자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느낄 수 있는 impact가 있었다. 기사B는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생각도 행동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내외국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다.</p>
이주민	<p>기사A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모습과 이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 오취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소통과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B의 경우 적절하지 못한 네티즌의 반응이라는 기사문을 통해 여러 편견을 보여준다. '흑형'이라는 단어나 대통령이 꿈인데 뭐하고 있냐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인종, 외국인 노동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p> <p>A는 미등록이주아동의 문제를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기술하며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에 비해 B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여 유엔아동인권협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에서의 관련 법 제정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기술하고 있다.</p>
계층-학력	<p>출국만기보험금의 개정을 두고 A기사는 정부와 이주노동자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실었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 개정임이 명백하다. B기사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법의 불합리한 점들을 잘 부각시켰고 그로인한 문제점까지 언급함으로써 법 개정이 잘못되었음을 독자로 이야기해주었다.</p> <p>기사A를 읽으면 희망적이다. 우리나라에도 학력에 상관없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현실이 그럴까라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기사B를 살펴보면 임원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대출자 중에서도 엘리트들만이 허락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계급화,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학력은 곧바로 경제적 계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고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졸'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미 '고졸'을 차별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으니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p>

## 제2장 본론

	이와 같은 행태는 고졸이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며 경쟁에서 도태시키기도 하며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자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결코만 보여주며 아름답게 덮는 형세이다. 결론적으로 '고졸'이 괜찮다고 하기 보다는 대기업 임원들은 모두 대졸 중에서도 엘리트인데 고졸은 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더욱더 문제시해야 할 것이다.
계층-경제 수준	기사 A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사 B는 고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 그들이 기사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와 외모지상주의 속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사람들은 언론이 보여주는 내용에 상당수 의존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언론이 부의 양극화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는 기사를 작성한다면 사람들의 인식 역시 이쪽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계층-군인, 군입대	기사A와 기사B의 가장 큰 차이는 '다양성'이다. 기사A의 경우에는, 영웅화를 하지 말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웅담을 다루는 뉴앙스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사B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서 실제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남다른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흐름의 변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계층-범죄	A와 B 기사를 읽으면서 공감이 전해지는 기사란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다. 사실 두 기사에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범죄자라는 대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일 것이다. A기사는 범죄자를 마치 괴물이며 그 괴물이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이슈 만들기 위해 급급한 기사를 보여주었으며 반면에 B기사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배척하고 이해를 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A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외국인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국가들을 나열함으로 해당 국가의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상대로 인식을 시켜 놓았다. 또한 그들이 살인과 강간, 절도 등 국가에서 정해 놓은 5대 범죄에 기사 비중을 가하여 기타 범죄(살인, 강간보다 경미한 범죄 : 지능범죄, 도박 등)의 빈도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과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중시켰다.
	어찌 보면, B 기사에서는 이런 외국인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라면,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심어주었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덜 느낄 수 있게 함)
성소수자	A기사는 장씨가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통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강조하였고 B기사는 힘들고 소외된 우리 사회의 이면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먼저 배려하고 찾아간다는 새로운 시도를 강조하였다. 위 기사들을 통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정부기관에서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UN의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알 수 있는 기사였다. A기사의 경우, 다른 매체 기사 인용을 토대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전달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한계점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B기사의 경우, 차별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 등 보다 자세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에 치중해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동일

## 제2장 본론

	사건에 대한 기사제목에서 실제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기사의 요점은 UN이라는 초국적 기관의 차별 철폐에 대한 발걸음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A기사의 제목은 한국 출신의 사무총장 이름을 앞세움으로써, UN 자체의 존재 의미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듯 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기사 A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한 반면에 기사 B는 행간 안에도 소수자를 배제하고 배척하려는 많은 노골적인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 두 기사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고 어느 정도 편중된 것은 사실이나 B기사에서는 그 방법이 A에 비해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부재되어 있다.
	기사A는 신춘상가 번역회의 도움을, 기사B는 미국과 유럽국가의 대사관과 구글의 지지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사A는 사회면에, 기사B는 연예 면에 실려 있다. 이는 기사A가 동성애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과 소통, 공존함을 보여주고 관련 주제가 주요 사회 쟁점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기사B는 그저 즐기고, 영향력 있는 기관이 소통이 아닌 지지를 보여주는 볼거리 정도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기사는 성소수자로서 게이의 삶을 다룬 연극을 소개하는 기사다. 하지만 둘은 확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로 기사 전달 방식에 있어서 기사A는 연극의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썼고 기사B는 출연배우인 인스타그램을 소재로 해서 연극 소개를 덧붙여 썼다. 두 번째로 A기사는 게이와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다룬 연극인지에 대해 소개하지만 B기사는 게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고 마지막에 짧막하게 남기고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A기사는 성소수자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독자에 대한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세대	두 기사 모두 작년 아동학대에 의해 숨진 아이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2001년 이후의 통계를 들어 아동학대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기사A경우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의 말을 인용해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기사 A 의 경우 희귀병 질환자인 개인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설명하여 정부의 의료 지원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원이냐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 조항을 통한 지역 사회 내 의료 문제 해결방식을 추구한 기사 B가 좀 더 참신한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 의료조항은 병으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 돕는 사람이 도움이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사B 에서는 구성원간의 공존,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가능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희귀병 급여도 물론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사A 역시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은 비장애인인 것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사A처럼 장애인의 활동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면 사회의 편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기사B처럼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타문화-인	전체적으로 하잡 착용에 대해 좋다/안 좋다 등의 이분법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 제2장 본론

종/종교	않아서 좋다. 하지만 B 기사에서 다소 치우친 견해의 느낌을 받았다. 하집 착용에 대해 여전히 뭔가 억압을 받고, 종교적인 강요에 의해 신체의 일부를 가린다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약간 부자연스러웠다. 또한 프랑스 측의 입장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로 설명이 되어있는 것이 다소 안타까웠다.
	A기사가 기사제목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부분이 '피부색에 따른 차별' 하나로 축소되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B기사는 특정한 한 부분에만 치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위원회, 박물관 측의 입장, 후속 사건 전개 등을 적절하게 배분한 점이 돋보였다.
	신문 기사에 있어, 제목이 주는 영향력(선입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A기사의 경우, "미국서 마리화나 단속으로 흑인이 백인보다 3.7배 더 체포"라는 제목을 보고, 흑인을 비롯한 미국 내 저소득계층의 전형적인 악물 과다에 대한 기사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했다. 반면 B기사의 경우, "마리화나의 불평등...흑인이 백인보다 3.7배 더 체포돼"라는 제목처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B기사에 비해, A기사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의 시선을 이끄는 제목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는 A기사의 제목은 이미 독자로 하여금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목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전하는 형태의 기사이기 때문에, 두 기사간의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의 마무리를 통해 보이는 논조의 차이를 통해 두 기사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해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단순 인용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면 기사의 경우, 특히 주요 일간지의 지면 상단에 위치하는 기사는 때로 그 내용보다도 제목과 사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A 기사의 경우, 제목만 봤을 때에는 이슬람 국가(IS)의 통치 방식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독자라면 혼란의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반가운 소식이라 판단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명확한 제목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 제2장 본론

## 제 3절 모니터링단 소감문

## 1.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 전후 인식변화

## □ 모니터링 소회

- 모니터링단이 문화다양성 관련 주제별 배정된 프로그램/기사를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변화된 모습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 방송 모니터링단

〈표26-1〉방송 - 모니터링 소감문

주제	특성	인식변화
세대 (실버,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30대</li> <li>뮤지컬, 영화 제작자</li> </ul>	아무런 비판이나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보던 방송 프로그램들을 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생겼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시청자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읽어보려는 노력하는 시청자로 바뀌었다. 당연히 노인, 또는 어린 세대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차별이라 생각되었고,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 이해하고 좀 더 유연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임신 5개월인 나는 특히 아이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해본다. 방송이 만드는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후로도 꼭 다른 방법을 통해 문화다양성 시각을 견지하면서 활동하려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방송을 볼 때 나는 보고 웃었던 장면이지만 누군가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한 방송을 보도하는 것도 변화해야 하지만, 수용자로서 내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려 했던 나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소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배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두가 소수자라는 점을 늘 상기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40대</li> <li>장애 인권 미디어 및 교육 강사</li> </ul>	그동안 방송 모니터를 해왔지만, 문화다양성이란 관점으로 모니터링은 처음이어서 새로웠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써 방송을 볼 때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혹은 배려해야만 하는 약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제가 명확히 전달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 제2장 본론

		과 수화방송 모두 제공되고 있어서 장애가 있는 시청자에 대한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타문화 (여행,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40대</li> <li>중국어 강사, 통역사</li> </ul>	<p>평소 시간대나 방송 프로그램이 중학생 자녀 위주로 보다니 아침이나 늦은 저녁의 프로그램은 잘 시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단기간에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고 특히 문화다양성이란 주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방송에 대한 수동적 반응보다 우리의 시각, 의견들을 반영하여 매우 유익하였다.</p> <p>특히 3개의 소주제(공감/소통, 동등/공존, 융합/발전)로 나뉜 일지 형식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의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어 다양성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와 닿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30대</li> <li>주부</li> </ul>	<p>기존에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며 방송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p> <p>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보니 예전에 비해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문화다양성에 있어서 개방성, 형평성, 공정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고 편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다른 문화 간의 편견과 오해보다도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p>
타문화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특수 (이주민)</li> <li>40대</li> <li>인권강사, 몽골어 통번역자</li> </ul>	<p>다문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동하기 전에는 한국 프로그램(매체)에서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지 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 활동을 해보니 단체 개인 등 사회 곳곳에서 다문화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방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해소 되었고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활동하는 것이 좋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30대</li> <li>다문화 강사, 인류학과 강사 (다문화 시대 민족문제 등)</li> </ul>	<p>문화다양성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매몰되어 살아왔던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p> <p>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작업이었고 특히 “공감/소통”, “동등/공존”, “융합/발전”이라는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여러 번 수정하고 생각해보게 만들었다.</p> <p>또한, 다문화 가정을 다룬 방송프로그램들을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제고는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방송에서 다룰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떤 목표로 다문화 가정의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의 방법은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바라볼 때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p>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다문화에 대해 다룬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고부갈등을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나가는 이주민을 다룬 프로그램 등 조금만 관심을</p>

## 제2장 본론

		<p>갖고 보면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한 내가 다문화가정,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모니터링을 하며 많이 깨졌다는 것도 깨달았다. 내 안에 있던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었는데 방송에 비친 그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을뿐더러 그들 고유의 문화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방송을 찾아보고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영원히 간직할 수도 있는 선입견이었다.</p> <p>스스로가 개방적이고 틀에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문화다양성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기회와 포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모니터링단 활동에 감사한다.</p>
새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40대</li> <li>시민단체 대표, 문화예술강사</li> </ul>	<p>모니터링을 한 프로그램 중에는 사실 그다지 자주 챙겨보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새삼 자세히 뜯어보고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남북관계라는 민감하고도 항상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p> <p>아직도 선입견이 다소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구분 짓기보다는 새터민의 장점은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상의 모습들도 다루는 등 훨씬 부드럽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p> <p>모니터링 일지를 쓰는 것 외에도 팀원분들과 새터민 관련 커뮤니티, 영화상영회에도 초대받아 감상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새로운 경험이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p>북한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을 거의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보게 되면서 약간이나마 북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p> <p>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핵문제, 인권침해 문제 외 떠올리기 힘들다.</p> <p>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영화를 사랑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긴다는 사실 등 생각지 못하고 간과되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말이다.</p> <p>'체노되고 착취되는 동족' 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 우리와 동일한 민족'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p> <p>바로 여기에서 새터민 포용정책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p>
성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50대</li> <li>미디어 교육 강사</li> </ul>	<p>지금까지 접하지 않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계층별, 세대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p>그저 흘러버리기 쉬웠던 각 계층 및 부류를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과 생각을 통해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었다.</p> <p>또한 팀원들을 만나 '성별, 계층'이라는 공감대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p> <p>문화다양성에 대해 내가 가졌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점검하면서</p>

## 제2장 본론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각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해나갈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p>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차별적, 고정관념적 요소가 드러나도 잘 인지하지 못했다.</p> <p>모니터링을 위해 다소 까다로운 문화다양성 기준을 적용해가며 보다 분석적으로 프로그램을 접근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며 문화다양성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다.</p> <p>개인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앞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를 일차적으로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 - 언론 모니터링단

## 〈표26-2〉언론 - 모니터링 소감문

주제	특성	인식변화
타문화 (이주민)/성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특수 (다문화가정)</li> <li>30대</li> <li>주부</li> </ul>	<p>일지를 쓰면서 느낀 감정을 글씨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왠지 호감이 간다. 왜 그런가?를 전달 한다는 것 표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p> <p>모니터링을 하고 나니 광고나 포스터 문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한줄, 그 한마디가 어떤 힘이 있는지, 말의 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쓰는 말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p>
타문화 (이주민)/타문화 (문화,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전문가</li> <li>30대</li> <li>대학강사</li> </ul>	<p>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내 안의 '묵은 편견' 이 생각보다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 활동을 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시각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한국사회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안타까웠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모니터링 이후 스스로가 매체를 볼 때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p>
타문화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p>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신문사나 기사별로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신문사의 경우 인권에 대한 서술방식이 중립적이었고 또 다른 경우 자극적인 표제는 부제를 선택함으로써 그 기사를 읽는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p> <p>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소외계층이나 특정집단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발하고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낸 점이 좋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좀 더 다양한 출처에서 찾아보고 소개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좋을 것 같다.</p>

## 제2장 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그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좀 더 중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기사 또한 실질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타문화 (이주민)/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10대</li> <li>고등학생</li> </ul>	<p>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신문을 읽으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정보를 얻었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기사 하나하나에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 같다.</p> <p>모니터링을 작성하면서 인종에 대한 차별, 종교에 대한 편견 등 여러 문화다양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주 큰 경험이 된 것 같다.</p> <p>기사를 보면서 나의 장래희망인 기사가 되기 위해 기자가 가져야할 기본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았다.</p>
장애인/성별, 계층,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30대</li> <li>직장인</li> </ul>	<p>이번 문화다양성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점이었다.</p> <p>언론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서 기사들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관점이나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로 바라보며 기사를 살펴보는 눈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p>
장애인/성별, 계층, 학력/타문화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 시민</li> <li>20대</li> <li>대학생</li> </ul>	<p>나름대로 차별과 평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차별을 나도 모르게 내면화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p> <p>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자 못지않게 소수자 또한 어느 정도 내면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생겼다. 그래서 문화다양성과 인권, 차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p> <p>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기준' 이다. 소통과 공감, 동등과 공존, 융합과 발전은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볼 때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언론을 볼 때 더욱 더 예민하게, 폭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다.</p>

## 제3장 결론

## 제 3장

## 결 론

## 제1절 : 문화다양성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1. 문화다양성 관련 환경
2. 문화다양성 개념
3. 문화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관련 현황

## 제2절 : 방송 · 언론 모니터링 내용 결과

1.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
2.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언론 기사의 특징

## 제3절 : 이후 방송 ·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제언

1. 2014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2. 이후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 운영의 방향
3. 대상 방송 프로그램 · 언론 기사 선정
4. 방송 · 언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 제3장 결론

## 제1절 문화다양성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1. 문화다양성 관련 환경

- 2014년 11월 19일 이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점차 파급되고 있는 상황
- 문화다양성 시대에 대중매체에서의 표현이 점차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화다양성의 올바른 확산과 정립을 위해 대중매체의 역할이 큼
- 대중매체에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연구는 2012년, 2013년 이후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인종차별 최종결해에서 지속적인 미디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음.

## 제3장 결론

## 2. 문화다양성 개념

-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가 유지되면서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는 하나의 문화나 가치로 통합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지양함을 의미
- 또한 문화다양성의 적용 영역은 인종의 문제나 문화권 간의 문화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한 문화권 내에서의 다양한 소수문화와 다수문화의 융합 과정에도 적용됨.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문화다양성의 주 영역으로 부각되어 온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노동자’ 등의 특정계층에 대한 연구에만 주목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성 소수자와 다수자, 문화권이나 인종, 새터민으로 확장

## 제3장 결론

## 3. 문화다양성 미디어 모니터링 관련 현황

- 미디어의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 고정관념 지수(2010), 여성민우회의 성 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북 등, 성 차별 및 성 불평등에 대한 여러 연구는 있었으나, 다양한 소수계층의 방송·언론 영역에서의 미디어 모니터링 관련된 지표 또는 방송·언론 가이드라인은 없음
-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언론에서의 문화다양성 표현에 대한 정책 및 규제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표현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여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 영국: 공공기관의 인종평등 정책에 대한 입증, 미디어 소유권의 치우침을 심사하는 등, 정책적 규제를 통해 미디어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호주: 적극적인 다문화, 다인종 정책으로 방송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실현 (60개 언어의 텔레비전·온라인 방송, 68개 언어의 라디오 방송 송출)
  - 캐나다: ‘공정 묘사 규정’ 을 통해 TV, 라디오 프로그램이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상태, 육체적·정신적 장애’ 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사례가 신고·접수될 경우 방송사 해명을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심의를 받으며 방송사업 재허가시 불이익
  - 독일: 다문화 주체를 적극적으로 방송과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유도
  -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공화주의(개별 집단의 이해보다 전체 사회의 이해를 우선시)’ 를 미디어 재현에 반영되는지를 방송사 내에 설치된 통합 및 다양성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은 방송·언론 영역에서 주요 과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음. (2014년 4월 8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7대 과제에서 문화다양성 언급 없음)
- 단, KBS에서 1998년 이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소수자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설명되어 있으며, 방송심의규정에도 방송은

## 제3장 결론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5항)고 명기

## 제3장 결론

## 제2절. 방송 · 언론 모니터링 내용 결과

## 1.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

## 가. ‘세대-실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차이가 아닌 공통점을 중심으로 둔 방송 내용
  - 학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 나이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아닌, 멘토와 멘티의 공통점인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구성
- 특정계층에 대한 선입견 배제한 균형 잡힌 시각
  - 노인은 힘없고, 어두울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희로애락이 모두 표현되는 등의 인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줌
-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존중
  -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수혜와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고마운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점
- 과정적 지식의 공유
  - 결과에 대한 공유와 가르침이 아닌 과정에 대한 공유를 통해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
- 과정적 변화에 주목
  - 결과로 표출된 갈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 변화에 대한 내용에 주목
- 민주적 방식의 협의과정 수행
  - 자신의 방식과 내용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하고 협의하는 태도
- 잘못에 대한 시인과 이를 극복하는 모습 노출
  - 갈등요인으로 표출된 내용에 대해 출연자가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시인하는



## 제3장 결론

이유를 설명하며, 서로 이러한 갈등을 받아들이고 변화·발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방송내용에서 표현

## □ 역할에 따른 관계 정립

-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명확히 하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 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덜어낸 방송 내용

- 장애유형에 대한 언급 이외에 장애인의 등급을 노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애인의 '줄 세우기'를 통한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음 (장애등급 표현 제외)

## □ '동정' 이 아닌 '다름' 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유도

- 장애인의 현재 상황을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체적인 차이로 언급하고 신체적 차이가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방송 내용에서 유지

## □ 지원의 대상이 아닌 공존을 위한 나눔에 중심을 둔 방송 내용

-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접근이 아닌, 나와 다른 이가 같이 동등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눔' 으로 표현

## □ '나눔' 자체가 아닌 '나눔의 방식에 대한 언급'

- 베푸는 자의 행위가 '나눔'의 결과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나눔의 방식'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자세히 설명

## □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

-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의해 어려운 생활상을 먼저 언급하기보다 생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욕과 직업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전달
- 출연자의 장애유형에 대한 강조가 아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우선적으

## 제3장 결론

로 언급함으로써, 장애인 또한 생활인임을 우선 전달하여 비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

## □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제반 환경 개선의 필요성 전달

- 비장애인으로서 생각하는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및 시설을 언급함으로써, 동등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장애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언급

## 다. '타문화-여행지, 문화권'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 여행객의 시선이 아닌 거주인의 시선으로 소통하려는 모습

-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의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타문화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거주인의 생활이나 문화를 이해하고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

## □ 방문 국가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

- 방문국의 경제수준이나 문화에 대한 친밀도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려는 태도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동등하게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표현

## □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필요성 전달

- 타문화권의 상이한 생활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다름이 생겨난 원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필요가 있는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

## □ 문화권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표현방식이 아닌 핵심 가치에 집중

- 외모에 대한 반응, 당연하게 여기던 생활방식이나 사회 규범에 대해 타문화권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핵심적 가치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예. 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정한 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함)

## 라. '타문화-이주민'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제3장 결론

-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
  - 한국에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고, 노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과 인식 상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자 노력
-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교류의 노력
  - 이주국 동화주의가 아니라, 출신국(또는 출생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
- 결혼이주여성의 정형화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달
  - 주로 전업주부로서의 일상과 시댁 식구와의 관계형성, 유사상황에 있는 결혼 이주여성과의 관계 등, 결혼이주여성의 제한된 역할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일부 관계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형성된 관계망까지 전달
- 소수자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 주변인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
  - 소수자만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수자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달 (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댁식구/ 남편의 언어습득 노력)
  -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자가 타문화권의 풍습, 종교,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 마. ‘새터민 ‘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북한의 정치, 경제 등의 시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실생활 모습을 보여줌
  - 이념과 경제 등 거대 논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북한 주민의 모습을 확인하여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의 우리말 정책 및 사용의 우수성 전달
  - 우리말 보호 노력과 실생활에서 사용을 통해 우수하게 유지해 온 점을 전달하고

## 제3장 결론

- 그로 인한 긍정적 측면을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우수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새터민의 한국 생활 중 어려운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새터민의 국내 정착 시 어려움을 겪은 이유의 60% 이상이 언어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도하고, 동일 민족임에도 언어의 이질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두음법칙 적용으로 인한 ‘성’의 변화 및 그로 인한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 설명 제공
  - ‘ㄷ’ 씨와 ‘이’ 씨를 다르게 구분하는 북한의 문화와 달리 국내에서는 두음법칙 적용으로 같은 성씨로 구분함으로써 새터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씨를 바꿔야 하는 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요구와 강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줌.
- 북한이라고 하면 생각되는 ‘경직된’, ‘딱딱한’ 이미지를 방송 구성, 음악사용 등을 통해 벗어나고자 한 프로그램 개발
  - 단순보도형식의 방송 구성에서 벗어나, 인터뷰를 하거나,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의 음악이 아닌 밝은 느낌의 음악으로 바꾸는 등, 방송 내용 이외의 다른 요소가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
- 바. ‘기타 계층-성별, 성소수자, 미혼모 등 ‘관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 패널의 선정에서 다양한 군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노력
  - 성소수자나 이혼 경험이 있는 등 패널 구성 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객관적 입장에서 양 쪽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한 내용 구성
  -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중심이긴 하나,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에 대해 우선 인식하고 하나의 사건을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
-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시

## 제3장 결론

- 다양한 관계에 있는 개개인의 역할과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은 하되, 관계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종속적 관계가 아닌 독립적 관계로서 관계 맺기를 권장
- 가치중립적 내용을 담아 시청자나 출연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유도
  - 누가 보아도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 힘든 중간 입장이 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대해 출연자가 스스로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가치관이 투영되도록 함. 또한, 시청자는 열린 결말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 큰 담론에서만 문화다양성을 찾지 않고 소소한 소재 속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민하도록 유도
  -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새터민 등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집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내의 세대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인한 차별성 등, 일상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같은' 보다 '다름' 사이에서의 공감과 '다름'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강점을 전달
  - 한 집단의 동질성이 가지는 강점보다,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가지는 강점이 더 큼을 피력

## 제3장 결론

## 2. 문화다양성이 표현된 언론 기사의 특징

- 다양한 시각의 정보 제공
  - 한 쪽의 시각에만 치우친 정보가 아닌, 당사자 양쪽의 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균형감 있게 제공하며 하나의 사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제시
- 단순 정보제공에서 사회적 합의 및 문제해결방식 도출 노력
  - 정보 제공 이후에 기자가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식에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며, 긍정과 부정의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 있게 제시
- 걸러지지 않은 네티즌 반응의 무비판적 사용하지 않음
  - SNS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일부 차용하여 전체 여론이 몇몇 인용된 SNS의 내용에 의해 대변되는 듯 하는 잘못된 판단을 조장하지 않아야 함.
-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여 조망
  - 범죄자, 저소득층 등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층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나 이유로 해석하지 않고, 이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부분을 언급
- 소수집단과 다른 사회집단의 소통, 공존의 노력 표현 여부
  - 개별집단으로서의 차이점을 인식, 정보에 대한 균형 잡힌 제공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집단 간에 소통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의 표현되는 것이 좀 더 고도화된 문화다양성의 표현 방식
- 집단으로 통칭하는 용어 사용을 하지 않아 선입견 배제
  - 다수자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해석하고자 하는 용도로 개인을 그룹화하는 등,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화를 통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배제
- 소수자의 특징을 다름으로 인식하고 다수자와의 공통점을 언급
  - 소수자와 다수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언급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시각 차이와 이를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사에 언급되도록 노력

## 제3장 결론

- 이목을 끌기 위한 기사제목 선정으로 인한 선입견 조장하지 않음
  - －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이 무관하여 기사제목을 통해 선입견이 형성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함.

## 제3장 결론

## 제3절. 이후 방송 ·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제언

## 1. 2014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2014년 방송 · 언론 모니터링은 다수의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수의 지원자 중, 모니터링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데에 주력
  - － 80명 모집하는 데에 350여명이 지원
  - － 문화다양성 또는 모니터링에 연관된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
  - － 또한, 주제영역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모니터링단 개인의 성향, 관심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수행
  - － 모니터링 시작 전과 후에 워크숍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전적 교육을 진행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공유
  - － 80명의 모니터링단이 8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 조별 활동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서로 공유하며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
  - － 약 2개월 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모니터링단 참여경험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 기사를 접할 때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힘.
- 따라서 2014년에 진행된 모니터링 연구의 경우, 다수의 모니터링단을 선발 · 관리하며 모니터링 수행 이후 모니터링단의 변화가 매우 컸다는 점이 특징적임.

## 제3장 결론

## 2. 이후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 운영의 방향

- 모니터링 운영의 목적에 따라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방향 1) 모니터링 내용의 품질 및 관리에 주력하여 소수의 모니터링단이 전수의 방송 ·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
  - 방향 2) 모니터링을 통한 모니터링단의 변화 및 방송 · 언론에서의 문화다양성 시각의 중요성 확보
- 방향 1) 소수의 모니터링단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의 품질은 모니터링단의 시각 및 비판의식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니터링단을 소수로 선발 (예, 방송 영역 10명, 언론 영역 10명 등, 1회 회의 개최가 가능한 인원수로 선발)
  -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단의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모니터링단의 학습과 성장을 유도
- 방향 2) 모니터링단의 변화 및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다수의 모니터링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는 있으나, 2014년 연구와 같이 조별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조별로 전문가가 이들의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커뮤니티 형 구조를 만들 경우 관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음.
  - 또한 모니터링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강조하고 각자 소모임과 연계하는 등, 모니터링단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기초단위로 만들고자 한다면, 2014년 연구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좀 더 많은 예산 배정이 가능한 연구 구성이 필요함

## 제3장 결론

## 3. 대상 방송 프로그램 · 언론 기사 선정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및 기사는 2014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1)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과 언론 기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2) 양적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해당 영역에서 긍정적, 부정적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 프로그램 및 기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함.
- 1)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과 언론 기사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 기획의도 자체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부분으로 부정 사례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표현된 사례들을 찾아내고, 문화다양성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수상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문화다양성 발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언론 기사의 경우 특정 기획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며 대부분 단발성 기사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사를 2014년과 마찬가지로 검색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임.
- 2) 양적 조사를 우선시행한 이후 긍정 · 부정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 프로그램 대상 진행하는 방식
  - 양적 조사를 우선 시행한 이후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방송 및 언론사 전체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식이나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단, 양적 조사 완료 후, 집계된 수치는 방송사나 언론사별 평가 수치로 보지 않고, 2014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문화 중, 방송 ·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저해되는 요소가 많은 영역을 확인하고, 이후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 기사 작성 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함.

## 제3장 결론

## 4. 방송 · 언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 문화다양성은 기존 '다문화 정책'에서 발전한 좀 더 포괄적인 타인, 타문화, 타 가치관을 대하는 개인 및 사회의 태도에 관한 문제로, 한 개인의 변화가 전체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방송 및 언론사에 회자되어 보다 많은 프로그램 및 기사가 문화다양성을 증진·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람.
- 방송 및 언론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캐니다와 같이 방송 사업의 재허가나 심의 등의 직접적인 규제도 필요하나, 문화다양성 기획 프로그램 중, 문화다양성 가치가 잘 담겨 있는 프로그램 및 기사에 대한 시상이나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함.
- 또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요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블로그나 SNS 활동 등이 권장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방송 및 언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음.
- 실제로 2014년 문화다양성 방송 · 언론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80명의 요원 중 대다수가 모니터링 참여 이전과 이후에 본인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매우 크게 상승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음.
- 즉, 방송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나 시상 등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방송 및 언론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증진시킬 수도 있으나, 해당 기사를 보는 대중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또한 모니터링 운영 사업의 또 한 가지 활용 측면.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강혜란 외(2010)의 『(2010 방송모니터링 보고서)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2013년 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인권위원회(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 뉴스초점이주민과 주변 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 -3호 (2009년 5월).
- 김세은, 김수아(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 외국인 노동자 보도 분석, 『다문화사회 연구』 제1권 1호.
- 김예란, 유단비, 김지윤(2008).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언론과 사회』, 17권 1호.
- 김용숙(2007).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글로컬리즘 콘텐츠, 『한국방송공학회논문지』, 12권 5호.
- 남시호(2010). 미디어다양성의 문화정치학 : 측정의 자유시장,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언론 정보학보』, 통권51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2008). 『다문화사회 문화적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연구』,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백선기, 황우섭(2009).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45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284~285.
- 유의선 (2009). 미디어다양성: 정책합의와 접근 방법. 『방송통신연구』, 69권.
- 이경숙(2008).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 의 정체성 : <러브 인 아시아> 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0-3호.
- 이남미, 이근모(2007). 하인스 위드의 매스미디어 보도를 통한 민족적 정체성과 다문화주의의 담론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권 1호.
- 이상길, 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 이은미(2001). 1990년대 텔레비전 방송의 다양성 분석 연구: 지상파방송의 프라임 타 임대 프로그램 다양성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 이인희·황경아(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 연구』, 제6권 2호.
- 이재승, 박경숙(2013). 지역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3권 1호.
- 이종열(2013). 미디어와 정부예산을 통한 다문화 사회 이슈 분석, 『한국자치행정정보』, 제27권 제2호.
- 임양준(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 조선일보, 한겨

## 참고문헌

- 레. 정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2년 12월).
- 임운택, 이해영 외(2012).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장민정(2014).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휴먼 다큐멘터리 EBS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전규찬(2004). 텔레비전과 문화다양성. 질적평가의 연관성,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 정의철, 이창호 외(2009).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조성은, 김태오 외(2012).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 조옥라 외(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수립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종합예술학교(2012).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종합예술학교(2013).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2호.
- 홍지아(2010). 1인칭 다큐멘터리에 드러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재현과 정체성의 자리매김. 미디어, 젠더&문화』, 제18호.